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사업체 동태 분석

2020. 10.

<차례>

<요약>.....	1
1. 서론.....	39
2. 자료 및 변수 구축.....	40
2.1 자료.....	40
2.2 변수 구축.....	40
3. 경상북도 지역 고용 및 사업체의 특성.....	43
4. 경상북도의 고용 동향.....	45
4.1 산업별 분석.....	49
4.2 규모별 분석.....	55
4.3 매출 수준별 분석.....	61
5. 경상북도의 매출 동향.....	66
5.1 산업별 분석.....	69
5.2 규모별 분석.....	74
6. 경상북도의 지역별 고용 동향.....	78
6.1 포항시.....	81
6.2 경주시.....	85
6.3 김천시.....	89
6.4 안동시.....	93
6.5 구미시.....	97
6.6 영주시.....	101
6.7 상주시.....	105

6.8 문경시	109
6.9 경산시, 청도군	113
6.10 영천시, 군위군	117
6.11 의성군, 예천군	121
6.12 성주군, 고령군	125
6.13 칠곡군	129
6.14 봉화군, 청송군	133
6.15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137
7. 제조업 세부 분석	141
7.1 산업별 고용 동향 분석	143
8. 사업체의 해외 진출과 복귀	147
8.1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및 매출 현황	148
8.2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동향	150
9. 사업주 연령별 분석	152
10. 사업체의 지역간 이전	155
11. 결론	159
<참고 문헌>	161
<부록>	162

<표 차례>

<표 1> 진입, 퇴출, 계속 사업체의 정의.....	41
<표 2> 고용증가율 및 사업체수 증가율.....	43
<표 3>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	45
<표 4> 사업체의 순일자리 창출률과 순일자리 창출.....	46
<표 5>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47
<표 6>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47
<표 7>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	49
<표 8>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51
<표 9> 산업별 일자리 창출률 구조.....	52
<표 10> 규모별 진입률과 퇴출률.....	55
<표 11> 규모별 일자리 창출 구조.....	57
<표 12> 규모별 일자리 창출률 구조.....	58
<표 13> 매출 수준별 진입률과 퇴출률.....	61
<표 14> 매출 수준별 순일자리 창출 구조.....	62
<표 15> 매출 수준별 순일자리 창출률 구조.....	63
<표 16> 순매출 창출률과 순매출 창출.....	66
<표 17> 사업체의 매출 창출과 소멸.....	67
<표 18> 사업체의 매출 창출률과 소멸률.....	68
<표 19> 산업별 매출 창출 구조.....	69
<표 20> 산업별 매출 창출률 구조.....	72
<표 21> 사업체 규모별 매출 창출 구조.....	74
<표 22> 사업체 규모별 매출 창출률 구조.....	77

<표 23>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81
<표 24>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81
<표 25>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82
<표 26>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83
<표 27>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85
<표 28>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85
<표 29>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86
<표 30>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87
<표 31>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89
<표 32>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89
<표 33>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90
<표 34>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91
<표 35>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93
<표 36>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93
<표 37>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94
<표 38>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95
<표 39>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97
<표 40>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97
<표 41>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99
<표 42>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00
<표 43>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01
<표 44>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01
<표 45>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02
<표 46>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03

<표 47>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05
<표 48>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05
<표 49>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06
<표 50>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07
<표 51>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09
<표 52>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09
<표 53>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10
<표 54>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11
<표 55>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13
<표 56>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13
<표 57>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14
<표 58>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15
<표 59>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17
<표 60>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17
<표 61>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18
<표 62>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19
<표 63>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21
<표 64>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21
<표 65>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22
<표 66>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23
<표 67>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25
<표 68>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25
<표 69>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26
<표 70>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27

<표 71>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29
<표 72>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29
<표 73>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31
<표 74>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32
<표 75>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33
<표 76>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33
<표 77>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34
<표 78>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35
<표 79>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137
<표 80>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137
<표 81>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138
<표 82>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139
<표 83>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144
<표 84>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고용 및 매출	148
<표 85> 해외 진출 기업의 비중	149
<표 86>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동향	150
<표 87>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152
<표 88>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153
<표 89>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153
<표 90> 지역별 사업체 전입 및 진출	155
<표 91> 경상북도의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 진출 및 전입	156
<표 92> 경상북도의 광제조업 세부 산업별 사업체 진출 및 전입	157

<그림 차례>

<그림 1> 경상북도의 고용과 사업체 수.....	43
<그림 2> 경상북도의 산업 구성.....	44
<그림 3>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	45
<그림 4> 사업체의 순일자리 창출률.....	46
<그림 5> 사업체 동학 특성별 고용 창출률.....	48
<그림 6>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53
<그림 7> 규모별 일자리 창출 구조.....	59
<그림 8> 매출 분위별 일자리 창출 구조.....	64
<그림 9> 사업체의 매출 창출률.....	66
<그림 10> 사업체 동학 특성별 매출 창출률.....	67
<그림 11> 산업별 매출 창출 구조.....	71
<그림 12> 규모별 매출 창출 구조.....	76
<그림 13> 경상북도 내 세부 지역별 특성.....	78
<그림 14> 경상북도 내 세부 지역별 고용 창출 구조.....	80
<그림 15>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	141
<그림 16>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 동학.....	143

〈요약〉

1. 서론

- 지역 내의 사업체 종사자 기준 고용 창출과 소멸은 상당 부분 사업체 수준의 진입과 퇴출에 의하여 설명됨.
 - Haltiwanger et al. (2013), Cho et al.(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 재배치의 상당 부분이 계속사업체보다는 진입과 퇴출을 통하여 나타나며, 고용 순창출 또한 진입사업체를 통하여 나타남.
- 국내 경제는 2012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용 동학 역동성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
 - 제조업 및 수출 경기는 2014년 이후 환율을 비롯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부진
 - 대내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사양화가 시작되며, 기업체(사업체)의 동학적 역동성이 저하됨.
- 이처럼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북도의 고용 창출 구조 및 그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대두
 - 경상북도는 국내의 나머지 지역과 달리 제조업 위주의 산업도시가 많고, 대도시와의 연결성이 낮은 고령 인구 중심의 지방 소도시가 다수 존재하여 최근의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매출 수준별 고용 및 사업체 동학 분석, 지역 노동 시장 분석, 제조업 세부 산업별 분석 등을 통해 경상북도의 고용 창출 및 산업 구조 변화와 성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자료 및 변수 구축

□ 자료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등록부(SBR),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경상북도의 고용 동학을 분석함.
- (기업등록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업체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실제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며, 기업등록부에서 파악되지 않은 비임금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기업활동조사) 50인 이상 및 3억원이상 자본금 보유 기업에 대한 조사자료로,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설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변수 구축

-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대한 정의>		
구분	사업체 정보 관측 여부	
	이전 관측 시점(t-1)	현재 관측 시점(t)
계속 사업체	○	○
퇴출 사업체	○	×
진입 사업체	×	○

- Davis et al.(1998), Foster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는 사업체를 동학적 특성에 따라 <표>와 같이 진입(entering, 퇴출(exiting) 및 계속(continuing) 사업체 중 하나로 분류함.
- (시장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및 대분류 산업 수준에서 시장을 정의함.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등록부자료의 경우 사업체식별코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관측 시점에 따라 사업체의 위치나 소속 산업코드가 다른 관측치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관측치들 처리 방식은 시장의 정의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사업체식별코드 내에서 '경주→포항'과 같은 시(市)간 이동이나, '소매업 → 제조업'과 같은 대분류 산업 이동은 기존 사업체의 퇴출과 신규 사업체의 진입으로 처리

○ 고용 및 매출의 창출과 소멸

$$\Delta X_t = \underbrace{\left(\sum_{e \in con+} \Delta X_{e,t} + \sum_{e \in en} \Delta X_{e,t} \right)}_{\{\text{고용, 매출}\} \text{창출}} - \underbrace{\left(\sum_{e \in con-} |\Delta X_{e,t}| + \sum_{e \in ex} |\Delta X_{e,t}| \right)}_{\{\text{고용, 매출}\} \text{소멸}}$$

- $X_{e,t}$ 는 사업체 e의 t기 노동 투입 또는 매출액을 의미하며, ΔX_t 는 시장 전체의 노동 투입 또는 매출액의 변화분을 나타냄.
- (창출) 노동 투입 또는 매출액이 증가한 계속 사업체(con+)와 진입사업체(en)의 X변화량 총합
- (소멸) 노동 투입 또는 매출액이 감소한 계속 사업체(con-)와 퇴출 사업체(ex)에 해당하는 관측치에 대한 X변화량 총합
- 위 식의 양변을 X_{t-1} 로 나누면 X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에 대한 항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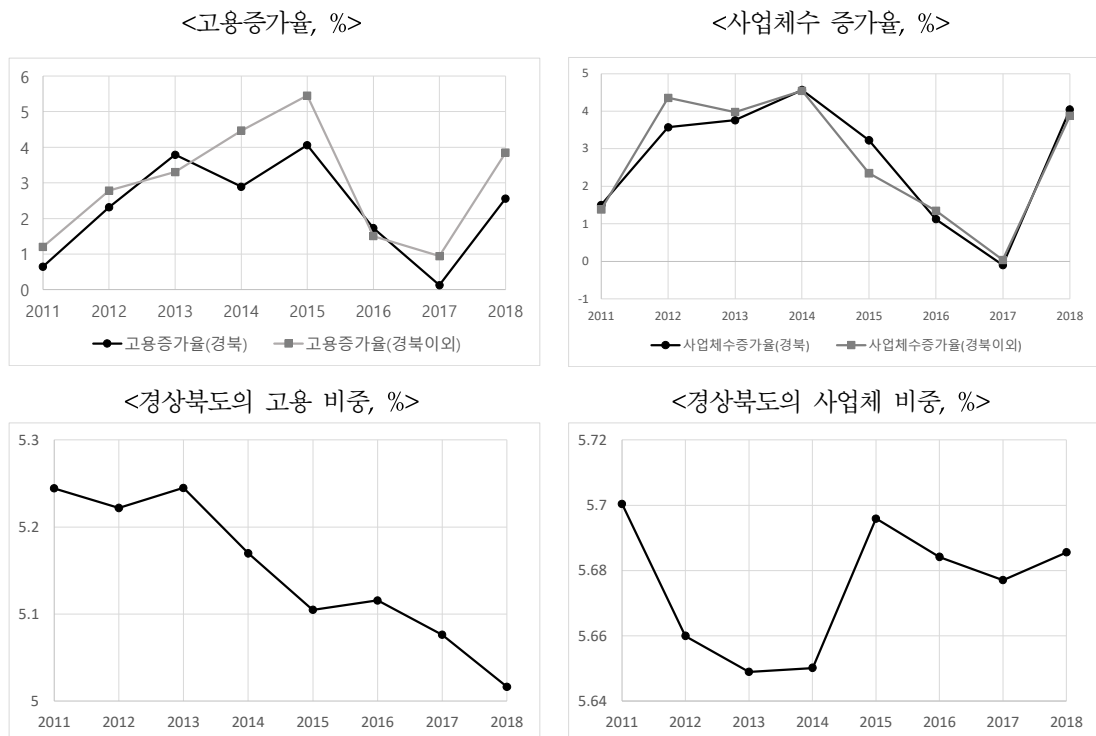
3. 경상북도 지역 경제 현황

□ 경상북도의 고용 및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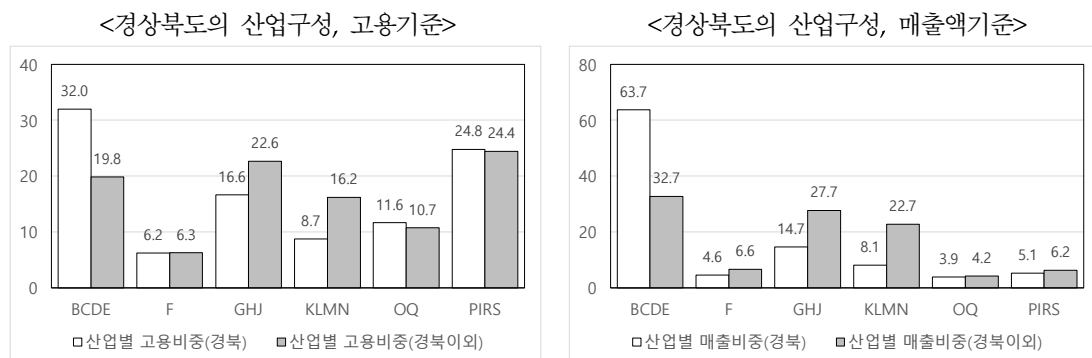
연도	기업등록부, 전국사업체조사 연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고용 (천명)	사업체 수 (천개)	고용 (천명)	사업체 수 (천개)
2010	918.6	180.8	927.3	186.7
2011	924.5	183.5	945.7	193.4
2012	945.9	190.1	966.3	199.5
2013	981.8	197.2	1004.1	205.7
2014	1010.2	206.2	1028.9	213.8
2015	1051.2	212.8	1066.2	218.8
2016	1069.4	215.2	1086.6	222.5
2017	1070.7	215.0	1096.4	226.1
2018	1098.1	223.7	1117.8	232.0
평균	1007.8	202.7	1026.6	210.9

○ 고용과 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18.8천명, 8.2천개 오차

□ 고용 및 사업체 수 증가율



- 경상북도의 고용증가율을 경상북도 이외 지역과 비교하면, 2013년 이전까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기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2017년 이후 고용증가율 격차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발견됨.
-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고용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사업체수 증가율은 나머지 지역과 매우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수 비중도 5.6%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사업체당 고용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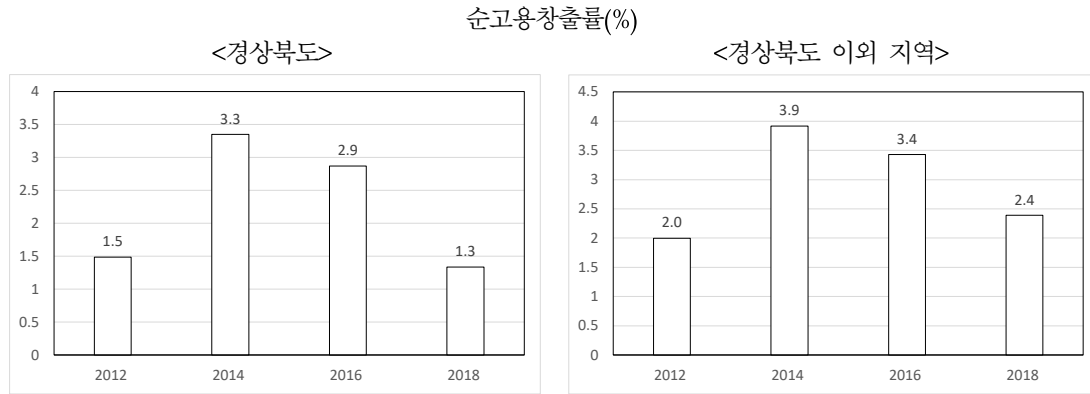
주) 광제조업(BCDE), 건설업(F), 유통서비스업(GHJ), 생산자서비스업(KLMN), 사회서비스업(OQ), 개인서비스업(PIRS)

-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제조업(BCDE) 비중과 대체로 낮은 유통서비스업(GHJ) 및 생산자 서비스업(KLMN) 비중을 가짐.
- 광·제조업(BCDE) 고용 비중은 평균 32.0%로 19.8%의 나머지 지역 평균보다 높음.
- 광·제조업(BCDE) 매출 비중은 63.7%로 32.7%를 나타낸 나머지 지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광·제조업(BCDE) 성장은 높은 진입 비용 및 복잡한 입지 요건들로 인해 모든 지역 시장에서 골고루 나타나기 어려움.
- 광·제조업(BCDE) 업황 변화에 따른 지역 시장 과급효과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음.
- 광·제조업(BCDE) 기반이 약한 지역의 경우, 농업 위주의 산업 구성, 시장 구매력 부족, 전반적인 지역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인해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 및 매출 동향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4. 경상북도의 고용 동향

□ 순고용창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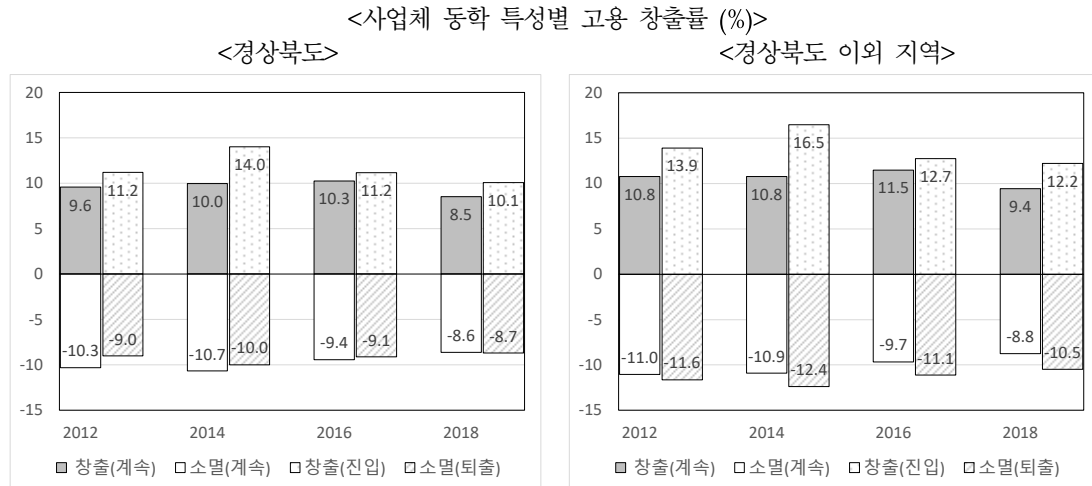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이외 지역의 순고용창출>			
지역	연도	순고용창출률(%)	순고용창출(천명)
경북	2012	1.5	13.7
	2014	3.3	32.3
	2016	2.9	29.6
	2018	1.3	14.3
	평균	2.3	22.5
경북이외	2012	2.0	331.6
	2014	3.9	682.6
	2016	3.4	652.9
	2018	2.4	476.1
	평균	2.9	535.8
경북 비중	평균	-	4.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경상북도의 순고용창출률((net job creation rate)은 연평균 2.3%로 2.9%를 기록한 경상북도 이외 지역보다 약 0.6%p 낮은 수준
- 2013-2014년 기간 이후 순고용창출률 및 규모가 하락하는 현상은 국내 전체에서 동일하게 관측되지만,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서는 2017-2018년에도 2011-2012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세부 항목별 순고용창출 구조 비교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고용 동학의 역동성은 대체로 경상북도보다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서 큼.
 - 경상북도 : 진입창출(11.6%), 계속창출(9.6%), 퇴출소멸(9.2%), 계속소멸(9.8%)
 - 경상북도 이외: 진입창출(13.8%), 계속창출(10.6%), 퇴출소멸(11.4%), 계속소멸(10.1%)
- 경상북도의 고용 동학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진입 사업체, 고용 소멸 측면에서는 계속 사업체의 기여가 더 높게 나타남.
- 이처럼 전반적으로 낮은 동학적 역동성과 고용 소멸 측면에서의 높은 계속 사업체 비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 및 미약한 서비스업 시장 구조를 반영함.

4.1 산업별 분석

<경상북도의 산업별 고용 동향>								
산업분류	연도	순고용	고용 창출(천명)			고용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1.1	26.6	29.3	55.9	20.8	24.1	44.9
	2014	12.9	37.2	27.2	64.4	22.7	28.8	51.5
	2016	2.9	24.9	27.2	52.1	20.7	28.6	49.3
	2018	-1.3	25.0	23.4	48.4	20.9	28.8	49.7
	평균	6.4	28.4	26.8	55.2	21.3	27.6	48.9
건설업 (F)	2012	-5.8	8.2	8.8	17.0	7.7	15.1	22.8
	2014	1.1	12.0	9.5	21.4	7.4	12.9	20.3
	2016	6.7	8.9	15.3	24.2	7.4	10.0	17.5
	2018	2.6	7.0	11.1	18.1	6.9	8.6	15.5
	평균	1.2	9.0	11.2	20.2	7.4	11.7	19.0
유통서비스 (GHI)	2012	1.6	21.5	13.0	34.5	17.1	15.8	32.9
	2014	6.0	28.1	15.7	43.8	20.6	17.2	37.8
	2016	4.7	24.7	17.6	42.3	21.2	16.5	37.6
	2018	1.8	21.7	14.3	36.0	18.7	15.5	34.2
	평균	3.5	24.0	15.2	39.2	19.4	16.3	35.6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2.4	12.0	8.5	20.5	9.0	9.1	18.1
	2014	2.4	13.4	9.5	22.9	10.0	10.5	20.5
	2016	4.1	13.6	11.3	24.9	10.9	9.9	20.8
	2018	0.3	11.4	9.1	20.5	10.2	10.0	20.2
	평균	2.3	12.6	9.6	22.2	10.0	9.9	19.9
사회서비스 (OO)	2012	1.8	5.4	8.6	14.0	3.1	9.1	12.2
	2014	4.0	7.6	9.9	17.6	5.1	8.5	13.6
	2016	7.3	9.2	10.5	19.7	5.0	7.4	12.4
	2018	10.4	9.3	12.8	22.1	4.4	7.3	11.7
	평균	5.9	7.9	10.5	18.4	4.4	8.1	12.5
개인서비스 (PIRS)	2012	2.7	29.7	20.1	49.8	25.6	21.6	47.1
	2014	5.8	37.0	24.2	61.3	30.6	24.9	55.5
	2016	3.9	33.9	23.8	57.7	28.9	24.8	53.7
	2018	0.6	33.7	20.8	54.5	31.8	22.2	53.9
	평균	3.3	33.6	22.2	55.8	29.2	23.4	52.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광·제조업

- (순고용창출) 가장 높은 규모의 6.4천명 고용이 분석 기간 동안 순창출되었으나, 2014년 이후 그 하락폭이 매우 크며 2017-2018년 기간에는 1.3천명의 고용이 순감소
- (세부 항목별) 대체로 일정한 다른 항목과 달리 2014년 이후 사업체 진입에 의한 고용 창출 규모가 빠르게 감소함.

□ 건설업

- (순고용창출) 2012년 이전 5.8천명의 고용이 순감소했지만, 2016년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냄. 2017-2018년 기간에는 2.6천명의 고용이 순창출되어 상승폭이 축소
- (세부 항목별) 진입을 통한 고용 창출이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계속 사업체의 고용 창출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 소멸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유통서비스업

- (순고용창출) 연평균 3.5천명의 순고용 창출이 나타남. 2017-2018년은 1.8천명의 고용이 순증가하여 2012년 이전 수준과 유사한 수준
- (세부 항목별) 총 고용 소멸이 2014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규모 축소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

□ 생산자서비스업

- (순고용창출) 2015-2016년 4.1천명의 순고용창출을 기록하였으나, 2017-2018년 0.3천명 순고용증가를 기록하여 2012년 이전 수준(2.4천명)을 하회
- (세부 항목별) 총고용창출은 2015-2016년 계속 사업체(11.3천명)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났으나, 2017-2018년 기간에서 진입 및 계속 사업체의 고용이 동반 감소

□ 사회서비스업

- (순고용창출) 연평균 순고용창출은 5.9천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관측됨.
- (세부 항목별) 진입 사업체와 계속 사업체의 고용 창출이 점차 활발하게 지고 있으며, 계속 사업체 고용 소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고용 창출과 소멸이 지속적으로 활발한 구조 속에서 순고용창출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개인서비스업

- (순고용창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2013-2014년 기간 이후의 부진으로 2012년 이전(2.7천명) 이하의 고용이 2017-2018년(0.6천명) 순창출
- (세부 항목별)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고용 변동이 계속 사업체보다 높아 전형적인 지역 서비스업에서의 동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사업체 퇴출에 의한 고용 감소폭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진입에 의한 고용 창출 감소폭도 제한적

4.2 규모별 분석

<경상북도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 동향>

규모	연도	순고용	고용 창출(천명)			고용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14.8	12.9	13.5	26.4	11.6	0.0	11.6
	2014	20.7	15.9	18.4	34.3	13.6	0.0	13.6
	2016	16.4	15.3	15.5	30.8	14.4	0.0	14.4
	2018	10.3	14.1	9.7	23.8	13.5	0.0	13.5
	평균	15.6	14.6	14.3	28.8	13.3	0.0	13.3
2-4인	2012	2.7	31.1	18.4	49.5	26.3	20.5	46.8
	2014	9.4	40.8	24.3	65.1	31.1	24.6	55.7
	2016	13.5	38.2	29.5	67.6	31.3	22.8	54.1
	2018	15.5	38.3	28.0	66.4	31.2	19.7	50.9
	평균	10.3	37.1	25.1	62.2	30.0	21.9	51.9
5-9인	2012	7.3	16.4	10.4	26.8	8.8	10.7	19.5
	2014	7.6	23.3	13.2	36.5	12.7	16.3	28.9
	2016	5.2	18.4	16.3	34.7	13.7	15.8	29.5
	2018	0.6	18.1	14.7	32.8	14.9	17.3	32.2
	평균	5.2	19.1	13.7	32.7	12.5	15.0	27.5
10-49인	2012	-2.2	24.7	22.7	47.4	18.7	31.0	49.7
	2014	3.1	32.9	23.2	56.1	21.4	31.6	53.0
	2016	-0.6	26.2	24.7	51.0	21.7	29.9	51.6
	2018	-3.8	23.4	22.7	46.1	21.2	28.7	49.9
	평균	-0.9	26.8	23.3	50.2	20.8	30.3	51.1
50-99인	2012	-2.4	7.2	7.3	14.5	5.7	11.2	16.9
	2014	-2.9	9.0	6.1	15.1	6.7	11.4	18.0
	2016	-0.8	7.3	7.5	14.8	6.2	9.4	15.6
	2018	-3.8	5.4	6.3	11.7	5.9	9.6	15.5
	평균	-2.5	7.2	6.8	14.0	6.1	10.4	16.5
100인 이상	2012	-6.5	11.1	16.0	27.1	12.0	21.5	33.6
	2014	-5.5	13.4	10.9	24.3	10.9	18.9	29.8
	2016	-4.1	9.8	12.2	22.0	6.8	19.3	26.1
	2018	-4.5	8.7	10.1	18.8	6.3	17.0	23.3
	평균	-5.2	10.8	12.3	23.1	9.0	19.2	28.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1인 사업체

- (순고용창출) 연평균 15.6천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전체 규모 그룹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냄. 2013-2014년(20.7천명) 기간 이후, 지속적 하락으로 2017-2018년에는 2012년(14.8천명) 이전보다 낮은 10.3천명의 순고용증가 관측됨.
- (세부 항목별) 2017-2018년 이전까지 나타났던 진입 후 성장(계속 사업체의 고용 창출)이 2017-2018년 절반 가까이 하락하면서 순고용창출 규모 감소를 주도

□ 2-4인 사업체

- (순고용창출) 평균 10.3천명의 순고용창출이 나타나며, 추세적으로도 지속적인 창출 규모 확대가 나타남.
- (세부 항목별) 퇴출에 의한 고용 소멸 감소가 매우 일정한 가운데, 총 고용 소멸이 계속 사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5-9인 사업체

- (순고용창출) 2015-2016년(5.2천명)까지 양호하던 흐름이 2017-2018년 0.6천명 수준으로 하락함.
- (세부 항목별) 고용 소멸의 개별 항목이 모두 꾸준한 확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 창출 부문의 축소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순고용창출이 감소하고 있음.

□ 10-49인 사업체

- (순고용창출) 2013-2014년(3.1천명)을 제외하면 고용의 지속적 순증가가 관측되고 있음.

- (세부 항목별) 총 고용 소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진입 사업체에서 2013-2014년(32.9천명) 이후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50-99인 사업체

- (순고용창출) 연평균 2.5천명의 순고용 감소가 관측되고 있음. 2015-2016년을 제외하면 고용 감소폭이 평균(2.5천명)보다 높으며, 특히 2017-2018년 3.8천명의 고용이 순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
- (세부 항목별)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의 고용 창출과 소멸 규모를 비교할 경우 여전히 평균적으로 약 1.1천명($=7.2-6.1$)의 순고용 증가가 나타나지만, 계속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순고용감소가 평균 3.6천명($=10.4-6.8$)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00인 이상 사업체

- (순고용창출) 연평균 5.2천명의 고용이 순감소하였으며, 고용 감소폭은 4천명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음.
- (세부 항목별) 50-99인 사업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계속 사업체의 순고용창출 부진이 크게 나타나며 전체적인 고용 변동을 주도

4.3 매출 규모별 분석

<경상북도의 매출 규모별 고용 동향>								
규모	연도	순고용	고용 창출(천명)			고용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분위	2012	7.3	17.9	5.6	23.4	11.8	4.3	16.1
	2014	5.0	17.7	6.9	24.6	13.6	6.0	19.6
	2016	4.8	16.1	4.2	20.3	11.6	3.9	15.5
	2018	4.9	14.0	3.9	17.9	10.0	3.0	13.0
	평균	5.5	16.4	5.2	21.6	11.8	4.3	16.1
2분위	2012	1.5	14.1	7.9	22.0	13.1	7.3	20.4
	2014	3.7	17.9	8.8	26.7	14.2	8.7	23.0
	2016	3.0	17.5	8.1	25.5	14.8	7.8	22.5
	2018	4.2	17.3	6.4	23.7	13.7	5.8	19.5
	평균	3.1	16.7	7.8	24.5	14.0	7.4	21.4
3분위	2012	4.3	20.0	12.4	32.4	14.7	13.4	28.1
	2014	7.9	26.5	16.3	42.8	18.6	16.4	34.9
	2016	9.6	26.2	18.5	44.7	19.8	15.4	35.1
	2018	7.6	26.4	17.4	43.7	21.6	14.5	36.2
	평균	7.4	24.8	16.2	40.9	18.7	14.9	33.6
4분위	2012	0.5	51.4	62.5	113.9	43.4	69.9	113.4
	2014	15.7	73.2	64.1	137.3	49.9	71.7	121.6
	2016	12.3	55.4	75.0	130.4	47.9	70.2	118.2
	2018	-2.4	50.4	63.8	114.2	47.6	69.0	116.6
	평균	6.5	57.6	66.4	124.0	47.2	70.2	117.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매출 1분위 사업체

- (순고용창출) 평균 5.5천명의 순고용창출이 관측되며, 연도별로도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세부 항목별)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고용 변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총 고용 창출 및 총 소멸의 규모는 2013-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매출 2분위 사업체

- (순고용창출) 추세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평균 3.1천명의 순고용증가가 나타남.
- (세부 항목별)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고용 창출과 소멸은 평균 수준에서 소폭의 변동을 나타내는 반면, 계속 사업체는 2013-2014년 이후 변동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

□ 매출 3분위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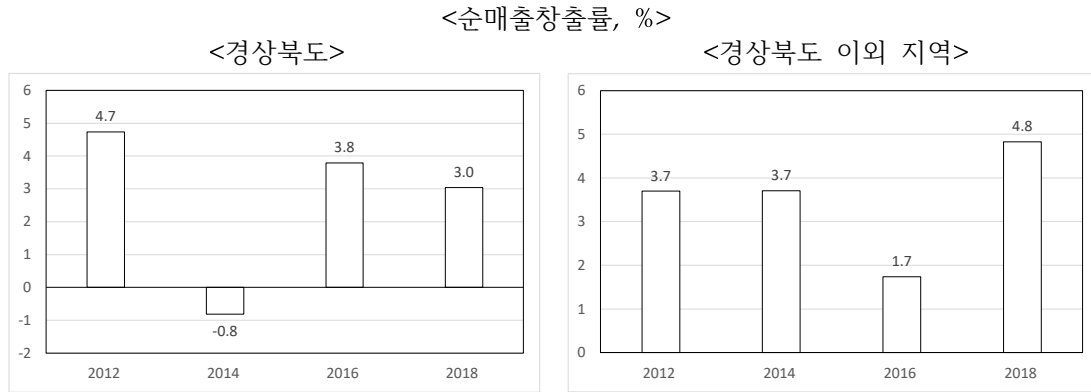
- (순고용창출) 평균 7.4천명의 고용이 순증가하여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냄.
- (세부 항목별) 평균적으로 진입 사업체에서 퇴출 사업체의 고용 소멸(18.7천명)을 상회하는 고용 창출(24.8천명)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총 고용 창출 및 총 고용 소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매출 4분위 사업체

- (순고용창출) 평균적으로 6.5천명이 고용이 창출되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17-2018년 2.4천명의 고용이 순감소
- (세부 항목별) 2017-2018년의 부진한 순고용창출은 총고용창출규모가 이전 기간(130.4천명)보다 16.2천명 감소한 114.2천명을 기록함에 따라 발생함.

5. 경상북도의 매출 동향

□ 순매출창출 비교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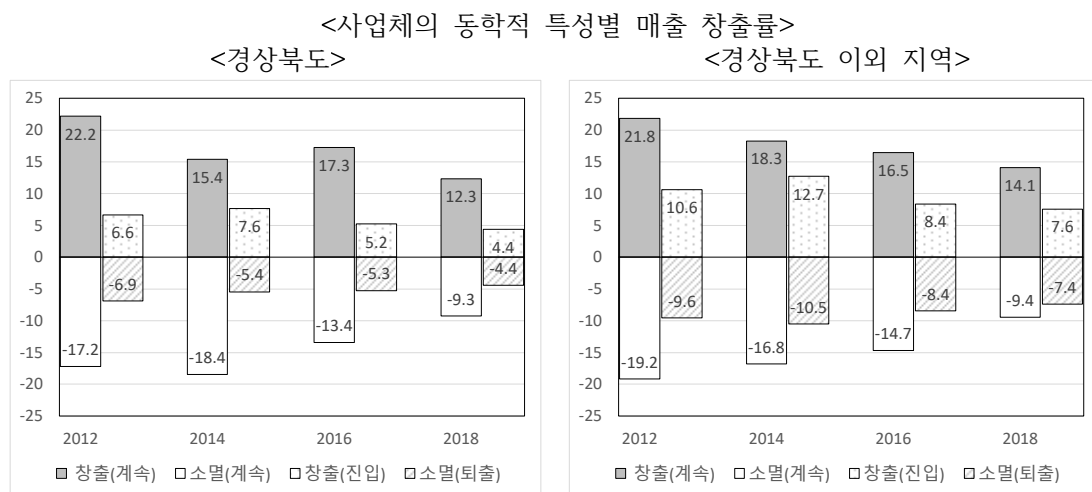
지역	연도	순매출창출률(%)	순매출창출(조)
경북	2012	4.7	10.6
	2014	-0.8	-2.1
	2016	3.8	9.8
	2018	3.0	8.6
	평균	2.7	6.7
경북이외	2012	3.7	156.1
	2014	3.7	168.6
	2016	1.7	83.6
	2018	4.8	246.5
	평균	3.5	163.7
경북 비중	평균	-	4.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경상북도의 순매출창출률((net sales creation rate)은 연평균 2.7%로 3.5%를 기록한 경상북도 이외 지역보다 약 0.8%p 낮은 수준
- 이와 같은 차이는 2013-2014년 달성한 -0.8%의 낮은 순매출창출률(-2.1조의 순매출창출)에 의해 나타났음.
- 2015-2016년 3.8%의 순매출창출률을 기록하여 반등하였으나, 2017-2018년 3.0%

로 추가 하락하였음.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서는 2017-2018년 순매출창출률이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4.8%를 기록

□ 세부 항목별 순매출창출 구조 비교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매출 규모 변화는 진입 및 퇴출 사업체보다는 계속 사업체의 활동 양상에 더 의존적

- 일반적으로 진입 및 퇴출 사업체 대부분은 계속 사업체보다 소규모, 저매출 구조를 나타냄.

○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사업체의 진입률 및 퇴출률이 낮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 및 소멸이 전체적인 동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13-2014년 기간에서 나타난 음(-)의 순매출창출은 진입 및 퇴출 사업체에 의한 순매출증가율이 2.2%(=7.6-5.4)로 양(+)의 값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체의 매출 소멸 규모(-18.4)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

5.1 산업별 분석

<경상북도의 산업별 매출 동학>								
산업분류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조)			매출 소멸(조)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6.1	6.0	33.1	39.1	8.7	24.3	33.1
	2014	-7.5	8.1	21.3	29.4	5.0	31.9	36.9
	2016	7.8	4.6	26.3	30.9	4.4	18.7	23.1
	2018	4.3	4.9	18.2	23.1	4.4	14.5	18.8
	평균	2.7	5.9	24.7	30.6	5.6	22.4	28.0
건설업 (F)	2012	-0.5	1.2	2.2	3.4	1.0	2.9	3.9
	2014	0.8	2.3	2.1	4.3	1.4	2.1	3.5
	2016	0.1	1.2	3.3	4.5	2.0	2.3	4.4
	2018	-0.3	1.0	2.4	3.4	1.7	2.0	3.7
	평균	0.0	1.4	2.5	3.9	1.5	2.3	3.9
유통서비스 (GHJ)	2012	3.7	4.0	7.3	11.3	3.1	4.5	7.6
	2014	1.7	5.8	6.9	12.6	4.6	6.3	10.9
	2016	-0.3	4.2	5.5	9.7	3.8	6.1	10.0
	2018	1.7	3.3	6.2	9.5	3.3	4.5	7.8
	평균	1.7	4.3	6.5	10.8	3.7	5.4	9.1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0.2	2.7	4.0	6.7	1.9	5.1	7.0
	2014	1.3	1.8	5.3	7.2	2.0	3.8	5.8
	2016	-0.2	1.8	3.7	5.5	1.6	4.1	5.7
	2018	1.3	1.7	3.8	5.5	1.5	2.7	4.2
	평균	0.6	2.0	4.2	6.2	1.8	3.9	5.7
사회서비스 (OO)	2012	0.8	0.2	1.5	1.7	0.1	0.8	0.9
	2014	0.1	0.7	1.4	2.0	0.3	1.7	2.0
	2016	1.9	0.6	2.9	3.5	0.6	1.0	1.6
	2018	1.4	0.3	2.0	2.3	0.2	0.7	0.9
	평균	1.1	0.5	2.0	2.4	0.3	1.1	1.4
개인서비스 (PIRS)	2012	0.8	0.8	1.8	2.7	0.7	1.2	1.9
	2014	1.5	1.4	3.3	4.7	1.0	2.2	3.2
	2016	0.4	1.0	2.8	3.8	1.2	2.2	3.4
	2018	0.2	1.2	2.1	3.3	1.3	1.7	3.0
	평균	0.7	1.1	2.5	3.6	1.1	1.8	2.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광·제조업

- (순매출창출) 평균 2.7조의 순매출이 창출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3-2014년에 7.5조의 매출 순감소가 발생하여 경상북도의 매출 순감소를 유발
- (세부 항목별) 2013-2014년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이 21.3조로 이전기(33.1조)보다 11.8조 감소하고, 계속 사업체의 매출 소멸 규모도 2012년 이전보다 8.6조 증가함. 제조업은 분석 기간 동안 총 매출창출 및 총 매출소멸 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건설업

- (순매출창출) 평균 0.0조 수준의 낮은 순매출창출이 발생하며, 변동폭도 다른 산업보다 작게 나타남.
- (세부 항목별) 2013-2014년 2.3조의 매출이 진입 사업체에 의해 창출되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성장이 제한되는 모습

□ 유통서비스업

- (순매출창출) 연평균 1.7조의 매출이 순창출되었으며, 2015-2016년 -0.3조의 순매출감소가 나타난 시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관된 순매출창출이 나타남.
- (세부 항목별)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진입 및 퇴출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 및 소멸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높음. 총 매출 창출 및 매출 소멸 규모는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에서 축소되는 모습

□ 생산자서비스업

- (순매출창출) 평균인 0.6조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세부 항목별) 매출 창출 측면에서는 진입 및 계속 사업체의 창출 규모가 추세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며, 매출 소멸은 2012년 이전 5.1조에서 2017-2018년 2.7조로 절반가까이 감소

□ 사회서비스업

- (순매출창출) 평균 1.1조의 매출이 순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전보다 이후 기간에서 대체로 양호한 순매출증가가 나타남.
- (세부 항목별)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액 변동 규모가 크게 나타남. 소멸 측면에서는 2013-2014년 이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반면,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은 2015-2016년 2.9조 규모를 달성한 이후 2017-2018년 2.0조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 개인서비스업

- (순매출창출) 2013-2014년 1.5조원의 순매출창출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 하락이 발생하며 2017-2018년에는 2012년(0.8조)보다 낮은 0.2조를 기록
- (세부 항목별)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 규모가 2013-2014년 3.3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7-2018년 2.1조원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인 순매출창출 감소를 주도

5.2 규모별 분석

<경상북도의 사업체 규모별 매출 동학>								
규모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조)			매출 소멸(조)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1.5	1.3	1.3	2.6	0.6	0.5	1.1
	2014	0.6	1.2	1.6	2.8	1.2	1.0	2.2
	2016	0.9	0.9	1.9	2.7	1.0	0.8	1.9
	2018	0.5	0.8	1.4	2.2	0.9	0.7	1.7
	평균	0.9	1.1	1.6	2.6	0.9	0.8	1.7
2-4인	2012	2.7	3.1	4.5	7.7	2.3	2.7	5.0
	2014	1.5	3.8	4.4	8.2	3.1	3.6	6.7
	2016	1.0	2.7	4.4	7.1	2.9	3.2	6.1
	2018	2.2	2.9	4.6	7.5	2.7	2.6	5.3
	평균	1.9	3.1	4.5	7.6	2.8	3.0	5.8
5-9인	2012	2.0	2.7	3.5	6.2	1.6	2.7	4.2
	2014	1.8	3.6	4.6	8.2	2.3	4.0	6.4
	2016	1.0	2.3	4.2	6.5	2.2	3.3	5.5
	2018	2.2	2.3	4.7	7.1	2.2	2.7	4.9
	평균	1.8	2.7	4.3	7.0	2.1	3.2	5.3
10-49인	2012	2.8	3.8	11.0	14.8	4.0	8.0	12.0
	2014	3.0	5.5	10.2	15.7	3.9	8.8	12.7
	2016	1.1	4.4	9.8	14.2	4.3	8.8	13.1
	2018	2.7	3.7	9.5	13.2	3.9	6.6	10.5
	평균	2.4	4.4	10.1	14.5	4.0	8.1	12.1
50-99인	2012	0.2	0.9	3.7	4.6	1.0	3.4	4.3
	2014	1.1	1.9	3.4	5.3	1.0	3.2	4.2
	2016	-1.3	1.2	3.4	4.6	1.8	4.1	5.9
	2018	-0.4	0.7	2.9	3.6	1.0	2.9	4.0
	평균	-0.1	1.2	3.4	4.5	1.2	3.4	4.6
100인 이상	2012	1.4	3.2	26.0	29.1	6.2	21.5	27.7
	2014	-10.2	3.9	16.0	19.9	2.7	27.5	30.2
	2016	7.2	2.0	20.9	22.8	1.4	14.2	15.6
	2018	1.3	1.9	11.7	13.6	1.8	10.5	12.3
	평균	-0.1	2.8	18.7	21.4	3.0	18.4	21.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1인 사업체

- (순매출창출) 평균 0.9조의 매출이 매년 순창출되었으며, 전체 매출순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수준
- (세부 항목별) 1인 사업체는 계속 사업체의 경우에도 매출 성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진입 및 퇴출에 의한 매출 변동이 계속 사업체와 유사함. 순매출창출과 마찬가지로 개별 항목의 시계열적 변화는 뚜렷한 추이가 나타나지 않음.

□ 2-4인 사업체

- (순매출창출) 2013-2014년 및 2015-2016년 기간 2조원 미만의 순매출창출이 나타나며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2017-2018년 2.2조의 매출이 순증가하여 2012년 이전 수준을 회복
- (세부 항목별)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은 4.5조원 규모로 매우 일정한 반면, 나머지 항목의 변동 규모는 점차 하락

□ 5-9인 사업체

- (순매출창출) 2015-2016년 1.0조 규모를 제외하면 평균(1.8조) 수준에서 일정한 순매출창출이 발생
- (세부 항목별) 진입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은 2013-2014년 3.6조원을 제외하면 매우 일정하게 나타남.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변화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계속 사업체의 매출 소멸 규모가 2013-2014년(4.0조) 이후 2017-2018년 2.7조까지 축소되며 순매출창출 규모 증가를 주도

□ 10-49인 사업체

- (순매출창출) 연평균 2.4조의 순매출증가가 나타났으며, 2-4인, 5-9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2015-2016년 기간 동안 부진했던 흐름이 2017-2018년 들어 반등하는 모습
- (세부 항목별) 총 매출창출 및 총 매출소멸 규모는 100인 이상 사업체 집단 다음으로 큰 수준을 나타냄. 계속 사업체의 매출 소멸이 2017-2018년 이전기(8.8조)보다 2.2조 감소한 6.6조로 관측되며 전체 순매출창출 증가를 주도

□ 50-99인 사업체

- (순매출창출) 평균 -0.1조원의 순매출증가가 관측되었으며, 2014년 이후 기간에서 계속 음(-)의 순매출창출이 나타남.
- (세부 항목별) 사업체 규모 확대에 따라 매출 동학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과 소멸이 각각 평균적으로 3.4조를 기록하여 1인 사업체 집단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100인 이상 사업체

- (순매출창출) 2013-2014년 10.2조원의 매출 순감소가 나타났는데, 제조업의 대규모 사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세부 항목별) 제조업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계속 사업체의 매출 동학 역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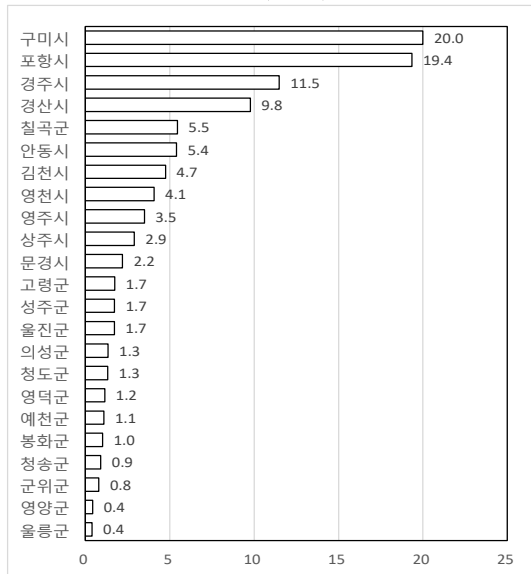
6. 경상북도 세부 지역별 동학 분석

□ 지역별 분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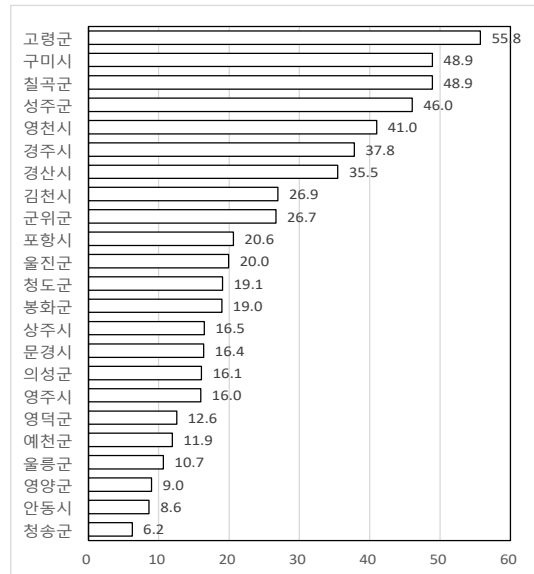
- 경상북도 내 행정 구역은 산업 구조, 거주자 연령 구조 등 시장환경 측면에서 이질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지역 노동 시장 고용 동학도 달라질 수 있음.

<경상북도 내 세부 지역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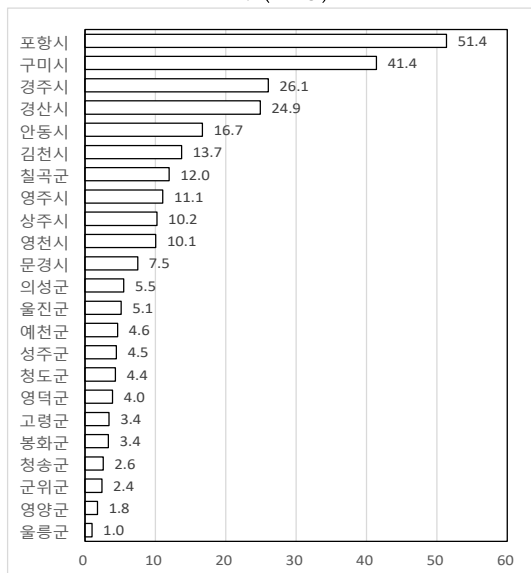
<고용(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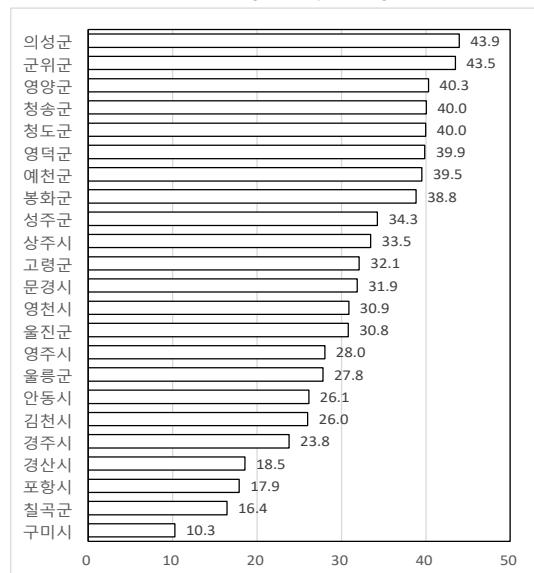
<광·제조업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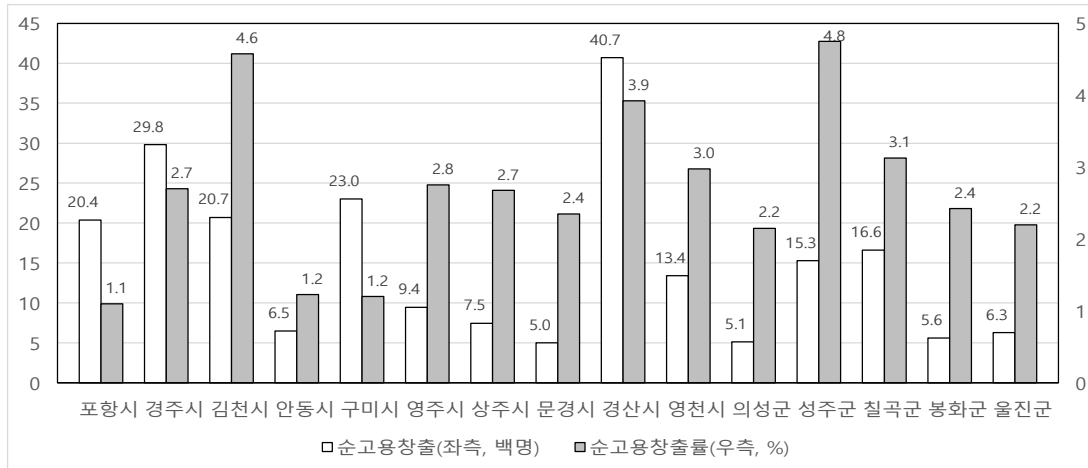
<인구(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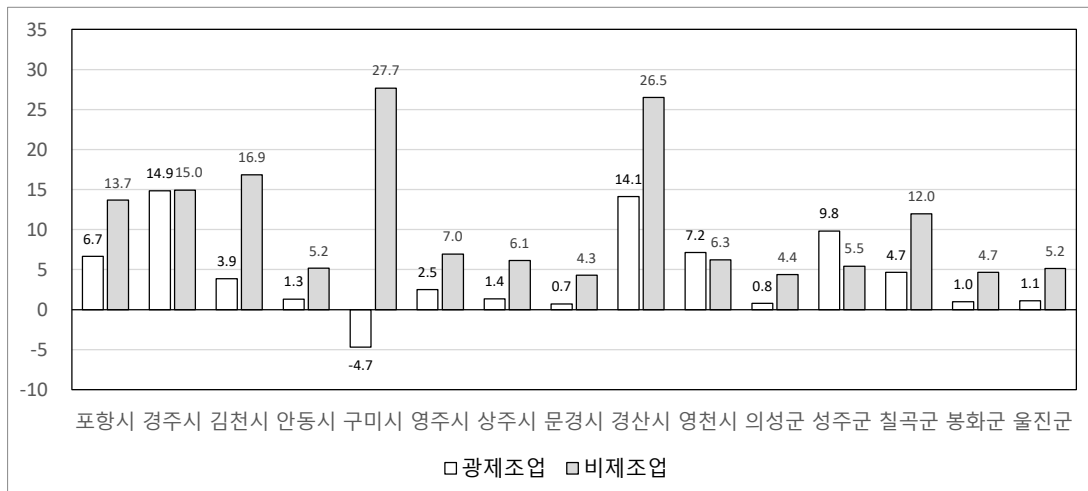
<60세 이상 인구 비중>



<지역별 순고용창출과 순고용창출률>



<지역별 산업별 순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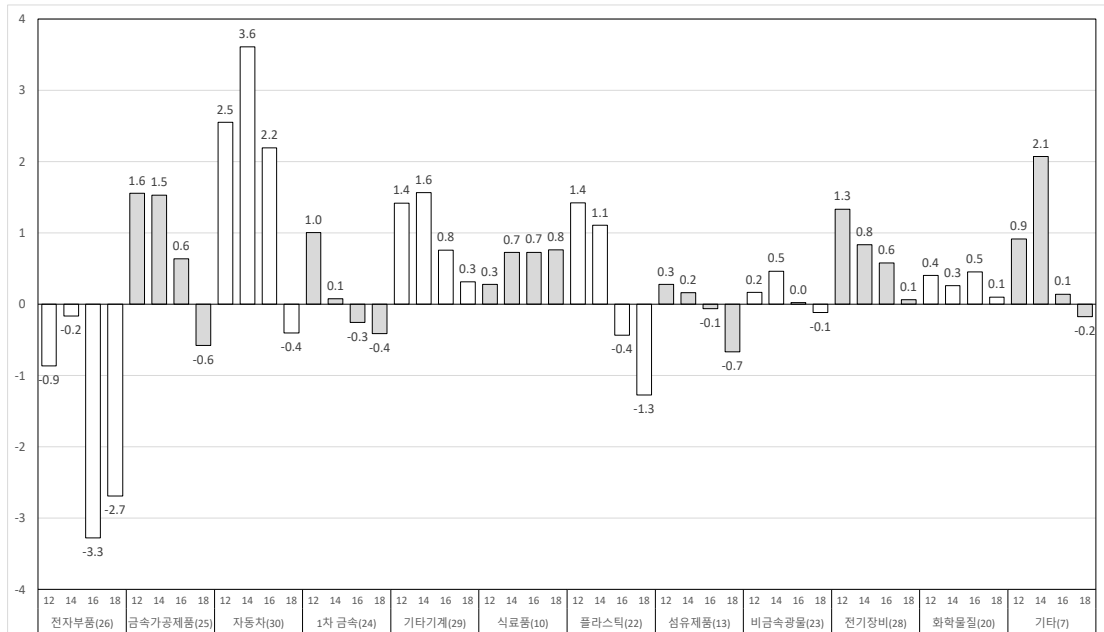
□ 지역별 분석 결과

- (지역별 순고용창출) 순고용창출 규모는 경산시에서 연평균 40.7백명으로 가장 높게 측정됨. 및 인구가 가장 많은 구미시와 포항시에서는 경산시의 절반 수준인 23.0백명 및 20.4백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됨.
-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 규모와 순고용창출 규모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도시의 인구 구조나 산업 구성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
- 영주시, 상주시, 안동시 및 문경시의 경우 일부 군부보다 더 낮은 순고용창출 규모를 나타냄.

- (지역별 산업별 순고용창출) 대체로 비제조업에 의한 순고용창출이 대부분
 - 경주시, 영천시 및 성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순고용창출이 비제조업 부문을 통해 나타남.
 - 광제조업을 통한 순고용창출은 산업별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창출은 충분한 수준의 비제조업 고용 창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도시인 구미시에서는 부진한 제조업 고용 순증가를 대신하여 비제조업의 고용 순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남.

7. 제조업 세부 분석

<세부 산업별 순고용창출 규모 변동>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그림>은 산업별 순고용증가 추이를 산업별로 나타냄. 산업은 분석 기간 중 평균 고용규모 순으로 좌측부터 정렬하였으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산업분류(9차) 기준 중분류 산업코드를 나타냄.

○ 제조업의 고용 성장률 둔화는 거의 모든 세부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2017-2018년 기간 동안 점차 심화됨.

- 식료품(10, 좌측 여섯번째)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순고용창출이 2013-2014년 기간 이후 감소
- 전자부품제조업(26, 좌측 첫번째)은 2013-2014년 기간 이후 나타난 큰 폭의 고용 순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고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제조업(30, 좌측 세번째)도 2017-2018년 순고용창출이 0.4천명을 기록하여 마이너스로 전환

8. 기업의 해외 진출과 복귀

□ 개요

-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상 및 고용 동향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자료를 기업등록부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연계
 - 기업활동조사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체 보유 여부 및 해외 자회사(또는 관계회사) 보유 여부를 매년 조사
 - * 자회사(또는 관계회사) 보유 여부는 생산 공정 및 영업 활동 다국적화와 무관한 단순 지분 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을 포함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외 사업체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 국내 사업체를 모두 철수하고 완전히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추적이 불가능

<경북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및 매출>

기업 구분	연도	사업체수(개)	기업수(개)	고용(천명)	매출(조)
진출	2012	235	22	38.8	35.6
	2014	165	21	30.1	19.3
	2016	213	23	45.4	34.9
	2018	208	23	39.8	35.0
	평균	205	22	38.5	31.2
내수 (50인 이상) + (자본금 3억↑)	2012	1,833	481	152.6	71.8
	2014	2,073	475	177.7	111.9
	2016	2,077	466	171.2	94.2
	2018	2,194	448	186.6	100.5
	평균	2,044	467	172.0	94.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경북지역에서 해외에 1개소 이상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 수는 평균 약 22개이며, 분석기간 동안 주목할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음.
 - 해외 진출 기업이 보유한 사업체 수는 2013-2014년 기간 동안 165개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기간에는 다시 200개 이상의 값을 꾸준히 나타냄.

- 내수 기업이 보유한 사업체수는 진출기업보다 약 10배, 기업 수는 20배 가량 많으며, 따라서 진출 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많은 수의 사업체를 기업 내부에 보유

<해외 진출 기업의 비중 (2011-2018년 평균, %) >

지역	기준			
	사업체수	기업수	고용	매출
경상북도	9.1	4.5	18.3	24.6
경상북도 이외	20.4	6.1	27.6	45.1

- 사업체수, 기업수, 고용 및 매출 측면 모두에서 경상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사업체가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 국내에 생산 및 영업 기반이 존재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바람직

□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동향

- 기업활동조사상의 기업을 해외 진출 상태인 기업,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 및 나머지 내수 기업의 3가지 형태로 분류
 - * 진출 후 복귀한 기업은 복귀 시점 이후 기간에서도 '내수' 기업이 아닌 '진출 후 복귀' 기업으로 분류

<경상북도의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동향>

기업 구분	연도	순고용창출(천명)	고용창출(천명)	고용소멸(천명)	사업체수(개)
진출	2012	10	44	34	235
	2014	22	39	17	165
	2016	32	75	43	213
	2018	-1	32	33	208
	평균	16	48	32	205
진출 후 복귀	2012	11	18	7	121
	2014	-2	29	31	218
	2016	11	46	35	209
	2018	7	27	20	292
	평균	7	30	23	210
내수 (50인 이상) + (자본금 3억 ↑)	2012	63	211	148	1,712
	2014	34	183	149	1,855
	2016	25	174	149	1,868
	2018	-13	141	154	1,922
	평균	27	177	150	1,83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순고용창출) 기업의 해외 진출 상태별로 일부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
 - (해외 진출 기업) 2015-2016년까지는 지속적인 고용 순증가가 나타났으나 2017-2018년에 급격한 순고용창출 규모 축소가 관측됨.
 - (해외 진출 후 복귀 기업) 2013-2014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순고용창출 양상
 - (내수 기업)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순고용창출 규모 축소가 나타났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2017-2018년 기간에 고용의 순감소가 발생
- 해외 진출 기업의 순고용 창출은 경상북도 소재 기업활동조사 관측 대상 기업의 전체 순고용창출 중 약 47%(=16/34)를 차지
 - 고용 규모 측면에서 진출 기업 비중이 약 18.6%였던 점을 고려하면, 순고용창출 측면에서 해외 진출 사업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 내수 기업에서 고용 창출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데 비해, 해외 진출 기업 및 복귀 기업의 고용 창출 규모 감소는 제한적
- 완전한 해외 이전이 아닌, 일부 사업체의 해외 진출이 경상북도 내 고용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외 사업체 진출이 생산 과정을 보다 효율화하고 내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오히려 긍정적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해외 진출 기업에 의한 순고용창출 규모는 평균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약 7% 수준

9. 사업주의 연령과 고용 동향

□ 사업주의 연령 정보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등록부는 2012년 이후에 대해 사업주의 생년정보를 제 공함.

-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연령 정보가 제 공되지 않음.

○ 고용 비중은 50세 이상(61.9%), 50세 미만(31.0%), 법인 등 기타(7.1%) 순으로 높으며, 50세 이상(59.3%), 50세 미만(33.1%), 법인 등 기타(7.6%)인 경북 이외 지 역과 대체로 유사

□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경상북도의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연령	연도	순고용	고용 창출(천명)			고용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50세 미만	2014	28.0	70.1	39.2	109.2	41.3	40.0	81.3
	2016	22.2	57.7	38.3	96.0	40.2	33.6	73.8
	2018	16.1	51.2	30.2	81.4	37.0	28.2	65.3
	평균	22.1	59.6	35.9	95.5	39.5	33.9	73.5
50세 이상	2014	8.9	56.2	50.5	106.7	42.3	55.5	97.8
	2016	6.1	48.3	60.2	108.5	44.8	57.6	102.4
	2018	-5.2	45.9	54.8	100.7	48.6	57.4	106.0
	평균	3.2	50.1	55.2	105.3	45.2	56.8	102.1
법인 등	2014	-4.6	9.0	6.4	15.4	12.7	7.3	20.0
	2016	1.3	9.2	7.2	16.4	9.0	6.1	15.0
	2018	3.4	10.9	6.5	17.4	7.3	6.7	14.0
	평균	0.1	9.7	6.7	16.4	9.7	6.7	16.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 50세 미만 사업체

- (순고용창출) 평균 22.1천명의 고용이 순증가하여 고용 순증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6천명씩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
- (세부 항목별) 고용 창출 및 소멸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진입 사업체를 통한 고용 창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감소

□ 50세 이상 사업체

- (순고용창출) 2016년까지 6천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 되었으나, 2017-2018년 기간에는 5.2천명의 고용이 순감소
- (세부 항목별) 50세 미만 사업체와 달리 진입 및 퇴출 사업체보다는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조정 규모가 더 크게 관측됨. 진입 사업체 고용 규모 축소와 전반적인 고용 소멸 규모 확대가 2017-2018년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남.

□ 법인 등 기타 사업체

- (순고용창출) 2013-2014년 가장 부진한 -4.6천명의 순고용창출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세부 항목별) 퇴출에 의한 고용 소멸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진입 사업체의 고용 규모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고용 동향 양상을 나타냄.

10. 사업체의 지역간 이전

□ 사업체의 지역 이전 식별

-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사업체식별코드는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재지가 달라지는 관측치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시도별 산업대분류 수준에서 개별 지역 시장을 확정하였으며, 확장된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동일 사업체식별코드 내 이동은 기존 사업체의 퇴출과 신규 사업체의 진입으로 처리하였음.

<경상북도 소재 사업체의 전입과 전출 지역 분포>

구분	지역	전입(a)	전출(b)	합계(=a+b)	순전입(=a-b)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	40	41	81	-1
	부산	31	29	60	2
	대구	869	366	1235	503
	인천	13	4	17	9
	광주	-	6	-	-
	대전	8	10	18	-2
	울산	114	37	151	77
	세종	-	6	-	-
	합계	1,079	499	1574	576
기타 지자체	경기	74	75	149	-1
	강원	11	22	33	-11
	충북	20	26	46	-6
	충남	14	28	42	-14
	전북	6	16	22	-10
	전남	7	17	24	-10
	경남	56	46	102	10
	제주	-	7	-	-
	합계	190	237	425	-49
총 합계		1,269	736	1,999	527

주) 결측치(-)는 해당 항목의 관측치 수가 3개 미만으로 자료 반출이 어려운 경우임.

- 경상북도 사업체 중 타 시도로 진출한 사업체수는 2010-2017년 기간 동안 총 1,269개이며, 타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전입한 사업체 수는 2011-2018년 기간 동안 736개임.
- 대구시(504) 및 울산시(77)로부터의 순전입이 가장 활발
- 특별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순전입이 음(-)의 값

11. 결론

□ 분석 결과의 요약

- 경상북도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2.3%로 2.9%를 기록한 경상북도 이외 지역보다 약 0.6%p 낮은 수준이며, 고용 증가율의 변동 추이는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와 유사
- 경상북도의 고용 증가율은 2013-2014년 연평균 3.3%로 가장 높았으나, 2017-2018년 1.3%까지 하락함.
 - 2017-2018년에 나타난 순고용창출률 감소는 특히 50인 이상 사업체, 매출 4분위 사업체,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짐. 이에 따라 고용순창출 규모 축소는 주로 낮은 진입 사업체의 고용 창출 규모와 계속 사업체의 대규모 고용 소멸을 통해 유발됨.
 - 고용 동학의 역동성은 경상북도 이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둔화 양상
- 인구 및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해 고용 창출 구조의 지역간 이질성이 존재함.
- 제조업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고용 비중이 높았던 산업에서 고용 순감소가 선행적으로 관측되었으며, 2017-2018년 기간에 이와 같은 양상이 제조업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

□ 정책적 제언

- (광·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진입 장려 정책은 순고용창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산업과 보완성이 강한 중소기업의 신규 유치, 기존 사업체의 현대화 및 클러스터화를 통한 중규모 사업체로의 성장 등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 광·제조업의 고용 침체는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계속 사업체의 고용 소멸 규모 확대와 더불어, 퇴출을 통한 고용 소멸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와 같은 제조업 고용 축소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관련이 깊음을 의미

- (서비스업) 중소기업 행정 구역의 지역 서비스업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
- 대도시 지역 및 인접 위성 도시의 경우, 높은 제조업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 고용을 구축하지 않으며,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서비스업 양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음.
- 중소기업 행정 구역은 높은 고령화 수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 순증가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축소 중임.
-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사업주와 수요자의 고령화 정도가 동시에 심해짐에 따라 민간 지역 서비스 시장이 축소도 가속화될 것
- 도시 간 연결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젊은 인구를 군(君)부 근처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1. 서론

지역 내의 종사자 기준 고용 창출과 소멸은 상당 부분 사업체 수준의 진입과 퇴출에 의하여 설명된다. Haltiwanger et al. (2013), Cho et al.(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 재배치의 상당 부분이 계속사업체보다는 진입과 퇴출을 통하여 나타나며, 일자리 순창출 또한 진입사업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고용 동학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 특히 강하게 관측되지만, Cho et al. (201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산업 고유 특성보다는 사업체 규모에 더욱 의존적이다. 제조업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 경우 활발한 진입과 퇴출이 나타나며, 영세 및 대규모 사업체가 많고 중간 규모 사업체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동학적 역동성 차이가 크지 않다.

국내 경제는 2012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용 동학 역동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및 수출 경기는 2014년 이후 환율을 비롯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사양화가 시작되며, 기업체(사업체)의 동학적 역동성이 저하되었다.

이처럼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경상북도의 사업체 고용 동학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경상북도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도시가 많고, 대도시와의 연결성이 낮은 고령 인구 중심의 지방 소도시가 다수 존재한다. 즉 경상북도는 산업 및 인구 구조 측면 모두에서 국내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높음과 동시에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대한 연구는 지역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역 발전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경상북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매출 수준별 고용 및 사업체 동학 분석, 지역 노동 시장 분석, 제조업 세부 산업별 분석 등을 통해 경상북도의 고용 창출 및 산업 구조 변화와 성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변수 구축

2.1 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등록부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하여 구축한 사업체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포괄 범위가 다른 두 자료를 결합하기 때문에 두 자료 모두에서 관측되는 사업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기업등록부자료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업체 자료인 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 주로 실제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운수업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등록부의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경상북도 지역의 고용 동향 구조 분석이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본 자료(master data)로 사용한다.¹⁾ 여기에 기업등록부자료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매출액 정보, 사업체소재지, 산업코드 등의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추가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추가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변수 구축

가.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모든 사업체는 그 동학적 특성에 따라 진입(entering establishment), 퇴출(exiting establishment) 및 계속(continuing establishment) 중 하나로 규정된다.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Davis et al.(1998), Foster et al.(2006) 및 이후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따른다.

<표 1>에서와 같이 계속 사업체는 현재 시점과 이전 시점 모두에서 사업체식별코드를 포함한 사업체 정보가 관측되는 사업체로 정의된다. 현재 시점 기준 퇴출 사업체는 이전 관측 시점에만 관측치가 존재하고 현재 시점에는 자료상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식별된다. 퇴출 사업체는 이전 관측 시점까지는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 현재 시점 사이에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업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사업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입 사

1) 기업등록부에서 사업체식별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매출액 등 사업체 정보가 결측된 사업체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전국사업체조사만을 사용한 분석 결과와 추정값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업체는 이전 관측 시점 이후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는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표 1> 진입, 퇴출, 계속 사업체의 정의

구분	사업체 정보 관측 여부	
	이전 관측 시점(t-1)	현재 관측 시점(t)
계속 사업체	○	○
퇴출 사업체	○	×
진입 사업체	×	○

한편,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등록부자료의 경우 사업체식별코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측 시점에 따라 사업체의 위치나 소속 산업코드가 다른 관측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이나 사업체의 이동을 기존 사업체의 퇴출과 신규 사업체의 진입으로 볼 것인지는 지역 시장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및 대분류 산업 수준에서 시장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서비스업 및 지역 연구에서는 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광·제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대분류 산업 수준에서 시장을 설정한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근거리 사업체 이동이나 세세분류 산업 수준에서의 판매 품목 변화는 계속 사업체의 영업방식 변화로 본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체식별코드 내에서 '경주→포항'과 같은 시(市)간 이동이나, '소매업→광·제조업'과 같은 대분류 산업 이동은 기존 사업체의 퇴출과 신규 사업체의 진입으로 처리한다.

나. 일자리 및 매출의 창출과 소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업체의 노동 투입 및 매출액의 동학적 변화에 대한 정의는 Davis et al.(1998) 및 Foster et al.(2006)의 방식을 따른다. 시장 전체의 노동 투입 및 매출액 변화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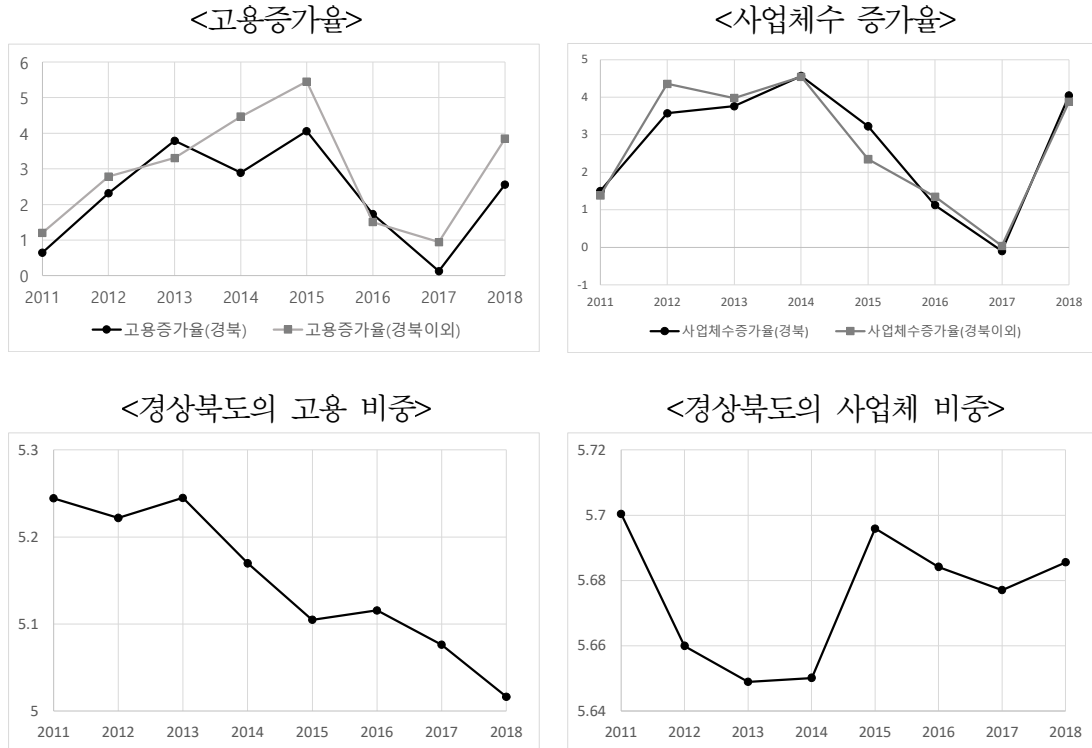
$$\Delta X_t = \underbrace{\left(\sum_{e \in con+} \Delta X_{e,t} + \sum_{e \in en} \Delta X_{e,t} \right)}_{\text{expansion}} - \underbrace{\left(\sum_{e \in con-} |\Delta X_{e,t}| + \sum_{e \in ex} |\Delta X_{e,t}| \right)}_{\text{contraction}}$$

이 때, $X_{e,t}$ 는 사업체 e의 t기 노동 투입 또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확장(expansion)항은 노동투입 또는 매출액이 증가한 계속 사업체(con+)와 진입사업체(en)의 X변화량 총합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축(contraction)은 X 가 감소한 계속 사업체($con-$)와 퇴출 사업체(ex)에 해당하는 관측치에 대한 X 변화량 총합이다. 이처럼, 특정 기간 동안 나타난 시장의 총 X 변화는 크게 네 가지 동학적 특성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또한, 위 식의 양변을 X_{t-1} 로 나누면 X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3. 경상북도 지역 고용 및 사업체의 특성

<그림 1> 경상북도의 고용과 사업체 수



<표 2> 고용증가율 및 사업체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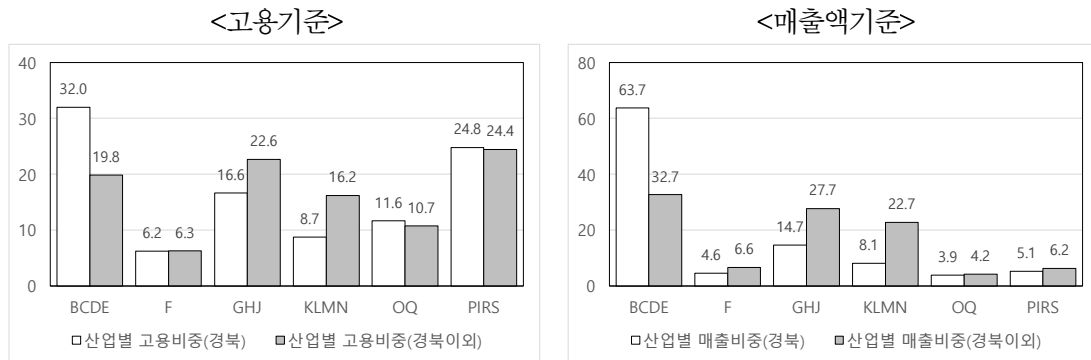
연도	고용		사업체수	
	경상북도	경북제외	경상북도	경북제외
2011	924.5	16703.4	183.5	3035.5
2012	945.9	17168.5	190.1	3167.8
2013	981.8	17736.4	197.2	3293.7
2014	1010.2	18529.9	206.2	3443.2
2015	1051.2	19541.1	212.8	3523.9
2016	1069.4	19834.9	215.2	3571.4
2017	1070.7	20022.0	215.0	3572.6
2018	1098.1	20792.6	223.7	3711.1
평균	1019.0	18791.1	205.5	3414.9

<그림 1> 및 <표 2>에서와 같이 경상북도의 고용 증가율과 사업체수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북도 이외 지역의 평균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고용증가율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이외 지

역의 평균치를 소폭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사업체수 증가율은 이외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다.

국내 고용 중 경상북도 고용의 비중은 분석 기간 동안 약 5% 초반대의 값을 나타낸다. 2011년 5.24%에서 2018년 5%로 그 크기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사업체 수 비중의 경우 2012-2014년에 걸쳐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2015년 이후 2011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이 대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거나, 반대로 대규모 사업체의 시장 퇴출이나 고용 조정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 경상북도의 산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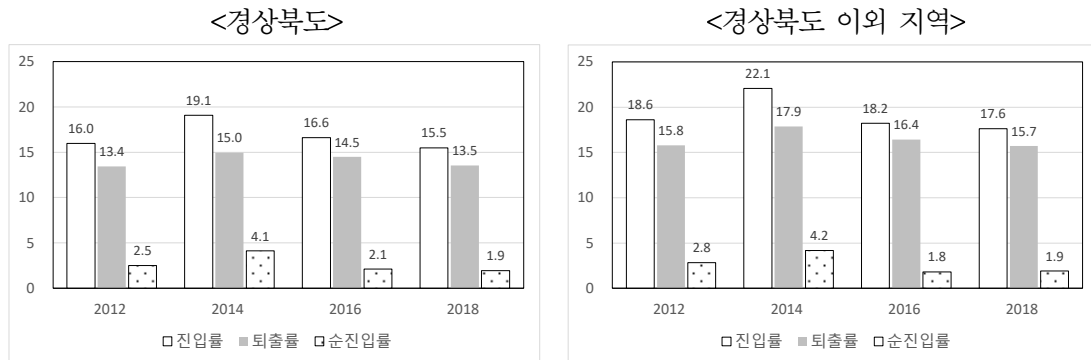
주) 광제조업(BCDE), 건설업(F), 유통서비스업(GHJ), 생산자서비스업(KLMN), 사회서비스업(OO), 개인서비스업(PIRS)

다음으로 <그림 2>에서는 경상북도의 산업 구성상의 특징을 정리한다. 각 산업군의 고용 및 매출액 비중을 나머지 지역과 비교해보면,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제조업 비중과 대체로 낮은 유통서비스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 구성의 측면에서는 2014년 이후 국내 광·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 침체가 경북 지역의 고용 창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높은 광·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산업 경쟁력을 의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무역환경의 변화와 같은 해외 시장 요인 상대적으로 민감한 광·제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과 그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문제 역시 전반적으로 광·제조업의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4. 경상북도의 고용 동향

본 장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사업체의 진입/퇴출률 및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 창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림 3>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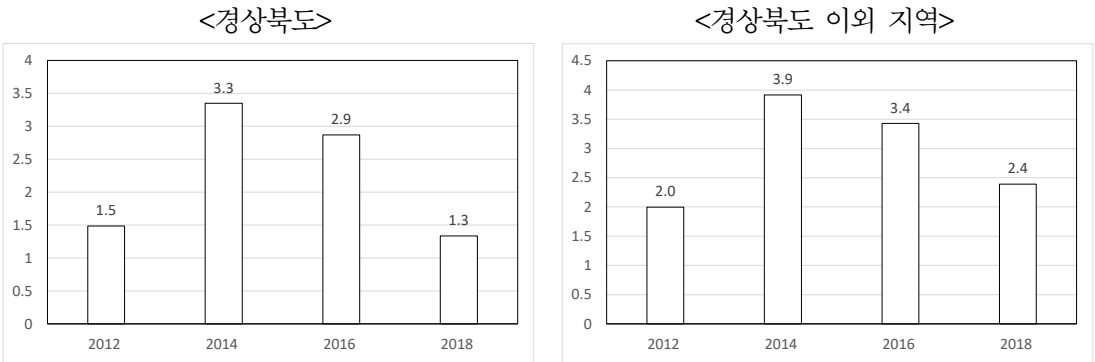
지역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경북	2012	16.0	13.4	2.5
	2014	19.1	15.0	4.1
	2016	16.6	14.5	2.1
	2018	15.5	13.5	1.9
	평균	16.8	14.1	2.7
경북이외	2012	18.6	15.8	2.8
	2014	22.1	17.9	4.2
	2016	18.2	16.4	1.8
	2018	17.6	15.7	1.9
	평균	19.1	16.5	2.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3> 및 <표 3>을 보면, 경상북도의 진입률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약 16.8%, 퇴출률은 약 14.1%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3-2014년 기간에 20%에 가까운 가장 높은 진입률이 관측되었으며, 이후 기간에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전체적인 진입률 및 퇴출률의 크기는 경북 지역이 나머지 지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북 이외 지역의 진입률은 약 19% 수준이며, 퇴출률도 16% 수준으로 경북지역보다 높다. 즉, 진입률과 퇴출률의 차이로 계산되는 순진입률의 경우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자원 재분배 과정의 역동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림 4> 사업체의 순일자리 창출률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 사업체의 순일자리 창출률과 순일자리 창출

지역	연도	순일자리창출률(%)	순일자리창출(천명)
경북	2012	1.5	13.7
	2014	3.3	32.3
	2016	2.9	29.6
	2018	1.3	14.3
	평균	2.3	22.5
경북이외	2012	2.0	331.6
	2014	3.9	682.6
	2016	3.4	652.9
	2018	2.4	476.1
	평균	2.9	535.8
경북 비중	평균	-	4.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4> 및 <표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순고용창출률은 약 2.3% 수준으로 2.9%를 기록한 나머지 지역에 비해 소폭 낮다. 2014년 이후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양상은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매 시점에서 경상북도의 순고용창출률이 나머지 지역 관측값

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2017-2018년 기간의 경우, 순고용창출률이 1.3%까지 하락하여 2011-2012년
의 1.5%보다소폭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북 이외 지역에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고용
창출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8년에 2012년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표 5>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지역	연도	일자리 창출(천명)			일자리 소멸(천명)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경북	2012	103.4	88.3	191.7	83.1	94.9	178.0
	2014	135.3	96.1	231.4	96.3	102.8	199.1
	2016	115.2	105.7	220.9	94.0	97.3	191.3
	2018	108.0	91.5	199.5	92.9	92.3	185.2
	평균	115.5	95.4	210.9	91.6	96.8	188.4
경북이외	2012	2,309.5	1,787.1	4,096.6	1,931.4	1,833.5	3,764.9
	2014	2,871.4	1,878.1	4,749.5	2,163.7	1,903.2	4,066.9
	2016	2,423.3	2,184.8	4,608.1	2,117.2	1,838.0	3,955.1
	2018	2,429.8	1,879.2	4,309.1	2,086.3	1,746.7	3,833.0
	평균	2,508.5	1,932.3	4,440.8	2,074.7	1,830.4	3,905.0
경북 비중	평균	4.6	4.9	4.7	4.4	5.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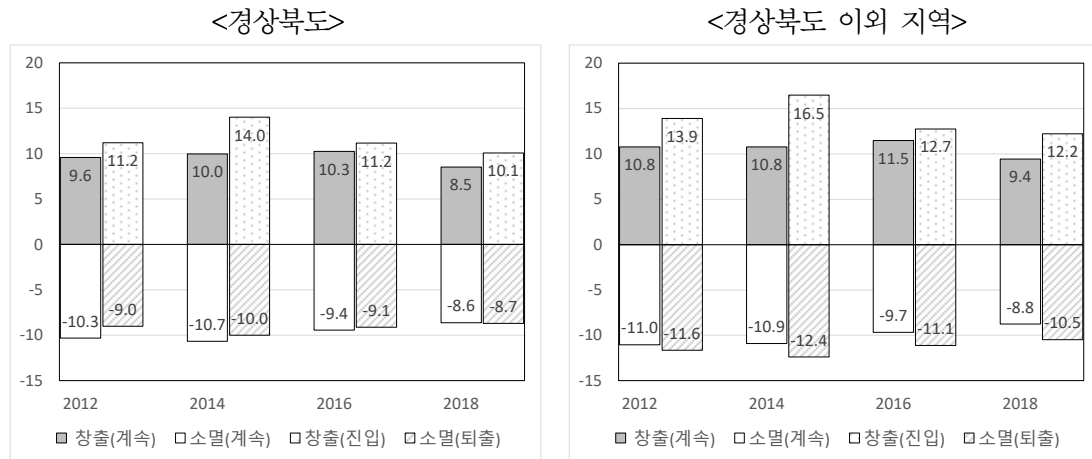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지역	연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경북	2012	11.2	9.6	20.8	9.0	10.3	19.3
	2014	14.0	10.0	24.0	10.0	10.7	20.7
	2016	11.2	10.3	21.4	9.1	9.4	18.6
	2018	10.1	8.5	18.6	8.7	8.6	17.3
	평균	11.6	9.6	21.2	9.2	9.8	19.0
경북이외	2012	13.9	10.8	24.7	11.6	11.0	22.7
	2014	16.5	10.8	27.2	12.4	10.9	23.3
	2016	12.7	11.5	24.2	11.1	9.7	20.8
	2018	12.2	9.4	21.6	10.5	8.8	19.2
	평균	13.8	10.6	24.4	11.4	10.1	21.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5> 사업체 동학 특성별 고용 창출률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와 <표 6>은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 창출 구조 분석 결과이다. <표 5>는 고용 창출 구조를 규모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며, <표 6>은 <표 5>의 창출과 소멸 규모 변수를 이전 기 고용 규모로 표준화하여 증가(감소)율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5>는 <표 6>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 정리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경상북도와 나머지 지역 간 패턴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지역에서 계속 사업체보다는 진입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창출률은 경북지역이 나머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반면 일자리 소멸과 관련된 추정치를 살펴보면 경북지역은 나머지 지역보다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경북 지역의 높은 광·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용 동학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광·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서비스업 사업체에 비해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조정의 상당 부분이 계속 사업체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앞서 고용 창출률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현상도 이와 같은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

4.1 산업별 분석

<표 7>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

산업분류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광·제조업 (BCDE)	2012	15.0	9.8	5.1
	2014	20.6	12.1	8.5
	2016	15.5	11.8	3.7
	2018	14.7	10.7	4.0
	평균	16.5	11.1	5.3
건설업 (F)	2012	21.4	14.6	6.8
	2014	28.0	17.3	10.6
	2016	19.5	16.1	3.4
	2018	16.6	13.9	2.7
	평균	21.4	15.5	5.9
유통서비스 (GHJ)	2012	15.5	13.0	2.6
	2014	19.0	14.2	4.8
	2016	16.0	14.4	1.6
	2018	13.8	12.5	1.3
	평균	16.1	13.5	2.6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19.1	13.5	5.6
	2014	21.3	14.3	7.0
	2016	20.7	15.0	5.7
	2018	18.9	16.0	2.9
	평균	20.0	14.7	5.3
사회서비스 (OQ)	2012	11.1	5.8	5.3
	2014	10.0	7.2	2.8
	2016	10.0	6.9	3.1
	2018	8.3	5.6	2.7
	평균	9.9	6.4	3.5
개인서비스 (PIRS)	2012	16.1	15.3	0.8
	2014	18.4	17.0	1.4
	2016	17.2	15.9	1.3
	2018	17.1	15.7	1.4
	평균	17.2	16.0	1.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먼저 광·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 16.5%의 진입률과 약 11.1% 수준의 퇴출률을 기록하

였으며, 순진입률은 평균 5.3% 수준이다. 분석기간 동안 진입률이 14.7%에서 20.6%의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관측된 반면, 퇴출률은 9.8%에서 12.1%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1.4%, 15.5%, 5.9%의 진입, 퇴출 및 순진입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서비스업에서 관측된 순진입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도 광·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진입률의 퍼짐정도가 퇴출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도 높은 진입/퇴출률, 순진입률이 나타나고 있다. 진입률은 평균 16.1%로 광·제조업과 매우 유사하지만 퇴출률이 평균적으로 약 2%p이상 높기 때문에 순진입률도 광·제조업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다. 비시장성이 강한 사회 서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업의 기업 동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모든 산업에서 2013-2014년 기간 이후 전반적인 순진입률 감소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북이외 지역에서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표 8>를 통해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 구조를 산업별로 살펴본다. 이전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고용은 광·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실제로 2011-2018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6.4천명의 고용이 광·제조업에서 창출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고용이 창출된 산업은 사회서비스 부문(5.9천명)인데, 이전의 분석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낸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3.3천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4번째로 높은 순일자리창출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광·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고용 비중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창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광·제조업에서도 2014년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12천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던 것과 달리, 2016년 이후 기간에서는 약 0.8천명의 순고용창출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산업의 고용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순고용창출률 감소는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모두 동일하게 관측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는 꾸준한 순일자리창출 증가가 관측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천명)			일자리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1.1	26.6	29.3	55.9	20.8	24.1	44.9
	2014	12.9	37.2	27.2	64.4	22.7	28.8	51.5
	2016	2.9	24.9	27.2	52.1	20.7	28.6	49.3
	2018	-1.3	25.0	23.4	48.4	20.9	28.8	49.7
	평균	6.4	28.4	26.8	55.2	21.3	27.6	48.9
건설업 (F)	2012	-5.8	8.2	8.8	17.0	7.7	15.1	22.8
	2014	1.1	12.0	9.5	21.4	7.4	12.9	20.3
	2016	6.7	8.9	15.3	24.2	7.4	10.0	17.5
	2018	2.6	7.0	11.1	18.1	6.9	8.6	15.5
	평균	1.2	9.0	11.2	20.2	7.4	11.7	19.0
유통서비스 (GHI)	2012	1.6	21.5	13.0	34.5	17.1	15.8	32.9
	2014	6.0	28.1	15.7	43.8	20.6	17.2	37.8
	2016	4.7	24.7	17.6	42.3	21.2	16.5	37.6
	2018	1.8	21.7	14.3	36.0	18.7	15.5	34.2
	평균	3.5	24.0	15.2	39.2	19.4	16.3	35.6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2.4	12.0	8.5	20.5	9.0	9.1	18.1
	2014	2.4	13.4	9.5	22.9	10.0	10.5	20.5
	2016	4.1	13.6	11.3	24.9	10.9	9.9	20.8
	2018	0.3	11.4	9.1	20.5	10.2	10.0	20.2
	평균	2.3	12.6	9.6	22.2	10.0	9.9	19.9
사회서비스 (OO)	2012	1.8	5.4	8.6	14.0	3.1	9.1	12.2
	2014	4.0	7.6	9.9	17.6	5.1	8.5	13.6
	2016	7.3	9.2	10.5	19.7	5.0	7.4	12.4
	2018	10.4	9.3	12.8	22.1	4.4	7.3	11.7
	평균	5.9	7.9	10.5	18.4	4.4	8.1	12.5
개인서비스 (PIRS)	2012	2.7	29.7	20.1	49.8	25.6	21.6	47.1
	2014	5.8	37.0	24.2	61.3	30.6	24.9	55.5
	2016	3.9	33.9	23.8	57.7	28.9	24.8	53.7
	2018	0.6	33.7	20.8	54.5	31.8	22.2	53.9
	평균	3.3	33.6	22.2	55.8	29.2	23.4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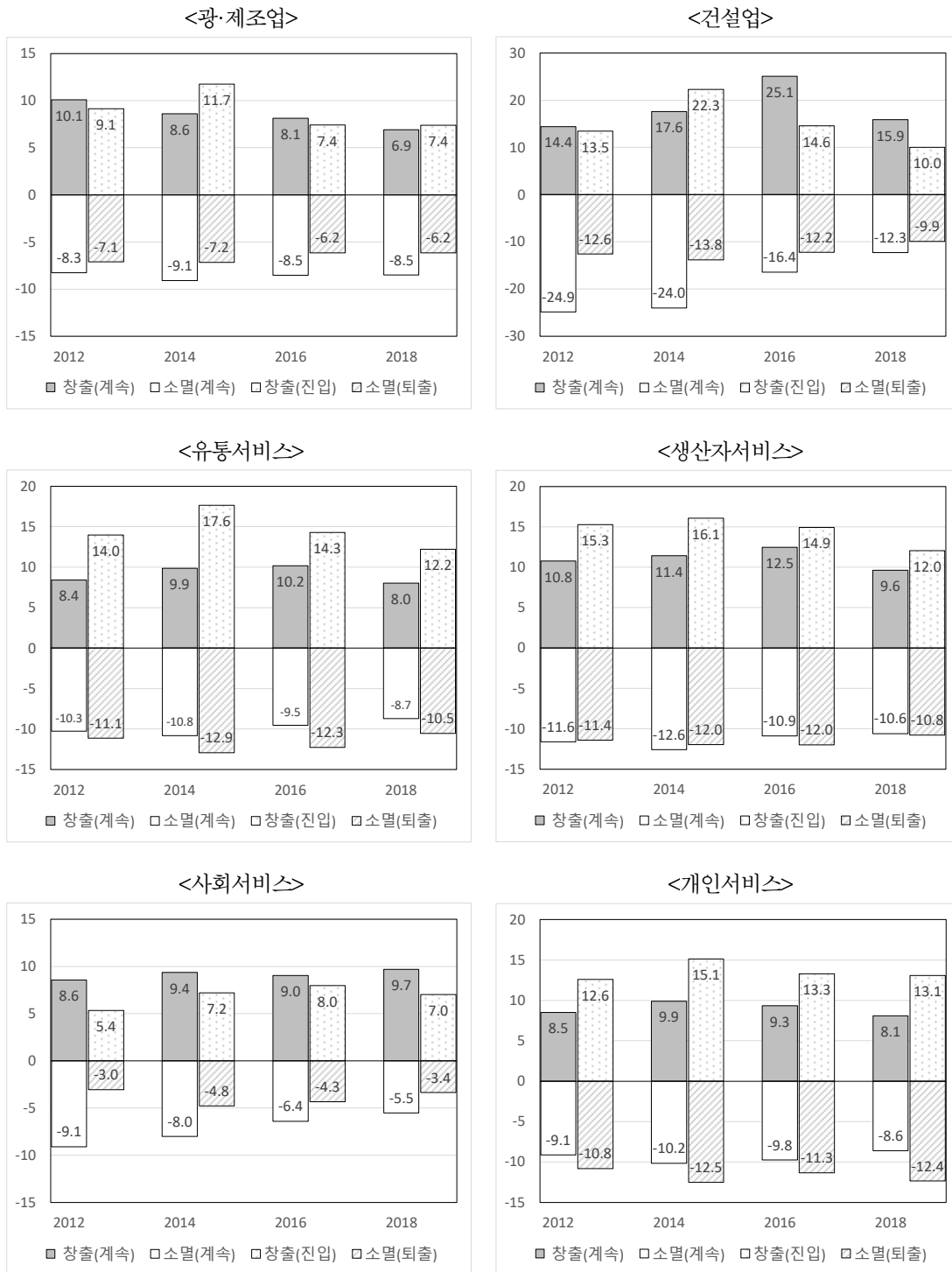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9> 산업별 일자리 창출률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창출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3.8	9.1	10.1	19.2	7.1	8.3	15.4
	2014	4.1	11.7	8.6	20.3	7.2	9.1	16.3
	2016	0.9	7.4	8.1	15.5	6.2	8.5	14.7
	2018	-0.4	7.4	6.9	14.3	6.2	8.5	14.7
	평균	2.1	8.9	8.4	17.3	6.7	8.6	15.3
건설업 (F)	2012	-9.6	13.5	14.4	27.9	12.6	24.9	37.5
	2014	2.1	22.3	17.6	39.9	13.8	24.0	37.8
	2016	11.0	14.6	25.1	39.7	12.2	16.4	28.6
	2018	3.7	10.0	15.9	25.9	9.9	12.3	22.2
	평균	1.8	15.1	18.3	33.4	12.1	19.4	31.5
유통서비스 (GHJ)	2012	1.0	14.0	8.4	22.4	11.1	10.3	21.4
	2014	3.8	17.6	9.9	27.5	12.9	10.8	23.7
	2016	2.7	14.3	10.2	24.5	12.3	9.5	21.8
	2018	1.0	12.2	8.0	20.2	10.5	8.7	19.2
	평균	2.1	14.5	9.1	23.7	11.7	9.8	21.5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3.0	15.3	10.8	26.0	11.4	11.6	23.0
	2014	2.9	16.1	11.4	27.5	12.0	12.6	24.6
	2016	4.6	14.9	12.5	27.4	12.0	10.9	22.9
	2018	0.3	12.0	9.6	21.7	10.8	10.6	21.4
	평균	2.7	14.6	11.1	25.7	11.6	11.4	23.0
사회서비스 (OQ)	2012	1.8	5.4	8.6	13.9	3.0	9.1	12.1
	2014	3.8	7.2	9.4	16.6	4.8	8.0	12.8
	2016	6.3	8.0	9.0	17.0	4.3	6.4	10.7
	2018	7.9	7.0	9.7	16.7	3.4	5.5	8.9
	평균	5.0	6.9	9.2	16.1	3.9	7.3	11.1
개인서비스 (PIRS)	2012	1.2	12.6	8.5	21.1	10.8	9.1	19.9
	2014	2.4	15.1	9.9	25.0	12.5	10.2	22.7
	2016	1.5	13.3	9.3	22.6	11.3	9.8	21.1
	2018	0.2	13.1	8.1	21.2	12.4	8.6	21.0
	평균	1.3	13.5	9.0	22.5	11.8	9.4	21.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6>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표 9> 및 <그림 6>를 통해 각 산업내에서 진입/퇴출 사업체와 계속 사업체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한다. 먼저 광·제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 사업체 및 진입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률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일자리 소멸률은 계속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 모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순일자리창출률이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는 광·제조업 특성상 진입/퇴출에 의한 일자리 조정보다는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조정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건설업의 경우, 2010년 초반보다 이후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 지역 개발 등을 통한 비정기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업체 퇴출에 의한 일자리 소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은 그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은 편이며, 창출률 및 소멸률의 절대적인 크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추정된다. 유통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은 광·제조업 및 건설업과 달리 진입/퇴출 사업체의 고용 조정이 계속 사업체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들 서비스업 그룹에서는 광·제조업이나 사회서비스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소멸률이 관측되지만, 개별 효과의 합에 해당하는 순일자리창출률은 오히려 다른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경우, 진입 사업체의 고용이 서서히 증가하고,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순일자리창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순일자리창출률 감소는 2015-2016년 기간부터 시작된 광·제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 감소가 최근까지 이어진 가운데,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2017-2018년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역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업의 부진이 이와 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4.2 규모별 분석

<표 10> 규모별 진입률과 퇴출률

사업체 규모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1인	2012	17.1	15.3	1.8
	2014	19.4	16.7	2.8
	2016	17.4	16.3	1.1
	2018	15.1	14.4	0.7
	평균	17.3	15.7	1.6
2-4인	2012	15.4	13.3	2.1
	2014	19.4	15.2	4.1
	2016	17.5	14.6	2.9
	2018	17.8	14.4	3.4
	평균	17.5	14.4	3.1
5-9인	2012	18.8	9.9	8.9
	2014	21.0	11.4	9.6
	2016	14.7	10.9	3.8
	2018	13.3	10.9	2.4
	평균	17.0	10.8	6.2
10-49인	2012	10.8	8.0	2.8
	2014	13.9	8.7	5.2
	2016	10.2	8.6	1.7
	2018	8.6	7.8	0.9
	평균	10.9	8.3	2.7
50-99인	2012	7.7	5.8	1.8
	2014	9.1	6.7	2.4
	2016	7.1	6.0	1.1
	2018	5.3	5.7	-0.5
	평균	7.3	6.1	1.2
100인 이상	2012	6.2	5.8	0.4
	2014	7.9	6.3	1.6
	2016	5.0	5.0	0.1
	2018	4.8	4.2	0.5
	평균	6.0	5.3	0.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10>은 경상북도 소재 사업체의 규모별 진입률, 퇴출률 및 순진입률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은 사업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상북도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진입률과 퇴출률이 사업체 규모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순진입률의 경우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전기간 평균 6.2%의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소규모 사업체 기업 동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 및 체인화가 201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관련이 깊다. 다만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현대화 과정은 포항, 경주, 구미와 같은 경상북도내 내 도시 지역에서 한정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높은 순진입률은 2014년 기간까지만 관측되고 있으며 이후 기간에서는 빠른 속도로 순진입률이 감소한 부분 역시 이와 같은 변화가 일부 지역 혹은 일부 시점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지속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앞선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규모별 분석에서도 역 U자 모양의 순진입률 추세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2014년 기간까지는 대부분 그룹에서 순사업체진입률이 증가추세이 있었으나, 이후 기간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4인, 100인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2011-2012년 기간의 순진입률 수준을 하회하는 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50-99인 그룹에서는 퇴출사업체의 수가 진입 사업체보다 더 많은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11>은 사업체 규모 그룹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양상을 보여준다. 전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그룹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기간 동안 1인 사업체에 의한 순일자리창출은 평균 15.6천명이며, 2-4인은 10.3명, 5-9인은 약 5천명이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집단에서는 주로 2-4인 사업체에 의한 순고용창출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앞서 2010년초반 기간 동안 활발한 순진입률이 나타난 5-9인 규모의 순고용창출은 5-9인 사업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2-4인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10인 이상 규모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8.5천명의 고용이 소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광·제조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체가 주로 분포하는 산업의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전의 산업별 분석 결과에서 광·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은 2014년 이전까지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기간에서 음(-)으로 전환되었는데,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한 <표 >의 분석 결과를 보면, 광·제조업에서의 고용 창출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제조업과 같이 대규모 설비 도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서 대규모 공장의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1> 규모별 일자리 창출 구조

규모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천명)			일자리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14.8	12.9	13.5	26.4	11.6	0.0	11.6
	2014	20.7	15.9	18.4	34.3	13.6	0.0	13.6
	2016	16.4	15.3	15.5	30.8	14.4	0.0	14.4
	2018	10.3	14.1	9.7	23.8	13.5	0.0	13.5
	평균	15.6	14.6	14.3	28.8	13.3	0.0	13.3
2-4인	2012	2.7	31.1	18.4	49.5	26.3	20.5	46.8
	2014	9.4	40.8	24.3	65.1	31.1	24.6	55.7
	2016	13.5	38.2	29.5	67.6	31.3	22.8	54.1
	2018	15.5	38.3	28.0	66.4	31.2	19.7	50.9
	평균	10.3	37.1	25.1	62.2	30.0	21.9	51.9
5-9인	2012	7.3	16.4	10.4	26.8	8.8	10.7	19.5
	2014	7.6	23.3	13.2	36.5	12.7	16.3	28.9
	2016	5.2	18.4	16.3	34.7	13.7	15.8	29.5
	2018	0.6	18.1	14.7	32.8	14.9	17.3	32.2
	평균	5.2	19.1	13.7	32.7	12.5	15.0	27.5
10-49인	2012	-2.2	24.7	22.7	47.4	18.7	31.0	49.7
	2014	3.1	32.9	23.2	56.1	21.4	31.6	53.0
	2016	-0.6	26.2	24.7	51.0	21.7	29.9	51.6
	2018	-3.8	23.4	22.7	46.1	21.2	28.7	49.9
	평균	-0.9	26.8	23.3	50.2	20.8	30.3	51.1
50-99인	2012	-2.4	7.2	7.3	14.5	5.7	11.2	16.9
	2014	-2.9	9.0	6.1	15.1	6.7	11.4	18.0
	2016	-0.8	7.3	7.5	14.8	6.2	9.4	15.6
	2018	-3.8	5.4	6.3	11.7	5.9	9.6	15.5
	평균	-2.5	7.2	6.8	14.0	6.1	10.4	16.5
100인 이상	2012	-6.5	11.1	16.0	27.1	12.0	21.5	33.6
	2014	-5.5	13.4	10.9	24.3	10.9	18.9	29.8
	2016	-4.1	9.8	12.2	22.0	6.8	19.3	26.1
	2018	-4.5	8.7	10.1	18.8	6.3	17.0	23.3
	평균	-5.2	10.8	12.3	23.1	9.0	19.2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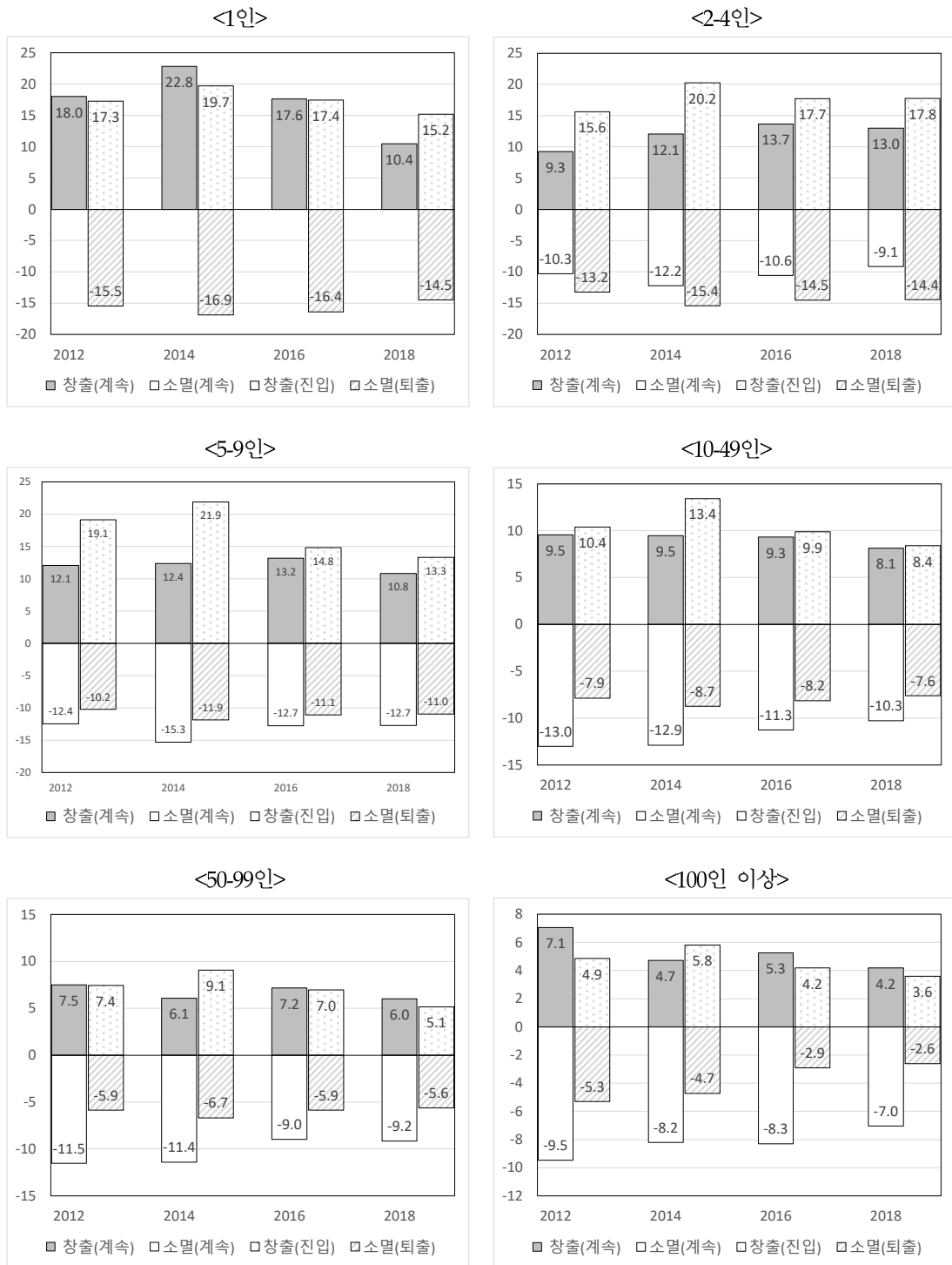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12> 규모별 일자리 창출률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창출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19.8	17.3	18.0	35.3	15.5	0.0	15.5
	2014	25.6	19.7	22.8	42.5	16.9	0.0	16.9
	2016	18.7	17.4	17.6	35.0	16.4	0.0	16.4
	2018	11.1	15.2	10.4	25.6	14.5	0.0	14.5
	평균	18.8	17.4	17.2	34.6	15.8	0.0	15.8
2-4인	2012	1.3	15.6	9.3	24.9	13.2	10.3	23.5
	2014	4.7	20.2	12.1	32.3	15.4	12.2	27.6
	2016	6.3	17.7	13.7	31.4	14.5	10.6	25.1
	2018	7.2	17.8	13.0	30.7	14.4	9.1	23.6
	평균	4.9	17.8	12.0	29.8	14.4	10.6	25.0
5-9인	2012	8.6	19.1	12.1	31.2	10.2	12.4	22.7
	2014	7.1	21.9	12.4	34.3	11.9	15.3	27.2
	2016	4.2	14.8	13.2	28.0	11.1	12.7	23.8
	2018	0.5	13.3	10.8	24.1	11.0	12.7	23.7
	평균	5.1	17.3	12.1	29.4	11.1	13.3	24.4
10-49인	2012	-0.9	10.4	9.5	19.9	7.9	13.0	20.9
	2014	1.2	13.4	9.5	22.9	8.7	12.9	21.6
	2016	-0.2	9.9	9.3	19.2	8.2	11.3	19.4
	2018	-1.4	8.4	8.1	16.5	7.6	10.3	17.9
	평균	-0.3	10.5	9.1	19.6	8.1	11.9	20.0
50-99인	2012	-2.5	7.4	7.5	14.9	5.9	11.5	17.4
	2014	-3.0	9.1	6.1	15.1	6.7	11.4	18.1
	2016	-0.7	7.0	7.2	14.1	5.9	9.0	14.9
	2018	-3.6	5.1	6.0	11.1	5.6	9.2	14.8
	평균	-2.5	7.2	6.7	13.8	6.0	10.3	16.3
100인 이상	2012	-2.8	4.9	7.1	11.9	5.3	9.5	14.8
	2014	-2.4	5.8	4.7	10.5	4.7	8.2	12.9
	2016	-1.8	4.2	5.3	9.4	2.9	8.3	11.2
	2018	-1.9	3.6	4.2	7.8	2.6	7.0	9.6
	평균	-2.2	4.6	5.3	9.9	3.9	8.3	12.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7> 규모별 일자리 창출 구조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표 12> 및 <그림 7>을 통해 진입/퇴출 및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동학을 규모별로 정리한다. 먼저 1인 사업체의 경우, 계속 사업체 및 진입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1인 사업체의 경우 진입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1-2인의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 사업체의 경우 더 이상 고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존재하지 않는다. 퇴출에 의한 일자리 감소율은 대체로 진입에 의한 고용 창출률과 유사하다. 2-4인 사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진입/퇴출을 중심으로 순고용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전 기간에서 진입 및 퇴출 사업체에 의한 고용 변화가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조정보다 빈번하고 나타난다. 5-9인에서도 진입/퇴출 사업체의 고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패턴은 동일하게 관측된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진입 사업체의 고용 증가가 2014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순고용창출률이 2011-2012년 8.6%수준에서 2017-2018년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10-49인 규모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순고용증가율이 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0-49인 구간에서는 계속 사업체에 의한 순고용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진입 및 퇴출을 통한 고용 증가는 2014년 이전 기간에서는 양(+), 이후 기간에서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진입 사업체가 계속 사업체보다 기여율이 큰 반면, 일자리 소멸에서는 퇴출 사업체보다는 계속 사업체의 수축을 통한 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4인 이하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5-9인 그룹부터 관측된다.

반면 5-9인, 10-49인 규모에서도 진입을 통한 고용 창출은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업체들이 진입 후에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규모를 조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 증가에 따라 퇴출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50-99인, 100인 이상 그룹에서는 높은 진입 장벽 등 높은 초기 투입 비용으로 인해 진입이 활발하지 않으며, 동시에 퇴출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용 창출 및 소멸이 계속 사업체에 의해 유발된다. 이들 그룹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순고용창출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계속 사업체의 고용 축소가 이와 같은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50인 이상 사업체 집단에서는 분석 시작 시점인 2011-2012년 기간부터 순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고용 감소 추세가 악화되지 않은 반면, 5-49인 사업체 집단에서는 고용창출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또는 2-4인 영세 사업체 집단의 고용 창출이 일반적으로 그 지속성이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방식이 점점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부분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3 매출 수준별 분석

본 장에서는 사업체를 매출 수준별 고용 동향을 살펴본다. 2010-2018년 전체 기간 동안의 사업체 매출액 분포로부터 추출한 4분위 수와 사업체의 생존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다.

<표 13> 매출 수준별 진입률과 퇴출률

매출 규모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1분위	2012	21.4	16.3	5.1
	2014	20.9	17.7	3.2
	2016	22.6	17.3	5.3
	2018	19.9	15.6	4.3
	평균	21.2	16.7	4.5
2분위	2012	13.8	15.1	-1.3
	2014	18.9	16.3	2.6
	2016	17.5	16.1	1.4
	2018	17.5	15.4	2.1
	평균	16.9	15.7	1.2
3분위	2012	15.8	12.5	3.3
	2014	20.0	14.9	5.1
	2016	16.3	14.5	1.8
	2018	16.0	14.2	1.8
	평균	17.0	14.0	3.0
4분위	2012	12.1	8.8	3.3
	2014	16.1	10.6	5.5
	2016	10.7	10.3	0.4
	2018	9.5	9.5	0.0
	평균	12.1	9.8	2.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먼저 <표 13>은 매출 규모별 진입률 및 퇴출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적인 진입률과 퇴출률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1분위 그룹에서 4분위 그룹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매출액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진입/퇴출률 감소폭은 규모 증가에 의한 감소폭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출 규모별 분석은 그룹별로 동일한 수의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고, 중소규모 사업체 중 일부 사업체가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매출 규모별로 순진입률의 기간별 변화 추이를 보면, 3분위 및 4분위

사업체의 경우 2014년 기간 이후 낮아진 순진입률이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1분위 및 2분위에서는 전기간 평균 시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표 14> 매출 수준별 순일자리 창출 구조

규모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천명)			일자리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분위	2012	7.3	17.9	5.6	23.4	11.8	4.3	16.1
	2014	5.0	17.7	6.9	24.6	13.6	6.0	19.6
	2016	4.8	16.1	4.2	20.3	11.6	3.9	15.5
	2018	4.9	14.0	3.9	17.9	10.0	3.0	13.0
	평균	5.5	16.4	5.2	21.6	11.8	4.3	16.1
2분위	2012	1.5	14.1	7.9	22.0	13.1	7.3	20.4
	2014	3.7	17.9	8.8	26.7	14.2	8.7	23.0
	2016	3.0	17.5	8.1	25.5	14.8	7.8	22.5
	2018	4.2	17.3	6.4	23.7	13.7	5.8	19.5
	평균	3.1	16.7	7.8	24.5	14.0	7.4	21.4
3분위	2012	4.3	20.0	12.4	32.4	14.7	13.4	28.1
	2014	7.9	26.5	16.3	42.8	18.6	16.4	34.9
	2016	9.6	26.2	18.5	44.7	19.8	15.4	35.1
	2018	7.6	26.4	17.4	43.7	21.6	14.5	36.2
	평균	7.4	24.8	16.2	40.9	18.7	14.9	33.6
4분위	2012	0.5	51.4	62.5	113.9	43.4	69.9	113.4
	2014	15.7	73.2	64.1	137.3	49.9	71.7	121.6
	2016	12.3	55.4	75.0	130.4	47.9	70.2	118.2
	2018	-2.4	50.4	63.8	114.2	47.6	69.0	116.6
	평균	6.5	57.6	66.4	124.0	47.2	70.2	117.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표 14>에서는 분위별 순일자리창출 구조를 정리한다. 먼저 어떤 구간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3분위 사업체의 순고용창출이 가장 높다. 1, 2분위 사업체들의 순고용창출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4분위 그룹의 경우 2017-2018년 기간 동안 큰 폭의 순고용창출 감소를 보여준다. 4분위 그룹에서는 2013-2014년과 2014-2015년에 평균적으로 15.7, 12.3천명의 순고용이 각각 창출되었으나 2017-2018년 기간에서 2.4천명의 순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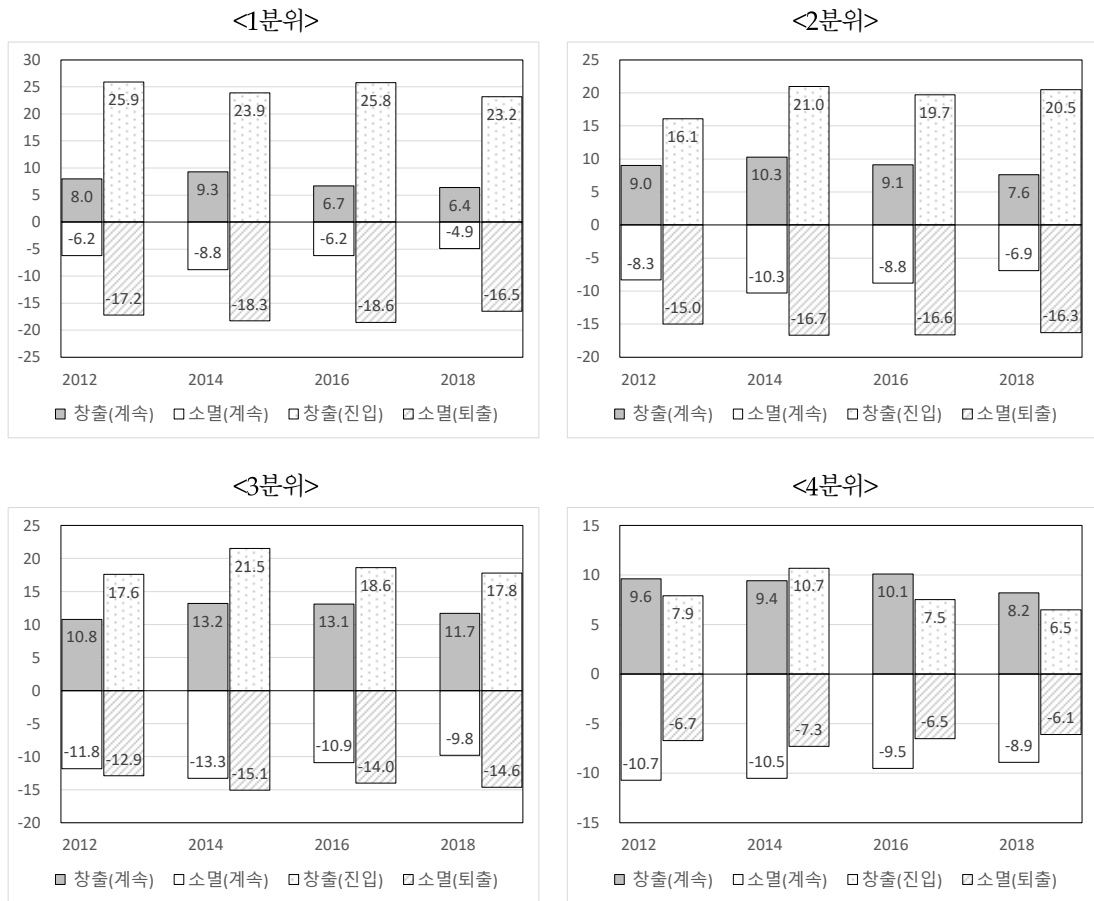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규모는 4분위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1, 2분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 규모가 20천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며, 3분위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40.9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33.6천명의 일자리 소멸이 나타난다. 반면 4분위에서는 3분위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일자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3분위에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가 분포하는 반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중소기업의 일부와 고용과 매출액이 모두 높은 사업체들이 4분위 그룹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표 15> 매출 수준별 순일자리 창출률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창출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분위	2012	10.6	25.9	8.0	33.9	17.2	6.2	23.3
	2014	6.8	23.9	9.3	33.2	18.3	8.8	26.4
	2016	7.7	25.8	6.7	32.5	18.6	6.2	24.8
	2018	8.1	23.2	6.4	29.5	16.5	4.9	21.5
	평균	8.3	24.7	7.6	32.3	17.7	6.5	24.0
2분위	2012	1.7	16.1	9.0	25.1	15.0	8.3	23.3
	2014	4.3	2.1	10.3	31.3	16.7	10.3	27.0
	2016	3.4	19.7	9.1	28.7	16.6	8.8	25.4
	2018	5.0	20.5	7.6	28.1	16.3	6.9	23.1
	평균	3.6	14.6	9.0	28.3	16.2	8.6	24.7
3분위	2012	3.8	17.6	10.8	28.4	12.9	11.8	24.6
	2014	6.4	21.5	13.2	34.8	15.1	13.3	28.4
	2016	6.8	18.6	13.1	31.7	14.0	10.9	24.9
	2018	5.1	17.8	11.7	29.5	14.6	9.8	24.4
	평균	5.5	18.9	12.2	31.1	14.2	11.5	25.6
4분위	2012	0.1	7.9	9.6	17.5	6.7	10.7	17.4
	2014	2.3	10.7	9.4	20.1	7.3	10.5	17.9
	2016	1.7	7.5	10.1	17.7	6.5	9.5	16.0
	2018	-0.3	6.5	8.2	14.7	6.1	8.9	15.0
	평균	1.0	8.2	9.3	17.5	6.7	9.9	16.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8> 매출 분위별 일자리 창출 구조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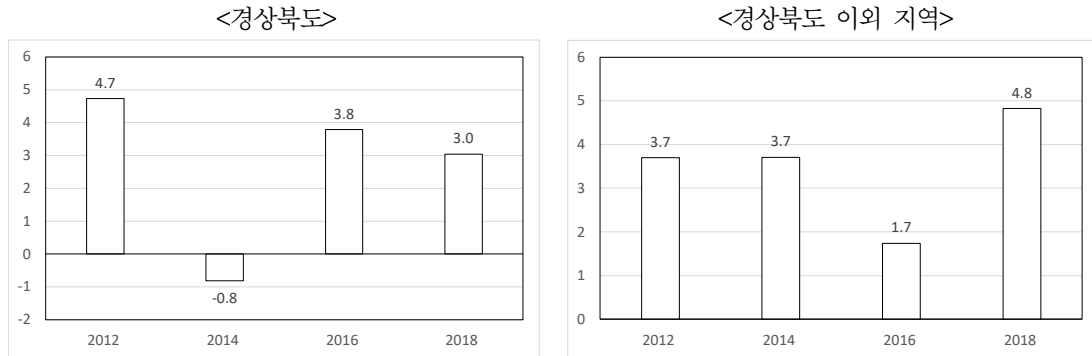
<그림 8>은 순일자리창출률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고용 동학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3분위 그룹까지는 서비스업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입 및 퇴출을 통한 고용 흐름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순효과 역시 진입 및 퇴출 사업체에 의해 주로 나타나고 있다. 4분위 그룹의 순일자리창출 구조는 이전 분석에서의 광·제조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흐름이 다소 우세한 상황에서 2013-2014년 기간 중 예외적으로 높은 진입을 통한 고용 증가가 광·제조업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상북도의 고용 창출은 소규모 고용, 저매출 위주의 사업체들이 최소한의 고용을 창출하는 가운데, 광·제조업 또는 대규모 사업체들의 고용이 2013-2014년 시점부터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영세 및

중소규모 사업체의 진입/퇴출에 의한 순일자리창출이 지역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고용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진입/퇴출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 사업체가 기존 사업체 또는 퇴출 사업체보다 영업 방식이나 생산 방식에 있어서 나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생산성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광·제조업의 성장에 기대어 서비스업 성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 창업이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교정하기 힘든 인구 구조보다는 최근 들어 부진폭이 확대되고 있는 광·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하다.

5. 경상북도의 매출 동학

<그림 9> 사업체의 매출 창출률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16> 순매출 창출률과 순매출 창출

지역	연도	순매출창출률(%)	순매출창출(조)
경북	2012	4.7	10.6
	2014	-0.8	-2.1
	2016	3.8	9.8
	2018	3.0	8.6
	평균	2.7	6.7
경북이외	2012	3.7	156.1
	2014	3.7	168.6
	2016	1.7	83.6
	2018	4.8	246.5
	평균	3.5	163.7
경북 비중	평균	-	4.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9> 및 <표 16>에서와 같이 경상북도의 순매출창출률은 분석 기간인 2011-2018년 동안 약 2.7% 수준이다. 경북이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3.5%의 순매출성장률이 추정되었다. 동일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6.7조원의 순매출증가가 경상북도에서 관측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의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비중은 앞서 살펴본 순고용창출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3-2014년 기간 경북의 순매출창출률은 -0.8%였으며, 순매출창출은 약 -2.1조원으로 나머지 기간과 달리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13-2014년 기간을 제외할 경우, 순매출창출률은 3.8%수준이다. 이와 같은 경북의 매출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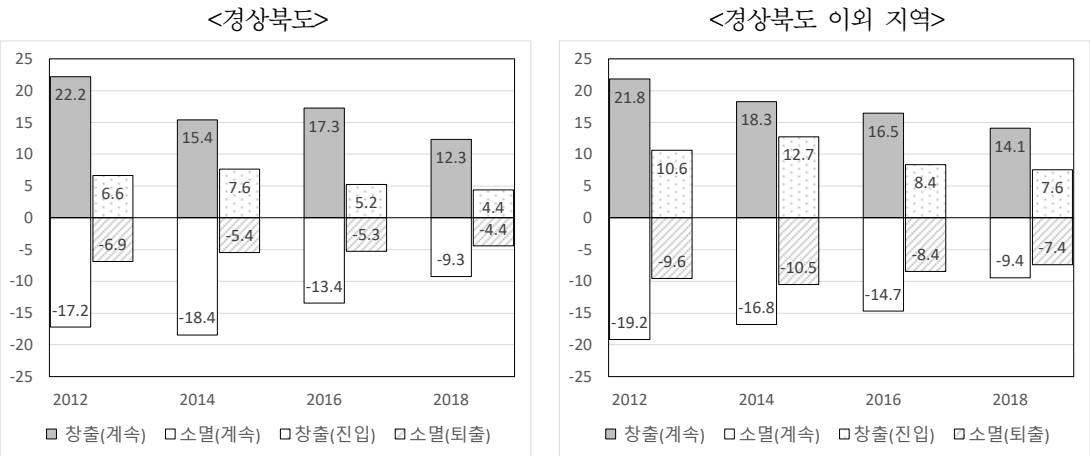
는 2013-2014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순고용증가율의 경우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매출 변화는 대규모 사업체 또는 광·제조업 등의 산업을 통해 주도되는 반면 고용의 경우 상당 부분이 지역 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본 장에서는 앞선 고용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동학적 매출 창출 구조를 산업, 사업체 규모 및 매출 규모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17> 사업체의 매출 창출과 소멸

지역	연도	매출 창출(조)			매출 소멸(조)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경북	2012	15.0	50.0	65.0	15.6	38.8	54.3
	2014	20.0	40.3	60.3	14.2	48.2	62.4
	2016	13.4	44.5	57.9	13.6	34.5	48.1
	2018	12.3	34.8	47.1	12.5	26.1	38.6
	평균	15.2	42.4	57.6	14.0	36.9	50.9
경북이외	2012	448.3	922.6	1,370.9	403.7	811.0	1,214.7
	2014	578.7	831.5	1,410.2	477.4	764.2	1,241.6
	2016	402.9	789.3	1,192.1	404.8	703.8	1,108.6
	2018	387.2	719.5	1,106.7	378.0	482.2	860.2
	평균	454.3	815.7	1,270.0	416.0	690.3	1,106.3
경북 비중	평균	3.3	5.2	4.5	3.4	5.3	4.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10> 사업체 동학 특성별 매출 창출률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17> 및 <그림 10>은 세부 분석에 앞서 경상북도의 매출 창출 구조를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경북 이외 지역의 결과와 비교한 자료이다. 먼저 매출 창출액과 매출 소멸액의 총합은 2011-2012년 각각 65.0조원과 54.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7-2018년 기간 동안 각각 47.1조원과 38.6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역동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와 유사한 결과가 매출 측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경상북도의 경우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 및 소멸액의 상대적 크기가 진입/퇴출 사업체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들의 상대적 기여를 나타내는 창출률 및 소멸률을 비교해보면 <표 18>에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률은 16.8%로 5.9%의 진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으며, 계속 사업체의 의한 매출 소멸률은 평균 14.6%로 5.5%의 퇴출 사업체보다 높다. 경북 이외 지역에서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 및 소멸률이 경북과 유사한 반면, 진입 및 퇴출에 의한 기여도가 2배 가까이 높은 사실과 비교하면 경북 지역에서 계속 사업체가 매출 창출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선 분석에서 2013-2014년 기간 동안 경상북도의 순매출액 증가율은 음의 값을 기록하였는데, <표 18>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대체로 전기간에 걸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진입/퇴출 효과와 달리 계속 사업체의 순매출감소가 이와 같은 순매출감소를 유발했다고 판단된다.

<표 18> 사업체의 매출 창출률과 소멸률

지역	연도	매출 창출률(%)			매출 소멸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경북	2012	6.6	22.2	28.8	-6.9	-17.2	24.1
	2014	7.6	15.4	23.0	-5.4	-18.4	23.9
	2016	5.2	17.3	22.5	-5.3	-13.4	18.7
	2018	4.4	12.3	16.7	-4.4	-9.3	13.7
	평균	6.0	16.8	22.8	-5.5	-14.6	20.1
경북이외	2012	10.6	21.8	32.4	-9.6	-19.2	28.7
	2014	12.7	18.3	31.0	-10.5	-16.8	27.3
	2016	8.4	16.5	24.9	-8.4	-14.7	23.1
	2018	7.6	14.1	21.7	-7.4	-9.4	16.8
	평균	9.8	17.7	27.5	-9.0	-15.0	24.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5.1 산업별 분석

<표 19> 산업별 매출 창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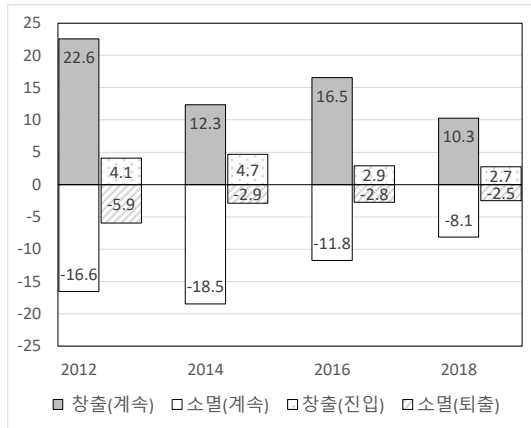
산업분류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조)			매출 소멸(조)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6.1	6.0	33.1	39.1	8.7	24.3	33.1
	2014	-7.5	8.1	21.3	29.4	5.0	31.9	36.9
	2016	7.8	4.6	26.3	30.9	4.4	18.7	23.1
	2018	4.3	4.9	18.2	23.1	4.4	14.5	18.8
	평균	2.7	5.9	24.7	30.6	5.6	22.4	28.0
건설업 (F)	2012	-0.5	1.2	2.2	3.4	1.0	2.9	3.9
	2014	0.8	2.3	2.1	4.3	1.4	2.1	3.5
	2016	0.1	1.2	3.3	4.5	2.0	2.3	4.4
	2018	-0.3	1.0	2.4	3.4	1.7	2.0	3.7
	평균	0.0	1.4	2.5	3.9	1.5	2.3	3.9
유통서비스 (GHI)	2012	3.7	4.0	7.3	11.3	3.1	4.5	7.6
	2014	1.7	5.8	6.9	12.6	4.6	6.3	10.9
	2016	-0.3	4.2	5.5	9.7	3.8	6.1	10.0
	2018	1.7	3.3	6.2	9.5	3.3	4.5	7.8
	평균	1.7	4.3	6.5	10.8	3.7	5.4	9.1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0.2	2.7	4.0	6.7	1.9	5.1	7.0
	2014	1.3	1.8	5.3	7.2	2.0	3.8	5.8
	2016	-0.2	1.8	3.7	5.5	1.6	4.1	5.7
	2018	1.3	1.7	3.8	5.5	1.5	2.7	4.2
	평균	0.6	2.0	4.2	6.2	1.8	3.9	5.7
사회서비스 (OO)	2012	0.8	0.2	1.5	1.7	0.1	0.8	0.9
	2014	0.1	0.7	1.4	2.0	0.3	1.7	2.0
	2016	1.9	0.6	2.9	3.5	0.6	1.0	1.6
	2018	1.4	0.3	2.0	2.3	0.2	0.7	0.9
	평균	1.1	0.5	2.0	2.4	0.3	1.1	1.4
개인서비스 (PIRS)	2012	0.8	0.8	1.8	2.7	0.7	1.2	1.9
	2014	1.5	1.4	3.3	4.7	1.0	2.2	3.2
	2016	0.4	1.0	2.8	3.8	1.2	2.2	3.4
	2018	0.2	1.2	2.1	3.3	1.3	1.7	3.0
	평균	0.7	1.1	2.5	3.6	1.1	1.8	2.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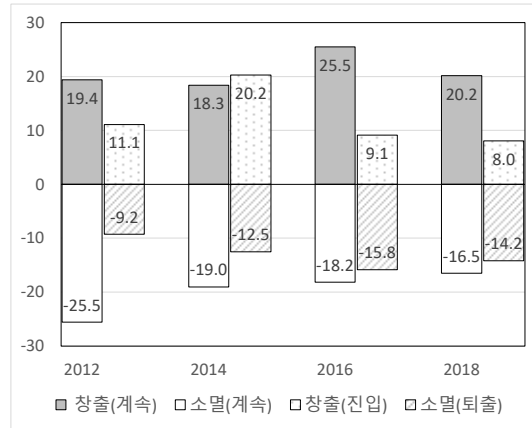
<표 19>는 경상북도의 산업별 매출액 성장 구조를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자료이다. 먼저 순매출창출 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제조업에서 분석 기간 동안 평균 약 2.7조 규모의 가장 높은 순매출증가가 나타났다. 건설업의 순매출창출액은 0.03조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광·제조업을 제외하면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순매출창출이 각각 1.7조와 1.05조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순매출창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제조업에서 2013-2014년 기간 동안 -7.5조의 순매출증가를 기록하여 당시의 무역환경 악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은 낮은 순매출창출액을 기록하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2011-2012년 기간 동안 3.7조의 순매출창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15-2016년 -0.3조의 부진한 순매출창출액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서비스의 경우도 점진적인 순매출성장률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유일하게 사회서비스에서만 순매출창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선 일자리 창출 분석에서도 유사한 추이가 관측되어 경상북도의 산업 구조가 광·제조업의 전반적인 성장률 정체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산업별 매출 창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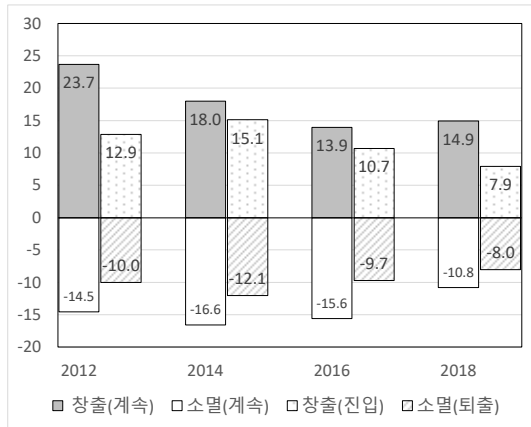
<광·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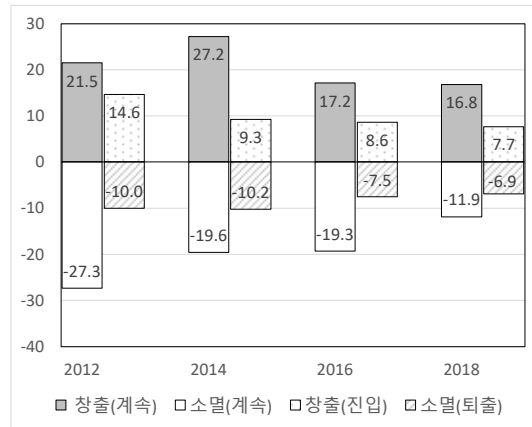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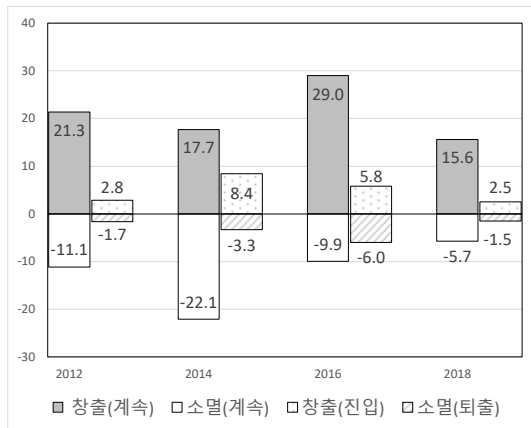
<유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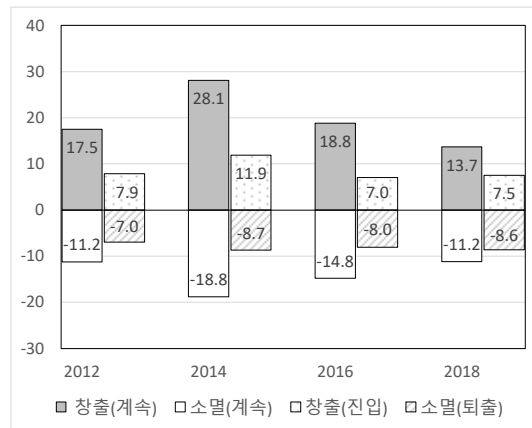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0> 산업별 매출 창출률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률(%)			매출 소멸률(%)		
		창출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4.1	4.1	22.6	26.6	5.9	16.6	-22.5
	2014	-4.3	4.7	12.3	17.0	2.9	18.5	-21.3
	2016	4.9	2.9	16.5	19.4	2.8	11.8	-14.5
	2018	2.4	2.7	10.3	13.0	2.5	8.1	-10.6
	평균	1.8	3.6	15.4	19.0	3.5	13.8	-17.2
건설업 (F)	2012	-4.3	11.1	19.4	30.5	9.2	25.5	-34.8
	2014	7.1	20.2	18.3	38.6	12.5	19.0	-31.5
	2016	0.7	9.1	25.5	34.6	15.8	18.2	-34.0
	2018	-2.5	8.0	20.2	28.2	14.2	16.5	-30.7
	평균	0.3	12.1	20.9	33.0	12.9	19.8	-32.8
유통서비스 (GHI)	2012	12.0	12.9	23.7	36.6	10.0	14.5	-24.6
	2014	4.5	15.1	18.0	33.1	12.1	16.6	-28.6
	2016	-0.7	10.7	13.9	24.6	9.7	15.6	-25.4
	2018	4.0	7.9	14.9	22.8	8.0	10.8	-18.8
	평균	5.0	11.7	17.6	29.3	10.0	14.4	-24.4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1.2	14.6	21.5	36.1	10.0	27.3	-37.3
	2014	6.7	9.3	27.2	36.5	10.2	19.6	-29.8
	2016	-1.0	8.6	17.2	25.8	7.5	19.3	-26.8
	2018	5.8	7.7	16.8	24.5	6.9	11.9	-18.7
	평균	2.6	10.1	20.7	30.7	8.7	19.5	-28.2
사회서비스 (OO)	2012	11.3	2.8	21.3	24.2	1.7	11.1	-12.8
	2014	0.7	8.4	17.7	26.1	3.3	22.1	-25.4
	2016	18.9	5.8	29.0	34.8	6.0	9.9	-15.9
	2018	10.9	2.5	15.6	18.1	1.5	5.7	-7.2
	평균	10.5	4.9	20.9	25.8	3.1	12.2	-15.3
개인서비스 (PIRS)	2012	7.2	7.9	17.5	25.4	7.0	11.2	-18.2
	2014	12.5	11.9	28.1	40.0	8.7	18.8	-27.5
	2016	3.0	7.0	18.8	25.9	8.0	14.8	-22.8
	2018	1.5	7.5	13.7	21.3	8.6	11.2	-19.8
	평균	6.1	8.6	19.5	28.2	8.1	14.0	-22.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그림 11> 및 <표 20>을 통해 산업별로 진입/퇴출 사업체와 계속 사업체의 순매출창출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광·제조업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발생이 전체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광·제조업에서는 진입/퇴출에 의한 매출 변화가 전 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체에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 동학의 역동성 저하는 계속 사업체의 매출창출 축소와 매출 소멸 증가에 의해 복합적으로 유발되고 있다. 특히 2013-2014년의 순매출창출률 감소는 이와 같은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광·제조업의 경우 고용 부문의 역동성 저하와 매출 측면의 역동성 저하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진입/퇴출에 의한 매출 창출 구조가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진입/퇴출에 의한 순매출창출 효과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 기간에서는 사업체 퇴출에 의한 매출 감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 퇴출이 건설업 내에서의 대규모 사업체 퇴출 때문인지, 반대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도 2013-201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변화가 전체 산업의 순매출창출 변화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광·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에서도 순매출창출과 순고용창출 추이가 시계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는 두 산업 모두 사업체의 진입/퇴출을 통한 산업 혁신이나 성장이 어렵고 대체로 생산이나 영업 활동 방식이 계속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계속 사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진입/퇴출을 강조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계속 사업체에 매우 작기 때문이다. 계속 사업체의 고용 조정은 시장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통한 조 이동보다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 창출 측면에서 진입/퇴출이 중요하지만, 매출액 변화는 서비스업에서도 계속 사업체의 영업 실적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즉 계속 사업체에 의한 매출 창출액과 소멸액의 순증가액의 합이 양(+)인 기간 동안, 해당 산업의 순매출창출은 모두 양(+)의 값으로 관측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2 규모별 분석

<표 21> 사업체 규모별 매출 창출 구조

규모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조)			매출 소멸(조)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1.5	1.3	1.3	2.6	0.6	0.5	1.1
	2014	0.6	1.2	1.6	2.8	1.2	1.0	2.2
	2016	0.9	0.9	1.9	2.7	1.0	0.8	1.9
	2018	0.5	0.8	1.4	2.2	0.9	0.7	1.7
	평균	0.9	1.1	1.6	2.6	0.9	0.8	1.7
2-4인	2012	2.7	3.1	4.5	7.7	2.3	2.7	5.0
	2014	1.5	3.8	4.4	8.2	3.1	3.6	6.7
	2016	1.0	2.7	4.4	7.1	2.9	3.2	6.1
	2018	2.2	2.9	4.6	7.5	2.7	2.6	5.3
	평균	1.9	3.1	4.5	7.6	2.8	3.0	5.8
5-9인	2012	2.0	2.7	3.5	6.2	1.6	2.7	4.2
	2014	1.8	3.6	4.6	8.2	2.3	4.0	6.4
	2016	1.0	2.3	4.2	6.5	2.2	3.3	5.5
	2018	2.2	2.3	4.7	7.1	2.2	2.7	4.9
	평균	1.8	2.7	4.3	7.0	2.1	3.2	5.3
10-49인	2012	2.8	3.8	11.0	14.8	4.0	8.0	12.0
	2014	3.0	5.5	10.2	15.7	3.9	8.8	12.7
	2016	1.1	4.4	9.8	14.2	4.3	8.8	13.1
	2018	2.7	3.7	9.5	13.2	3.9	6.6	10.5
	평균	2.4	4.4	10.1	14.5	4.0	8.1	12.1
50-99인	2012	0.2	0.9	3.7	4.6	1.0	3.4	4.3
	2014	1.1	1.9	3.4	5.3	1.0	3.2	4.2
	2016	-1.3	1.2	3.4	4.6	1.8	4.1	5.9
	2018	-0.4	0.7	2.9	3.6	1.0	2.9	4.0
	평균	-0.1	1.2	3.4	4.5	1.2	3.4	4.6
100인 이상	2012	1.4	3.2	26.0	29.1	6.2	21.5	27.7
	2014	-10.2	3.9	16.0	19.9	2.7	27.5	30.2
	2016	7.2	2.0	20.9	22.8	1.4	14.2	15.6
	2018	1.3	1.9	11.7	13.6	1.8	10.5	12.3
	평균	-0.1	2.8	18.7	21.4	3.0	18.4	21.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에서는 사업체 규모 및 동학적 특성에 따른 매출 창출 구조를 정리한다. 순매출창출을 규모별로 비교하면, 10-49인 그룹까지는 규모 증가에 따라 평균적인 순매출창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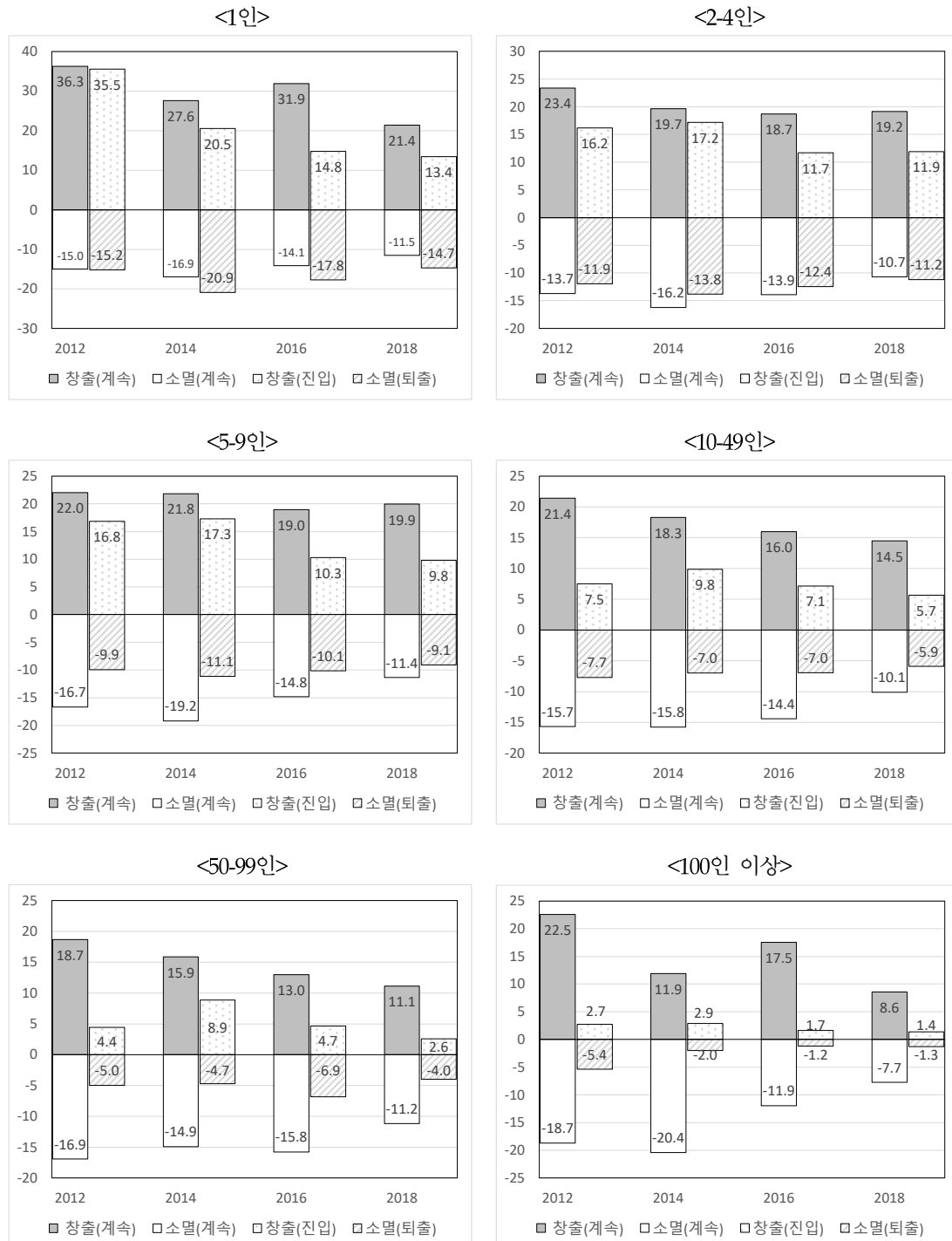
인다. 1인 사업체의 순매출 창출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0.88조이며, 2-4인은 1.85, 5-9인은 1.75, 10-49인은 2.4조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50인 이상에서는 순매출창출액 증가가 0보다 작아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100인 이상 사업체 집단의 경우 -10.2조 규모의 큰 순매출감소가 나타난 2013-2014년 기간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매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계속 사업체의 매출 창출 및 소멸 규모를 비교하면 100인 이상 규모에서 그 규모가 21.35조 및 21.45조로 가장 높고, 10-49인 집단이 14.5조 및 12.1조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50-99인 집단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과 관련한 동학적 변화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매출 측면에서도 그 기여가 작은 편이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지역 서비스업을 제외한 광·제조업이나 건설업, 또는 일부 대형화된 서비스업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광·제조업의 규모 분포상 50-99인 사업체는 중규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50-99인 고용 및 매출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양상은 국내외 연구에서 많이 다뤄져온 양극화(polarization, missing middle) 형태의 규모 분포 특징이 경북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0-49인 규모 그룹은 고용창출 및 소멸이 2-4인 그룹 다음으로 활발하게 발생한 집단이다. 이 규모에는 다양한 산업의 사업체가 혼재되어있는데, 10-49인은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광·제조업 내에서는 소규모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산업 특성을 배제하고 규모만을 기준으로 사업체의 영업방식이나 동학적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산업별 규모별 세부 분석을 통해 자세히 진행한다.

다음으로 <그림 12>와 <표 22>는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른 순매출창출 기여도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1인 사업체에서는 고용 동학과 유사하게 계속 사업체의 기여가 진입 및 퇴출 사업체와 거의 유사하다. 1인인 계속 사업체의 매출 변화는 사업체의 생존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보다는 매출 증가를 위주로 나타난다. 반면 진입/퇴출의 측면에서 보면, 진입 시점의 사업체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퇴출 사업체는 대체로 1인일지라도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몇 년간 매출을 확대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출 사업체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²⁾ 이처럼 매출 동학의 경우 진입/퇴출보다는 계속 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평균적인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100인 이상 그룹에서는 매출액의 변동이 거의 계속 사업체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의 경우, 100인 이상 그룹에서도 계속 사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진입/퇴출 기여가 나타난 것과 차이가

2) 한편, 1인 사업체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사업체의 고용 감소는 정의상 퇴출과 같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었으나, 매출 감소는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있다. 또한, 2011-2012년 기간과 2017-2018년 기간의 매출 동학 규모를 비교해보면, 변화의 방향과 무관하게 매출의 동학적 변화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 동학의 역동성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차별화된다.

<그림 12> 규모별 매출 창출 구조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2> 사업체 규모별 매출 창출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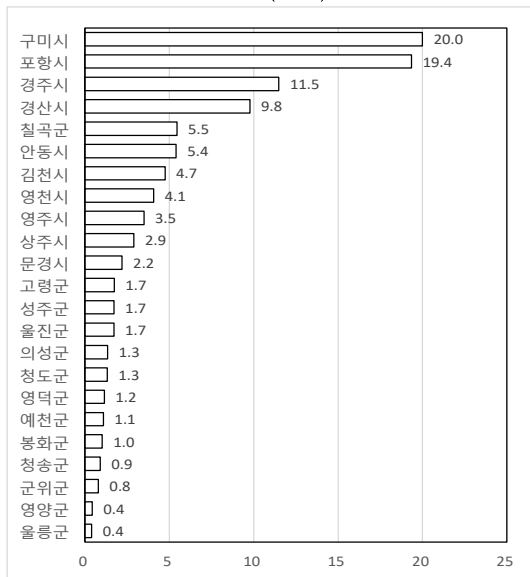
산업분류	연도	순매출	매출 창출률(%)			매출 소멸률(%)		
		창출률(%)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1인	2012	41.6	35.5	36.3	71.8	15.2	15.0	30.2
	2014	10.2	20.5	27.6	48.0	20.9	16.9	37.8
	2016	14.7	14.8	31.9	46.6	17.8	14.1	31.9
	2018	8.6	13.4	21.4	34.8	14.7	11.5	26.2
	평균	18.8	21.1	29.3	50.3	17.2	14.4	31.5
2-4인	2012	13.9	16.2	23.4	39.5	11.9	13.7	25.6
	2014	6.8	17.2	19.7	36.9	13.8	16.2	30.1
	2016	4.1	11.7	18.7	30.4	12.4	13.9	26.3
	2018	9.2	11.9	19.2	31.1	11.2	10.7	21.8
	평균	8.5	14.3	20.3	34.5	12.3	13.6	26.0
5-9인	2012	12.2	16.8	22.0	38.8	9.9	16.7	26.6
	2014	8.8	17.3	21.8	39.1	11.1	19.2	30.3
	2016	4.3	10.3	19.0	29.3	10.1	14.8	25.0
	2018	9.2	9.8	19.9	29.7	9.1	11.4	20.5
	평균	8.6	13.6	20.7	34.2	10.1	15.5	25.6
10-49인	2012	5.4	7.5	21.4	28.9	7.7	15.7	23.4
	2014	5.4	9.8	18.3	28.1	7.0	15.8	22.7
	2016	1.8	7.1	16.0	23.1	7.0	14.4	21.4
	2018	4.1	5.7	14.5	20.1	5.9	10.1	16.0
	평균	4.2	7.5	17.6	25.1	6.9	14.0	20.9
50-99인	2012	1.2	4.4	18.7	23.1	5.0	16.9	21.9
	2014	5.1	8.9	15.9	24.7	4.7	14.9	19.6
	2016	-5.0	4.7	13.0	17.6	6.9	15.8	22.6
	2018	-1.4	2.6	11.1	13.7	4.0	11.2	15.1
	평균	0.0	5.2	14.7	19.8	5.2	14.7	19.8
100인 이상	2012	1.3	2.7	22.5	25.3	5.4	18.7	24.0
	2014	-7.6	2.9	11.9	14.8	2.0	20.4	22.4
	2016	6.1	1.7	17.5	19.2	1.2	11.9	13.1
	2018	1.0	1.4	8.6	10.0	1.3	7.7	9.0
	평균	0.2	2.2	15.1	17.3	2.5	14.7	17.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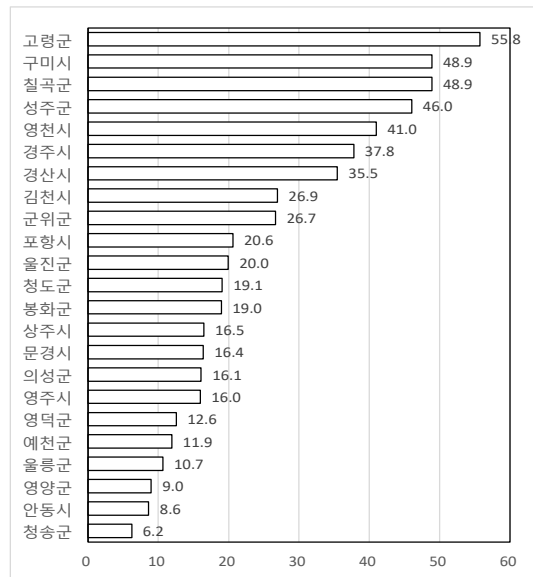
6. 경상북도의 지역별 고용 동향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용 및 매출 동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내 개별 행정구역별 분석을 시행한다. 자세한 분석에 앞서 <그림 13>을 통해 시장 환경이나 산업 구조의 지역간 이질성 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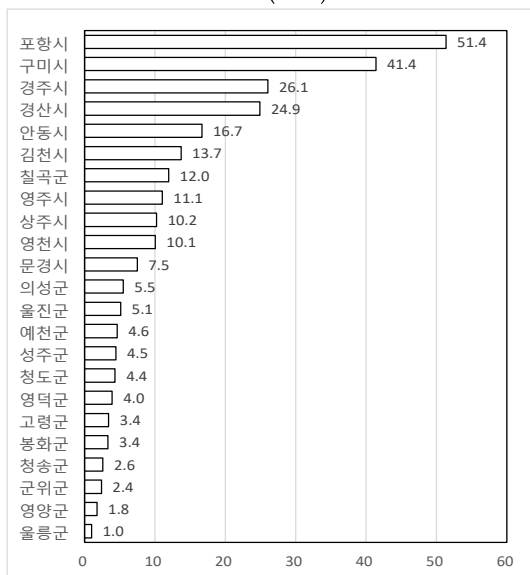
<그림 13> 경상북도 내 세부 지역별 특성
<고용(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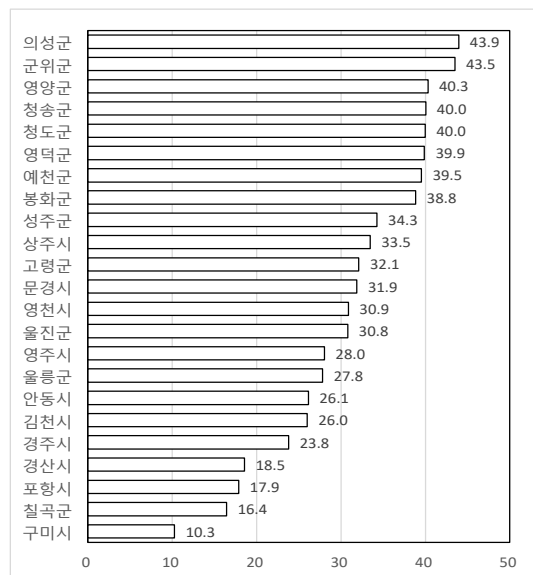
<광·제조업 고용 비중>



<인구(만명)>



<60세 이상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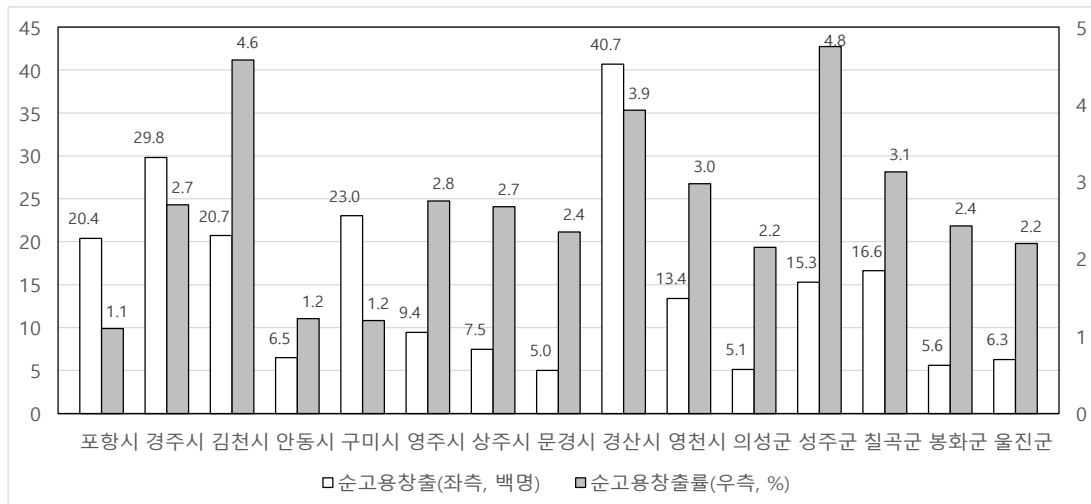


<그림 13>은 경상북도 내 행정구역별로 고용, 산업 구성 및 인구 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각 그림의 값들은 모두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지역별 평균치를 나타낸다. 고용과 인구의 경우, 포항, 구미에 많은 고용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군 지역의 경우 10만명 미만의 낮은 인구를 보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제조업 비중을 살펴보면 구미시(48.9%)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광·제조업 비중을 보여주는 지역은 고령, 칠곡, 성주 등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과 인구를 나타낸 지역들이다. 구미의 경우 대규모 광·제조업 사업체들이 집중되어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대규모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군(郡)지역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광·제조업 비중은 반대로 부실한 지역 서비스업 시장 여건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광·제조업 고용 비중의 경우에도 최대 55.8%에서 최소 6.2%까지 다양한 관측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군(郡)지역에서 대부분 높게 관측된다.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구미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3%로 전체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낮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경상북도내 생활권 및 산업단지 권역에 대한 정보 및 지역별 인구 정보를 종합하여 15개 지역 시장을 확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상 시(市)지역에 해당하는 구역과 인구 10만 이상의 군 지역은 개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으며, 결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군지역은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이 어려운 울릉군의 경우 지역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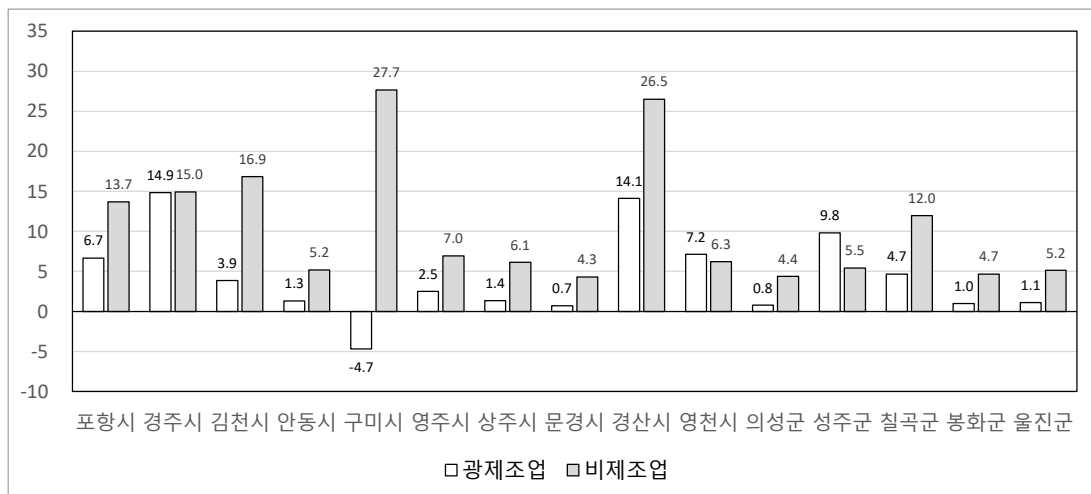
3) 구체적으로는 청도군과 경산시, 군위군과 영천시, 예천군과 의성군, 고령군과 성주군, 청송군과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및 영양군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4> 경상북도 내 세부 지역별 고용 창출 구조

<전체>



<산업별>



<그림 14>는 2011-2018년까지의 평균 순일자리창출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경산에서 연평균 40.7백명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고용 및 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낸 구미시와 포항시는 경산시의 절반 수준인 23.0백명 및 20.4백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 규모와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도시의 인구 구조나 산업 구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시, 상주시, 안동시 및 문경시의 경우 일부 군부보다 더 낮은 순일자리창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개별 행정구역별로 순일자리창출 구조와 연도별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6.1 포항시

<표 23>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4.2	223.8	162.9	386.8	180.4	210.5	390.9
2014	25.3	269.8	181.8	451.6	220.1	206.3	426.3
2016	14.9	226.1	195.2	421.3	210.5	196.0	406.4
2018	45.5	235.8	177.9	413.7	200.9	167.4	368.3
평균	20.4	238.9	179.5	418.4	202.9	195.0	398.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4>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5.6	34.5	33.8	68.2	23.5	29.2	52.7
	2014	-4.3	33.6	25.2	58.7	32.2	30.8	63.0
	2016	-4.4	29.5	25.9	55.4	29.0	30.8	59.8
	2018	19.8	52.7	22.9	75.6	28.9	26.8	55.7
	평균	6.7	37.6	26.9	64.5	28.4	29.4	57.8
비제조업	2012	-19.7	189.4	129.2	318.5	156.9	181.3	338.3
	2014	29.5	236.2	156.7	392.9	187.9	175.5	363.3
	2016	19.3	196.6	169.3	365.9	181.4	165.2	346.6
	2018	25.6	183.1	155.0	338.2	171.9	140.6	312.5
	평균	13.7	201.3	152.5	353.9	174.5	165.6	340.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3>에서와 같이 포항시의 순고용창출은 2011-2012년 기간에 4.2백명 감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2018년 기간 중 순일자리창출은 45.4백명으로 전체 기간 중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진입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자리 소멸은 퇴출 사업체와 계속 사업체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24>를 통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고용 창출 구조를 나눠보면, 비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광·제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 높다. 광·제조업은 2013-2014, 2015-2016 기간 중 평균적으로

약 4.3백명이 감소하여 부진하였으나 2017-2018년 기간 동안 19.8백명이 순증가하여 2011-2012년의 순증가분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특이한 점은 광·제조업의 고용 흐름이 계속 사업체보다는 진입/퇴출 사업체에 의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비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은 2012년 이전 기간을 제외하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포항시의 고용 창출 양상과 비슷한 추세를 갖는다.

<표 25>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3.8	4.5	4.5	8.9	2.9	2.2	5.1
	2014	3.7	5.5	5.7	11.2	4.3	3.2	7.5
	2016	7.0	6.2	7.3	13.5	4.1	2.5	6.6
	2018	7.2	6.7	7.5	14.2	4.6	2.4	7.1
	평균	5.4	5.7	6.2	12.0	4.0	2.6	6.6
대규모 (5인이상)	2012	11.8	30.0	29.3	59.3	20.6	27.0	47.5
	2014	-7.9	28.1	19.5	47.6	27.9	27.6	55.5
	2016	-11.4	23.3	18.5	41.9	24.9	28.3	53.2
	2018	12.7	46.0	15.4	61.3	24.3	24.4	48.7
	평균	1.3	31.8	20.7	52.5	24.4	26.8	51.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34.4	93.9	59.1	153.0	81.8	36.8	118.6
	2014	49.1	109.7	77.1	186.7	94.2	43.5	137.6
	2016	35.3	102.7	70.9	173.6	96.3	42.0	138.3
	2018	47.0	99.8	68.8	168.6	87.7	33.8	121.6
	평균	41.5	101.5	69.0	170.5	90.0	39.0	129.0
대규모 (5인이상)	2012	-54.2	95.5	70.0	165.5	75.1	144.6	219.7
	2014	-19.6	126.5	79.6	206.1	93.7	132.0	225.7
	2016	-16.0	93.9	98.4	192.3	85.2	123.1	208.3
	2018	-21.4	83.3	86.2	169.6	84.2	106.8	191.0
	평균	-27.8	99.8	83.6	183.4	84.6	126.6	211.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6>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8	2.1	1.5	3.6	1.6	1.2	2.8
	2014	0.3	2.1	1.7	3.8	2.0	1.5	3.5
	2016	1.3	2.9	1.2	4.1	1.8	0.9	2.7
	2018	1.1	3.0	1.2	4.1	2.0	1.0	3.0
	평균	0.9	2.5	1.4	3.9	1.9	1.2	3.0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4.7	32.3	32.1	64.4	21.9	27.9	49.7
	2014	-4.7	31.3	23.3	54.5	29.9	29.3	59.2
	2016	-5.3	26.5	24.7	51.2	26.9	29.6	56.5
	2018	18.5	49.4	21.6	71.0	26.6	25.9	52.5
	평균	5.8	34.9	25.4	60.3	26.3	28.2	54.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8.2	67.5	24.9	92.4	53.9	20.3	74.2
	2014	19.6	74.1	27.8	101.9	56.2	26.0	82.3
	2016	11.1	67.0	20.1	87.1	55.2	20.8	76.1
	2018	19.3	62.5	19.0	81.5	47.9	14.4	62.3
	평균	17.0	67.8	22.9	90.7	53.3	20.4	73.7
고매출 (중위이상)	2012	-37.9	121.5	104.4	226.0	102.6	161.2	263.9
	2014	8.5	161.2	128.4	289.6	131.9	149.1	281.0
	2016	7.9	129.6	149.0	278.6	126.7	144.0	270.7
	2018	6.8	120.8	136.6	257.3	124.2	126.4	250.5
	평균	-3.7	133.3	129.6	262.9	121.4	145.2	266.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5>에서 산업별 고용 창출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면, 광·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은 평균적으로 5인 미만 소규모 그룹에서 전체 기간 중 5.4명으로 1.3명인 나머지 그룹보다 높다. 광·제조업에서 5인 미만 사업체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5인 이상 그룹에서의 순고용창출이 5인 미만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5인 이상 그룹의 고용창출이 실질적으로 부진한 수

준임을 나타낸다. 다만 대규모 그룹의 순고용창출은 2013-2016 기간 동안의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실질보다 저평가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제조업에서는 대규모 그룹의 고용창출이 매우 부진한 반면 소규모 그룹에서 활발한 고용창출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6>에서 매출 수준에 따라 광·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분석하면 고매출 그룹의 순고용창출이 평균 5.8백명으로 저매출 그룹의 0.9백명보다 높다. 이는 5인 이상 광·제조업 그룹 안에서도 매출 수준에 따라 고용 창출 양상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만 고매출 그룹에서도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진입 사업체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지속적인 고용 창출 여력에 대한 다면적 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 비제조업의 경우 규모별 분석에서 유사하게 저매출 그룹의 고용 창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6.2 경주시

<표 27>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19.4	111.8	101.2	213.1	89.2	104.5	193.7
2014	54.6	169.3	102.3	271.6	113.2	103.7	216.9
2016	35.5	146.1	112.2	258.3	115.7	107.1	222.7
2018	9.8	122.5	99.3	221.8	107.1	104.9	212.0
평균	29.8	137.4	103.8	241.2	106.3	105.0	211.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8>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20.9	32.9	39.6	72.6	23.6	28.0	51.6
	2014	31.3	63.5	35.0	98.5	32.6	34.6	67.2
	2016	18.2	46.5	39.8	86.3	30.7	37.4	68.1
	2018	-10.9	34.2	33.6	67.7	36.0	42.5	78.6
	평균	14.9	44.3	37.0	81.3	30.7	35.6	66.4
비제조업	2012	-1.5	78.9	61.6	140.5	65.5	76.5	142.0
	2014	23.3	105.8	67.3	173.1	80.6	69.1	149.8
	2016	17.3	99.6	72.4	171.9	84.9	69.7	154.6
	2018	20.7	88.3	65.8	154.1	71.1	62.3	133.4
	평균	14.9	93.1	66.8	159.9	75.6	69.4	145.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주시의 순고용창출은 <표 27>에서와 같이 2013-2014년 가장 높은 54.6백명을 기록하였으나 2017-2018년에는 9.8백명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진입에 의한 고용 창출이 169.3백명에서 122.5백명으로 감소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속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나 소멸은 분석 기간 동안 변화폭이 매우 작으며, 퇴출에 의한 고용 감소도 2013-2014년 기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8>에서 경주시는 광·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 창출 비중이 분석기간 동안 매우 유사하다.

변화 추이는 차이가 있는데, 광·제조업은 2017-2018년이 부진한 반면, 비제조업은 2012년 이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비제조업 뿐만 아니라 광·제조업에서도 진입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특히 광·제조업은 2013-2014년 기간의 진입에 의한 고용 창출이 이전 기간인 2011-2012년 32.9백명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3.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4.6	4.6	4.7	9.3	3.0	1.7	4.7
	2014	8.9	8.3	6.8	15.1	3.6	2.6	6.2
	2016	8.0	7.7	8.7	16.3	6.0	2.4	8.4
	2018	6.8	7.6	7.9	15.6	6.0	2.8	8.7
	평균	7.1	7.0	7.0	14.1	4.6	2.4	7.0
대규모 (5인이상)	2012	16.3	28.3	35.0	63.3	20.6	26.3	47.0
	2014	22.5	55.2	28.2	83.4	29.0	32.0	61.0
	2016	10.2	38.9	31.2	70.0	24.8	35.0	59.8
	2018	-17.7	26.5	25.6	52.2	30.1	39.8	69.8
	평균	7.8	37.2	30.0	67.2	26.1	33.3	59.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12.7	43.2	27.8	71.0	39.4	18.9	58.3
	2014	23.7	57.4	36.2	93.6	45.7	24.2	69.9
	2016	19.9	51.7	37.1	88.8	46.7	22.2	68.9
	2018	20.2	51.6	31.6	83.2	43.7	19.3	63.0
	평균	19.1	51.0	33.2	84.1	43.9	21.2	65.0
대규모 (5인이상)	2012	-14.2	35.7	33.8	69.5	26.1	57.6	83.7
	2014	-0.4	48.4	31.1	79.5	34.9	44.9	79.9
	2016	-2.5	47.9	35.3	83.2	38.2	47.5	85.7
	2018	0.4	36.8	34.1	70.9	27.5	43.0	70.4
	평균	-4.2	42.2	33.6	75.8	31.7	48.2	79.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0>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5	2.1	1.1	3.2	1.0	0.7	1.7
	2014	1.9	3.3	1.3	4.6	1.4	1.3	2.7
	2016	1.8	3.2	1.7	4.8	2.0	1.0	3.0
	2018	0.8	2.8	0.8	3.7	1.9	1.0	2.9
	평균	1.5	2.8	1.2	4.1	1.6	1.0	2.6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9.0	30.8	38.4	69.2	22.8	27.3	50.2
	2014	29.7	60.2	33.7	93.9	30.9	33.3	64.2
	2016	16.7	43.2	38.3	81.5	28.4	36.5	64.8
	2018	-11.7	31.3	32.7	64.0	34.1	41.6	75.7
	평균	13.4	41.4	35.8	77.1	29.0	34.7	63.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7.0	31.9	11.8	43.7	26.4	10.4	36.7
	2014	7.9	37.4	14.6	52.0	29.5	14.6	44.1
	2016	2.9	33.2	10.7	43.9	29.1	11.9	41.0
	2018	9.2	32.4	9.5	41.9	23.8	8.9	32.7
	평균	6.7	33.7	11.6	45.4	27.2	11.4	38.6
고매출 (중위이상)	2012	-8.0	46.9	49.9	96.8	38.9	65.9	104.8
	2014	15.5	68.3	52.3	120.6	50.8	54.3	105.2
	2016	14.0	66.0	61.5	127.5	55.9	57.6	113.5
	2018	11.2	55.6	56.2	111.8	47.3	53.2	100.6
	평균	8.2	59.2	55.0	114.2	48.2	57.8	106.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29>를 통해 규모별로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를 세분화해보면, 광·제조업의 경우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의 순고용창출이 평균 7백명 초반 수준으로 유사하다. 이는 포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광·제조업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이 계속 사업체에서 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제조업도 인근에 위치한 포항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순일자리창출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창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포항과 마찬가지로 2011-2012년에 매우 부진한 순고용 창출이 나타난 이후 양(+)의 값으로 쉽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진행한 <표 30>을 살펴보면, 광·제조업의 경우 포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매출 광·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13.4백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광·제조업 순고용창출의 대부분이 이들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포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제조업 순고용창출의 상당 부분이 진입 사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2013-2014년 기간 이후 이 경로가 약화됨과 동시에 소멸되는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제조업은 고매출 사업체들의 2011-2012년 일자리 감소폭이 포항의 경우보다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매출 및 저매출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포항보다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6.3 김천시

<표 31>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4.1	44.3	33.0	77.4	35.5	37.8	73.3
2014	20.4	53.7	39.9	93.6	40.5	32.7	73.2
2016	35.4	65.9	49.3	115.2	35.6	44.2	79.8
2018	22.9	54.7	47.5	102.2	40.1	39.2	79.3
평균	20.7	54.7	42.4	97.1	37.9	38.5	76.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2>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3.5	14.1	9.1	23.2	9.2	10.6	19.8
	2014	4.9	14.7	14.8	29.5	14.8	9.8	24.6
	2016	4.5	11.4	11.6	23.0	6.9	11.7	18.6
	2018	2.7	10.9	10.0	20.8	8.8	9.3	18.2
	평균	3.9	12.8	11.4	24.2	9.9	10.4	20.3
비제조업	2012	0.6	30.2	23.9	54.2	26.3	27.2	53.5
	2014	15.6	39.0	25.1	64.2	25.7	22.9	48.6
	2016	30.9	54.5	37.6	92.1	28.8	32.5	61.2
	2018	20.3	43.9	37.5	81.4	31.2	29.9	61.1
	평균	16.8	41.9	31.1	73.0	28.0	28.1	56.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1>의 결과에 따르면 김천시의 순일자리 창출은 전기간 평균 20.7백명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2012년 이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진입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약 54.7백명으로 가장 활발하며,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42.4백명으로 두 번째로 절대적인 크기가 크다. 일자리 소멸은 퇴출 사업체와 계속 사업체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 유사한 값이 관측된다.

<표 32>의 산업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김천시의 순고용창출은 대부분 비제조업 분야에서 나

타난다.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은 전 기간 평균 3.9백명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16.8백명으로 약 4배 가량 크다.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기기간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제조업은 2012년 이전 기간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33>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6	1.1	1.1	2.3	0.9	0.8	1.7
	2014	1.3	1.9	1.8	3.7	1.4	1.0	2.4
	2016	2.3	1.8	3.0	4.8	1.7	0.8	2.5
	2018	1.8	1.9	2.1	4.0	1.6	0.6	2.2
	평균	1.5	1.7	2.0	3.7	1.4	0.8	2.2
대규모 (5인이상)	2012	2.9	13.0	8.0	21.0	8.3	9.8	18.1
	2014	3.6	12.8	13.0	25.8	13.4	8.8	22.2
	2016	2.2	9.6	8.7	18.3	5.1	10.9	16.0
	2018	0.8	9.0	7.9	16.8	7.3	8.7	16.0
	평균	2.4	11.1	9.4	20.5	8.5	9.5	18.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6.3	16.1	12.3	28.4	14.8	7.3	22.2
	2014	7.8	19.4	14.8	34.2	17.0	9.4	26.4
	2016	9.4	22.4	14.9	37.2	17.3	10.5	27.8
	2018	9.6	21.8	14.1	35.9	18.7	7.5	26.3
	평균	8.3	19.9	14.0	33.9	17.0	8.7	25.6
대규모 (5인이상)	2012	-5.6	14.1	11.6	25.7	11.5	19.9	31.4
	2014	7.8	19.6	10.4	30.0	8.8	13.5	22.3
	2016	21.5	32.1	22.8	54.9	11.5	21.9	33.4
	2018	10.6	22.1	23.4	45.5	12.5	22.3	34.8
	평균	8.6	22.0	17.0	39.0	11.1	19.4	30.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4>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2	0.9	0.5	1.4	0.6	0.7	1.3
	2014	0.4	1.0	1.0	2.0	0.9	0.7	1.6
	2016	0.7	0.9	1.0	1.9	0.9	0.4	1.3
	2018	0.1	1.0	0.5	1.5	0.9	0.5	1.4
	평균	0.4	0.9	0.8	1.7	0.8	0.6	1.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3.3	13.2	8.6	21.8	8.6	9.9	18.6
	2014	4.4	13.5	13.6	27.1	13.7	9.0	22.8
	2016	3.8	10.4	10.5	20.9	5.9	11.3	17.2
	2018	2.5	9.9	9.4	19.2	7.8	8.9	16.7
	평균	3.5	11.8	10.5	22.3	9.0	9.8	18.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4.6	12.4	6.4	18.8	10.0	4.1	14.1
	2014	2.9	13.6	6.6	20.2	11.4	5.9	17.3
	2016	2.1	14.1	4.7	18.8	10.6	6.0	16.6
	2018	4.7	13.4	4.6	17.9	9.8	3.4	13.3
	평균	3.6	13.4	5.6	18.9	10.5	4.9	15.3
고매출 (중위이상)	2012	-3.8	17.9	17.7	35.6	16.2	23.2	39.4
	2014	15.9	33.5	22.7	56.1	17.7	22.5	40.2
	2016	28.8	40.2	33.0	73.1	18.0	26.3	44.3
	2018	15.3	30.3	32.9	63.2	21.3	26.6	47.9
	평균	14.1	30.4	26.6	57.0	18.3	24.6	42.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3>에서 산업별 분석 결과를 규모별로 확장하면, 전체적인 순일자리창출 비중은 대규모와 소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광·제조업의 경우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진입 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소멸은 주로 사업체 퇴출보다는 계속 사업체에 의해 발생한다. 2013-2014년의 경우 사업체 퇴출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13.4백명으로 다소

높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나타난 활발한 고용 창출에 의해 상쇄되었다. 비제조업의 경우,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 집단 모두에서 양호한 순일자리창출이 관측된다. 두 그룹 모두에서 대체로 2012년 이전보다 개선된 일자리카탈이 나타나고 있다.

<표 34>의 분석 결과를 통해 매출 기준으로 고용 창출 구조를 재검토하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고매출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김천시는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분석 기간 동안 약 26.9%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중 평균 수준이며,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6% 정도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 노동 시장 자체가 특별히 광·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교통 여건상의 이점과 혁신도시 개발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비제조업과 광·제조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준의 순고용창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6.4 안동시

<표 35>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4.1	53.4	42.1	95.5	47.1	52.5	99.7
2014	11.9	65.0	47.6	112.6	51.3	49.5	100.7
2016	10.3	63.8	56.6	120.5	43.7	66.5	110.2
2018	7.9	58.3	47.4	105.6	49.0	48.8	97.8
평균	6.5	60.1	48.4	108.6	47.8	54.3	102.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6>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0.4	4.2	3.8	8.0	3.3	4.3	7.6
	2014	1.4	4.9	4.3	9.2	4.2	3.6	7.8
	2016	-0.5	3.4	5.0	8.4	3.2	5.7	8.9
	2018	4.0	7.4	4.3	11.8	5.8	1.9	7.7
	평균	1.3	5.0	4.4	9.3	4.1	3.9	8.0
비제조업	2012	-4.5	49.2	38.4	87.5	43.8	48.3	92.1
	2014	10.5	60.1	43.3	103.5	47.1	45.9	93.0
	2016	10.8	60.5	51.6	112.0	40.5	60.8	101.3
	2018	3.9	50.8	43.0	93.9	43.2	46.8	90.0
	평균	5.1	55.2	44.1	99.2	43.6	50.4	94.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5>의 결과를 보면 안동시의 순일자리창출은 연평균 6.5백명이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창출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진입이, 일자리 소멸 측면에서는 계속 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에 정리된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비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이 광·제조업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5.1백명을 기록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공장 건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신규 고용 창출 역시 비제조업 사업체

<표 37>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0	0.9	1.2	2.1	1.1	0.9	2.1
	2014	1.2	1.7	1.6	3.3	1.1	1.0	2.1
	2016	1.2	1.5	1.9	3.3	1.3	0.8	2.2
	2018	1.5	2.1	1.7	3.8	1.5	0.7	2.3
	평균	1.0	1.5	1.6	3.1	1.3	0.9	2.1
대규모 (5인이상)	2012	0.4	3.3	2.6	5.9	2.2	3.3	5.5
	2014	0.2	3.2	2.7	5.9	3.1	2.6	5.7
	2016	-1.7	1.9	3.2	5.1	1.9	4.9	6.8
	2018	2.5	5.3	2.7	8.0	4.3	1.2	5.5
	평균	0.4	3.4	2.8	6.2	2.9	3.0	5.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11.2	25.5	17.3	42.8	24.8	6.8	31.6
	2014	18.7	33.0	23.8	56.8	26.7	11.4	38.1
	2016	12.9	28.6	27.0	55.7	26.0	16.8	42.8
	2018	6.9	27.3	19.1	46.4	25.3	14.2	39.5
	평균	12.4	28.6	21.8	50.4	25.7	12.3	38.0
대규모 (5인이상)	2012	-15.8	23.7	21.0	44.7	19.0	41.5	60.4
	2014	-8.2	27.2	19.5	46.7	20.4	34.5	54.9
	2016	-2.1	31.8	24.5	56.4	14.5	43.9	58.5
	2018	-3.0	23.6	23.9	47.5	17.9	32.7	50.6
	평균	-7.3	26.6	22.3	48.8	17.9	38.2	56.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광·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이 사업체 진입을 중심으로 2017-2018년 4.0백명을 기록한 데에 비해, 비제조업 분야의 순일자리창출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10백명 이상에서 2017-2018년 3.9명까지 감소하였다. 안동시의 미약한 광·제조업 기반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광·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

문에, 비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2012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진입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38>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0	0.8	0.6	1.4	0.8	0.5	1.4
	2014	0.4	1.1	0.7	1.8	0.8	0.6	1.4
	2016	0.3	0.9	0.6	1.5	0.8	0.5	1.2
	2018	0.2	1.2	0.3	1.5	0.9	0.4	1.3
	평균	0.2	1.0	0.6	1.6	0.8	0.5	1.3
고매출 (중위이상)	2012	0.4	3.4	3.1	6.5	2.4	3.7	6.1
	2014	0.1	3.7	3.6	7.3	3.3	3.8	7.1
	2016	0.8	2.4	4.4	6.8	2.4	3.6	6.0
	2018	2.6	6.3	4.0	10.2	5.0	2.7	7.7
	평균	1.0	4.0	3.8	7.7	3.3	3.5	6.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2.2	20.0	7.8	27.7	16.8	8.7	25.5
	2014	3.8	21.6	8.9	30.4	17.9	8.7	26.6
	2016	4.5	19.5	7.6	27.1	15.4	7.2	22.6
	2018	3.9	17.7	5.3	23.0	13.8	5.3	19.0
	평균	3.6	19.7	7.4	27.1	16.0	7.5	23.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9.3	29.1	30.5	59.6	26.9	42.0	68.9
	2014	4.6	38.6	34.4	73.0	29.1	39.3	68.4
	2016	21.8	40.8	44.0	84.8	25.3	37.7	63.0
	2018	3.0	33.0	37.8	70.8	29.6	38.2	67.8
	평균	5.0	35.4	36.7	72.1	27.7	39.3	67.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37>의 규모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광·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에 의한 순일자리창출

이 대규모 사업체를 상회하여 미미한 광·제조업 기반을 반증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에서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안동시는 인구 규모 및 고령화 수준 측면에서 다른 경상북도 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부실한 광·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비제조업 사업체들의 성장 여건 조성도 함께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표 38>에 정리한대로 고매출 사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매출 사업체들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6.5 구미시

<표 39>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25.4	215.7	184.4	400.1	196.3	178.5	374.7
2014	41.0	258.3	183.1	441.3	190.5	209.9	400.3
2016	44.8	213.7	196.3	410.0	170.5	194.7	365.2
2018	-19.1	186.1	164.7	350.8	175.1	194.9	370.0
평균	23.0	218.4	182.1	400.6	183.1	194.5	377.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0>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3.7	72.9	95.3	168.2	83.4	71.1	154.5
	2014	20.8	98.6	72.5	171.2	60.3	90.1	150.3
	2016	-24.7	54.4	65.3	119.8	50.4	94.1	144.5
	2018	-28.5	50.2	62.2	112.4	48.0	93.0	140.9
	평균	-4.7	69.1	73.8	142.9	60.5	87.1	147.6
비제조업	2012	11.7	142.8	89.1	231.9	112.9	107.3	220.2
	2014	20.2	159.6	110.5	270.2	130.2	119.8	250.0
	2016	69.5	159.2	131.0	290.2	120.1	100.6	220.7
	2018	9.3	135.9	102.5	238.4	127.1	101.9	229.1
	평균	27.7	149.4	108.3	257.7	122.6	107.4	230.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구미시의 순일자리창출은 <표 3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6년 이전까지, 2011-2012년 25.4백명, 2013-2014년 41.0백명, 2015-2016년 44.8백명으로 꾸준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2017-2018년 기간 동안 약 19.1백명이 순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소멸은 약 370백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계속 사업체의 신규 고용과 사업체 진입에 의한 고용이 각각 약 30백명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표 40>에서 산업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이 2015-2016년 이후 지속

적으로 20백명 이상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완충 작용을 하던 비제조업 고용이 일자리 창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로 인해 인구 고령화 수준 역시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해 보면, 구미시의 경우 광·제조업 업황의 악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비제조업 지역 시장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 41>의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대규모 사업체들의 고용 창출이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다. 광·제조업의 경우 2015-2016년 기간 이후 급격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며, 5인 이상 비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2015-2016년 일시적으로 순일자리창출이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기간에서는 계속하여 부진한 모습이 관측된다. 대규모 광·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의 크기가 2012년 이전 147.4백명에서 2017-2018년 130.0백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 창출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즉 대규모 광·제조업 그룹에서는 고용의 동학적 변화폭이 2012년 이전에 비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순고용창출의 추세적 하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표 42>의 매출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광·제조업 고용 감소 추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나타난다. 고매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2012년 이전 163.8백명에서 2017-2018년 108.2백명으로 약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나타난 일자리 소멸은 2012년 이전 151.6백명, 2017-2018년 138.6이다. 저매출 광·제조업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8백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저매출과 고매출 사업체 모두에서 유사한 수준의 순일자리증가가 나타난다. 다만 고매출 비제조업 사업체의 일자리창출 역량은 2015-2016년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높게 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2017-2018년의 낮은 추정치를 고려하면 하방 리스크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1>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7.2	7.6	6.8	14.4	4.2	3.0	7.2
	2014	17.0	11.5	17.0	28.4	7.6	3.9	11.4
	2016	11.9	10.1	12.4	22.5	7.1	3.6	10.6
	2018	8.8	9.3	10.4	19.7	7.0	3.9	10.9
	평균	11.2	9.6	11.6	21.3	6.5	3.6	10.0
대규모 (5인이상)	2012	6.4	65.4	88.4	153.8	79.2	68.2	147.4
	2014	3.8	87.2	55.6	142.7	52.7	86.2	138.9
	2016	-36.6	44.3	53.0	97.3	43.3	90.5	133.9
	2018	-37.3	40.9	51.8	92.7	40.9	89.1	130.0
	평균	-15.9	59.4	62.2	121.6	54.0	83.5	137.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25.0	70.0	40.8	110.9	57.4	28.5	85.9
	2014	41.6	81.1	60.8	141.9	68.1	32.2	100.3
	2016	57.1	82.1	65.7	147.8	64.1	26.6	90.7
	2018	30.4	76.1	50.2	126.4	66.0	30.0	96.0
	평균	38.5	77.3	54.4	131.7	63.9	29.3	93.2
대규모 (5인이상)	2012	-13.3	72.7	48.3	121.0	55.5	78.8	134.3
	2014	-21.5	78.5	49.7	128.3	62.2	87.6	149.7
	2016	12.4	77.1	65.3	142.4	56.0	74.0	130.0
	2018	-21.0	59.8	52.3	112.0	61.1	72.0	133.1
	평균	-10.8	72.0	53.9	125.9	58.7	78.1	136.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2> 안동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2.4	3.8	1.1	5.0	1.7	0.8	2.6
	2014	1.3	3.4	1.8	5.3	2.7	1.2	3.9
	2016	2.3	3.4	1.6	5.0	1.9	0.8	2.7
	2018	1.1	3.0	0.8	3.8	1.7	1.0	2.7
	평균	1.8	3.4	1.3	4.8	2.0	1.0	3.0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2.2	69.7	94.2	163.8	81.0	70.6	151.6
	2014	19.7	95.4	70.8	166.2	58.0	88.5	146.5
	2016	-27.9	50.8	63.8	114.7	48.9	93.7	142.6
	2018	-30.4	46.5	61.7	108.2	46.5	92.1	138.6
	평균	-6.6	65.6	72.6	138.2	58.6	86.2	144.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9.3	53.5	17.8	71.2	36.5	15.5	52.0
	2014	11.7	50.6	19.7	70.4	40.5	18.2	58.7
	2016	20.1	52.1	15.9	68.1	34.9	13.1	48.0
	2018	9.2	42.9	12.7	55.6	33.9	12.5	46.4
	평균	15.1	49.8	16.5	66.3	36.4	14.8	51.2
고매출 (중위이상)	2012	-7.9	89.4	71.6	161.0	76.6	92.3	168.9
	2014	4.4	108.8	86.2	195.0	89.1	101.5	190.7
	2016	49.5	107.3	114.7	221.9	85.0	87.5	172.4
	2018	-3.6	89.1	90.0	179.1	93.6	89.1	182.7
	평균	10.6	98.7	90.6	189.3	86.1	92.6	178.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6.6 영주시

<표 43>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8.4	35.7	28.5	64.1	28.1	27.6	55.7
2014	6.2	42.9	31.6	74.5	29.4	39.0	68.3
2016	10.2	34.6	35.3	69.9	29.8	29.9	59.7
2018	12.9	40.3	35.0	75.3	33.1	29.3	62.4
평균	9.4	38.4	32.6	71.0	30.1	31.4	61.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4>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9	2.7	4.6	7.2	2.3	3.1	5.4
	2014	3.0	5.3	5.4	10.7	2.1	5.6	7.7
	2016	2.1	3.4	6.5	9.8	2.6	5.2	7.7
	2018	3.0	5.3	4.8	10.1	3.3	3.8	7.1
	평균	2.5	4.2	5.3	9.5	2.6	4.4	7.0
비제조업	2012	6.6	33.0	23.9	56.9	25.8	24.5	50.3
	2014	3.2	37.6	26.2	63.8	27.3	33.4	60.7
	2016	8.1	31.2	28.8	60.0	27.2	24.7	52.0
	2018	10.0	35.0	30.2	65.3	29.8	25.5	55.3
	평균	6.9	34.2	27.3	61.5	27.5	27.0	54.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3>에 정리한 영주시의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평균 약 9.4백명으로, 분석 기간 동안 완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진입 사업체의 순고용창출이 평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계속 사업체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퇴출에 의한 고용 소멸은 대체로 분석 기간 동안 일정하다가 2017-2018년 소폭 상승했으며,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은 2013-2014 기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4>의 산업별 분해 결과에 따르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완만한 순일자리창출 규

모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비제조업은 2013-2014년 일시적인 순일자리창출 감소가 있었으나 2017-2018년 들어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10.0백명의 순일자리창출이 측정된다.

<표 45>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5	1.0	1.4	2.5	1.1	0.9	2.0
	2014	0.7	1.2	1.9	3.1	1.0	1.4	2.3
	2016	1.0	1.4	1.7	3.1	1.3	0.8	2.1
	2018	1.5	1.3	1.6	3.0	0.9	0.5	1.4
	평균	0.9	1.2	1.7	2.9	1.1	0.9	2.0
대규모 (5인이상)	2012	1.4	1.6	3.1	4.8	1.2	2.2	3.4
	2014	2.3	4.1	3.5	7.6	1.1	4.2	5.3
	2016	1.1	2.0	4.8	6.8	1.3	4.4	5.6
	2018	1.4	4.0	3.1	7.1	2.4	3.3	5.7
	평균	1.5	2.9	3.6	6.6	1.5	3.5	5.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7.7	17.1	13.2	30.3	13.7	8.9	22.6
	2014	8.2	20.0	16.8	36.8	17.0	11.7	28.7
	2016	8.4	18.3	16.5	34.8	16.9	9.5	26.4
	2018	14.0	20.7	17.7	38.4	17.4	6.9	24.3
	평균	9.6	19.0	16.1	35.1	16.2	9.2	25.5
대규모 (5인이상)	2012	-1.2	15.9	10.7	26.6	12.1	15.6	27.7
	2014	-5.0	17.6	9.4	27.0	10.3	21.7	32.0
	2016	-0.3	13.0	12.3	25.3	10.4	15.2	25.6
	2018	-4.1	14.3	12.6	26.9	12.4	18.6	31.0
	평균	-2.6	15.2	11.2	26.4	11.3	17.8	29.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5>를 통해 광·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구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

체 모두에서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 환율과 같은 무역 환경의 변화에 고용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지역의 광·제조업 사업체들과 달리 영주시 소재 광·제조업 사업체의 고용 동향은 그 변화폭이 대체로 작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비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산업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6> 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5	1.0	0.8	1.7	0.7	0.5	1.2
	2014	0.0	0.8	1.0	1.7	0.6	1.1	1.7
	2016	0.2	0.9	0.6	1.5	0.8	0.5	1.4
	2018	0.4	0.9	0.5	1.4	0.6	0.4	1.0
	평균	0.3	0.9	0.7	1.6	0.7	0.6	1.3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3	1.6	3.7	5.3	1.5	2.5	4.0
	2014	2.9	4.4	4.4	8.8	1.5	4.4	5.9
	2016	1.9	2.4	5.8	8.2	1.7	4.5	6.3
	2018	2.5	4.4	4.1	8.6	2.6	3.5	6.1
	평균	2.1	3.2	4.5	7.7	1.8	3.7	5.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3.7	13.0	6.5	19.5	10.6	5.2	15.8
	2014	2.9	14.8	7.7	22.4	11.6	8.0	19.5
	2016	1.7	12.3	5.5	17.7	10.7	5.3	16.0
	2018	6.3	14.5	7.4	21.9	11.0	4.5	15.5
	평균	3.7	13.6	6.7	20.4	11.0	5.8	16.7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9	19.9	17.4	37.2	15.1	19.3	34.4
	2014	0.0	22.8	18.5	41.3	15.9	25.4	41.3
	2016	6.3	18.7	23.3	42.1	16.6	19.2	35.8
	2018	3.5	20.4	22.8	43.2	18.8	20.9	39.7
	평균	3.2	20.5	20.5	41.0	16.6	21.2	37.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6>의 매출 규모별 분석에서도 집단간 뚜렷한 이질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모든 집단에서 활발한 순일자리창출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자리창출의 변동폭 또한 대체로 작다. 영주시의 경우, 대체로 안정적인 거래 및 유통망을 보유한 광·제조업 사업체가 일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주로 소규모 사업체들이 지역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지역 중소형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7 상주시

<표 47>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8.3	29.8	23.4	53.3	19.2	25.8	44.9
2014	10.3	32.9	30.4	63.3	24.7	28.3	53.0
2016	4.9	25.7	25.5	51.2	21.1	25.2	46.3
2018	6.3	24.9	24.3	49.1	20.3	22.5	42.9
평균	7.5	28.3	25.9	54.2	21.3	25.5	46.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8>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2.7	9.4	4.2	13.6	2.2	8.8	10.9
	2014	0.5	7.0	4.5	11.5	5.8	5.3	11.0
	2016	0.2	3.2	3.5	6.7	3.1	3.3	6.5
	2018	2.0	4.3	3.8	8.1	2.8	3.3	6.1
	평균	1.4	6.0	4.0	10.0	3.5	5.2	8.6
비제조업	2012	5.7	20.4	19.2	39.6	17.0	17.0	34.0
	2014	9.8	25.9	25.9	51.7	18.9	23.1	41.9
	2016	4.7	22.5	21.9	44.5	18.0	21.8	39.8
	2018	4.3	20.6	20.5	41.1	17.6	19.3	36.8
	평균	6.1	22.3	21.9	44.2	17.8	20.3	38.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상주시의 순일자리창출은 연평균 약 7.5백명이며, 2014년 이후 기간에서 소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모든 개별 항목에서도 전체 순일자리창출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진입사업체가, 일자리 소멸 관점에서는 계속 사업체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주시는 영주시와 마찬가지로 고용, 인구 규모 및 고령화 정도, 광·제조업 고용 비중 등 여러 측면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순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조금 낮고, 추세적 하락이 관찰되

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8>의 산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이 광·제조업보다 평균적으로 약 4배 정도 높은 6.1백명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체 진입을 통한 고용 창출과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소멸 등 일자리 창출 구조는 산업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49>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7	0.7	1.4	2.1	0.7	0.8	1.4
	2014	1.7	1.5	2.2	3.7	1.0	1.0	2.0
	2016	1.0	1.2	1.7	2.9	1.1	0.8	1.9
	2018	1.4	1.5	1.6	3.1	1.2	0.5	1.7
	평균	1.2	1.2	1.7	3.0	1.0	0.8	1.8
대규모 (5인이상)	2012	2.0	8.7	2.8	11.5	1.5	8.0	9.5
	2014	-1.2	5.5	2.4	7.8	4.8	4.2	9.0
	2016	-0.8	2.0	1.8	3.8	2.1	2.5	4.6
	2018	0.6	2.8	2.2	5.0	1.6	2.8	4.4
	평균	0.2	4.7	2.3	7.0	2.5	4.4	6.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5.0	11.5	9.9	21.4	10.4	5.9	16.4
	2014	6.2	13.7	11.6	25.3	11.6	7.4	19.1
	2016	4.7	11.6	10.5	22.1	10.7	6.7	17.5
	2018	4.1	11.7	8.1	19.8	10.8	4.9	15.7
	평균	5.0	12.1	10.0	22.2	10.9	6.3	17.2
대규모 (5인이상)	2012	0.6	8.9	9.3	18.2	6.5	11.1	17.6
	2014	3.6	12.2	14.2	26.4	7.3	15.6	22.9
	2016	0.0	11.0	11.4	22.3	7.3	15.1	22.3
	2018	0.2	8.9	12.4	21.3	6.8	14.3	21.1
	평균	1.1	10.2	11.8	22.1	6.9	14.0	21.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0> 상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3	0.6	0.8	1.4	0.5	0.6	1.1
	2014	0.0	0.9	0.7	1.6	0.8	0.8	1.7
	2016	-0.2	0.7	0.5	1.2	0.9	0.5	1.4
	2018	0.4	0.9	0.4	1.4	0.6	0.4	1.0
	평균	0.1	0.8	0.6	1.4	0.7	0.6	1.3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4	8.7	3.4	12.1	1.6	8.1	9.7
	2014	0.5	6.0	3.7	9.7	4.8	4.3	9.2
	2016	0.5	2.5	3.1	5.6	2.3	2.9	5.1
	2018	1.6	3.3	3.3	6.6	2.1	2.8	4.9
	평균	1.3	5.1	3.4	8.5	2.7	4.5	7.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2.0	8.7	3.9	12.6	7.1	3.5	10.6
	2014	2.4	9.5	5.4	14.9	8.1	4.3	12.4
	2016	0.4	8.2	3.2	11.4	7.4	3.5	11.0
	2018	1.2	7.3	2.3	9.7	6.3	2.1	8.5
	평균	1.5	8.4	3.7	12.1	7.2	3.4	10.6
고매출 (중위이상)	2012	3.6	11.6	15.4	26.9	9.8	13.5	23.3
	2014	7.3	16.1	20.3	36.4	10.8	18.4	29.1
	2016	4.4	14.4	18.8	33.2	10.6	18.2	28.8
	2018	3.1	13.3	18.3	31.5	11.4	17.0	28.4
	평균	4.6	13.8	18.2	32.0	10.6	16.8	27.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49>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로 산업별 분석 결과를 세분화하면, 광·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그룹과 이상 그룹의 순일자리창출이 양측 모두에서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 항목별 일자리 흐름의 절대적 크기 역시 대체로 1~3백명 수준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상주시의 광·제조업 사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산업 구성 측면에서도 앞서 살펴본 영주시와 상주시는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비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고용 창출이 5인 이상 그룹보다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개별 항목을 통해 나타나는 고용 창출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소규모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50>의 매출 수준별 분석에서는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고매출 그룹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제조업의 경우 고매출 사업체들의 경우에도 진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계속 사업체보다 활발한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계속 사업체가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양 측면에서 모두 높은 중요성을 갖는 차이가 있다.

6.8 문경시

<표 51>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5.0	18.3	19.4	37.8	14.9	17.9	32.8
2014	5.7	24.7	22.0	46.8	18.2	22.8	41.1
2016	3.2	19.1	24.5	43.6	18.3	22.1	40.4
2018	6.1	20.9	18.8	39.8	17.4	16.2	33.6
평균	5.0	20.8	21.2	42.0	17.2	19.8	37.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2>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1	2.5	3.1	5.5	2.0	2.4	4.4
	2014	0.3	3.4	2.9	6.3	3.1	2.8	6.0
	2016	0.0	3.0	2.2	5.2	2.6	2.6	5.2
	2018	1.4	3.7	2.8	6.6	2.3	2.9	5.2
	평균	0.7	3.2	2.7	5.9	2.5	2.7	5.2
비제조업	2012	3.9	15.9	16.4	32.3	12.9	15.5	28.4
	2014	5.4	21.3	19.2	40.5	15.1	20.0	35.1
	2016	3.2	16.1	22.3	38.3	15.7	19.5	35.2
	2018	4.7	17.2	16.0	33.2	15.1	13.4	28.5
	평균	4.3	17.6	18.5	36.1	14.7	17.1	31.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1>에서 문경시의 순일자리창출은 연평균 5.0백명이며, 3.2백명을 기록한 2015-2016년 기간을 제외하면 5-6백명의 일자리 순창출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구조는 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접한 상주시 및 영주시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표 52>의 산업별 분석 결과 역시 인근 행정구역에서와 유사하다. 광·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은 2013-2014, 2015-2016년 기간 동안 1백명 미만으로 부진하게 나타났으나 2017-2018년에 1.4백명의

로 증가하여 2012년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동안 비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은 광·제조업 평균보다 약 6배 가량 높은 4.3백명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일차리 창출 및 소멸의 절대적인 크기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표 53>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2	0.7	0.8	1.5	0.7	0.6	1.3
	2014	0.9	1.1	1.0	2.1	0.7	0.5	1.2
	2016	0.3	0.8	0.9	1.7	0.9	0.5	1.4
	2018	1.1	1.2	1.0	2.2	0.8	0.4	1.1
	평균	0.6	1.0	0.9	1.9	0.8	0.5	1.3
대규모 (5인이상)	2012	0.9	1.8	2.3	4.1	1.3	1.8	3.1
	2014	-0.5	2.3	1.9	4.2	2.4	2.3	4.7
	2016	-0.3	2.1	1.4	3.5	1.7	2.1	3.8
	2018	0.3	2.5	1.8	4.3	1.5	2.5	4.0
	평균	0.1	2.2	1.8	4.0	1.7	2.2	3.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3.4	8.9	7.7	16.6	7.9	5.3	13.2
	2014	6.1	12.0	9.8	21.8	9.6	6.1	15.7
	2016	3.3	10.8	8.5	19.3	10.5	5.6	16.1
	2018	3.5	11.1	6.3	17.4	9.6	4.2	13.9
	평균	4.1	10.7	8.1	18.8	9.4	5.3	14.7
대규모 (5인이상)	2012	0.5	7.0	8.6	15.6	5.0	10.1	15.2
	2014	-0.7	9.3	9.4	18.7	5.5	13.9	19.4
	2016	-0.1	5.3	13.8	19.0	5.3	13.9	19.1
	2018	1.2	6.1	9.7	15.8	5.5	9.1	14.6
	평균	0.2	6.9	10.4	17.3	5.3	11.8	17.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4>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1	0.4	0.4	0.8	0.4	0.4	0.7
	2014	0.1	0.6	0.4	0.9	0.5	0.3	0.8
	2016	-0.1	0.6	0.2	0.8	0.6	0.3	0.9
	2018	0.4	0.7	0.3	1.0	0.4	0.2	0.6
	평균	0.1	0.6	0.3	0.9	0.5	0.3	0.7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0	2.0	2.7	4.6	1.6	2.0	3.6
	2014	0.1	2.7	2.4	5.1	2.5	2.5	5.1
	2016	0.1	2.4	2.0	4.4	2.0	2.3	4.2
	2018	1.0	2.9	2.5	5.4	1.8	2.6	4.4
	평균	0.5	2.5	2.4	4.9	2.0	2.4	4.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5	6.9	3.2	10.1	5.6	2.9	8.6
	2014	2.7	8.5	4.2	12.7	6.3	3.6	9.9
	2016	0.0	7.2	2.8	10.0	6.8	3.2	10.0
	2018	1.4	6.9	1.9	8.8	5.5	1.9	7.4
	평균	1.4	7.4	3.0	10.4	6.1	2.9	9.0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3	8.8	13.1	21.9	7.3	12.3	19.6
	2014	2.6	12.7	14.9	27.6	8.7	16.3	24.9
	2016	3.2	8.8	19.5	28.2	8.9	16.1	25.0
	2018	3.2	10.1	14.1	24.3	9.5	11.5	21.0
	평균	2.8	10.1	15.4	25.5	8.6	14.1	22.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3>에서 규모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문경시의 경우도 인접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5인 미만 사업체를 통한 순일자리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광·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광·제조업의 경우 5인 이상 그룹에서도 진입 사업체의 역할이 계속 사업체보다 중요한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5인 이상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창

출이 진입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보다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대규모 계속 사업체의 경우 일자리 소멸 측면에서도 퇴출 사업체보다 2배 이상 큰 일자리 소멸을 유발하고 있다. <표 54>의 결과를 통해 매출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매출 집단의 순고용창출이 저매출 집단보다 소폭 양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고용 규모별 분석 결과에서와 유사하게 비제조업의 경우 고매출 사업체들의 경우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진입에 비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광·제조업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문경시의 경우 현재는 사양산업으로 볼 수 있는 석탄 산업 등 광공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개편되고 있고,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시설이나 기업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는 영주시와 달리 비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 사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 및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체의 성장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6.9 경산시, 청도군

<표 55>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43.1	108.5	97.2	205.7	74.5	88.2	162.7
2014	54.5	139.7	106.3	246.0	90.9	100.6	191.5
2016	51.6	123.3	118.3	241.6	96.4	93.7	190.1
2018	13.6	123.3	95.8	219.1	100.7	104.8	205.6
평균	40.7	123.7	104.4	228.1	90.6	96.8	187.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6>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25.3	32.9	33.3	66.3	16.4	24.5	40.9
	2014	24.7	44.5	34.1	78.6	23.7	30.2	53.9
	2016	10.7	29.2	35.4	64.6	23.8	30.2	53.9
	2018	-4.2	23.8	27.7	51.6	23.0	32.7	55.7
	평균	14.1	32.6	32.7	65.3	21.7	29.4	51.1
비제조업	2012	17.7	75.6	63.9	139.5	58.0	63.7	121.7
	2014	29.8	95.2	72.2	167.4	67.2	70.4	137.6
	2016	40.9	94.1	82.9	177.0	72.6	63.5	136.1
	2018	17.7	99.5	68.1	167.6	77.7	72.1	149.8
	평균	26.5	91.1	71.8	162.9	68.9	67.4	136.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산시와 청도군은 모두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행정구역이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의 위성 도시 성격이 강하며, 대구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청도군은 인구 약 4만명의 소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분석에 함께 포함하였다. <표 55>에서처럼 경산시 및 청도군은 2016년 이전까지 연평균 약 5천명의 일자리가 순 창출되었으나, 2017-2018년 기간에는 13.6백명으로 창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업체 퇴출 및 계속 사업체의 고용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이 2015-2016년 118.3백명에서 2017-2018년 95.8백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나타났다.

<표 57>의 산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소멸은 주로 비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분야의 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 창출 경로가 모든 산업에서 부실함에 작동함에 따라 2017-2018년의 낮은 순일자리증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7>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4.2	4.6	5.6	10.2	3.2	2.8	6.0
	2014	7.8	8.8	7.2	16.1	4.9	3.3	8.3
	2016	10.3	9.2	9.4	18.5	5.5	2.7	8.2
	2018	6.9	7.1	8.9	16.0	5.9	3.2	9.1
	평균	7.3	7.4	7.8	15.2	4.9	3.0	7.9
대규모 (5인이상)	2012	21.2	28.3	27.8	56.1	13.2	21.7	34.9
	2014	16.8	35.6	26.9	62.5	18.8	26.9	45.7
	2016	0.4	20.1	26.0	46.1	18.3	27.5	45.8
	2018	-11.0	16.7	18.9	35.6	17.1	29.5	46.6
	평균	6.8	25.2	24.9	50.1	16.8	26.4	43.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16.6	41.0	28.9	69.9	34.8	18.5	53.3
	2014	25.5	54.7	34.3	88.9	41.3	22.1	63.4
	2016	31.5	52.3	41.7	94.0	43.5	19.0	62.5
	2018	25.5	54.6	32.5	87.1	43.7	17.9	61.6
	평균	24.8	50.7	34.3	85.0	40.8	19.4	60.2
대규모 (5인이상)	2012	1.1	34.6	35.0	69.5	23.2	45.2	68.4
	2014	4.3	40.5	37.9	78.4	25.9	48.3	74.1
	2016	9.4	41.7	41.3	83.0	29.1	44.6	73.6
	2018	-7.7	44.9	35.6	80.5	34.1	54.2	88.2
	평균	1.8	40.4	37.4	77.9	28.0	48.1	76.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8> 경산시, 청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1	1.8	1.4	3.3	1.2	1.0	2.2
	2014	1.8	3.1	1.7	4.8	1.8	1.2	3.0
	2016	2.6	3.9	1.6	5.5	2.1	0.8	2.9
	2018	1.5	3.0	1.3	4.3	1.8	1.0	2.8
	평균	1.7	3.0	1.5	4.5	1.7	1.0	2.7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4.2	31.0	31.9	62.8	15.0	23.6	38.6
	2014	22.4	41.0	32.0	73.0	21.7	28.9	50.6
	2016	8.0	25.2	33.6	58.8	21.8	29.0	50.8
	2018	-6.3	20.7	26.2	46.9	21.1	32.1	53.2
	평균	12.1	29.5	30.9	60.4	19.9	28.4	48.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7.9	30.7	11.4	42.1	23.5	10.7	34.2
	2014	8.1	34.2	14.2	48.4	26.7	13.6	40.3
	2016	12.2	34.2	12.1	46.2	24.9	9.1	34.1
	2018	12.9	34.0	10.1	44.1	23.5	7.8	31.2
	평균	10.3	33.3	11.9	45.2	24.7	10.3	35.0
고매출 (중위이상)	2012	9.1	44.5	52.1	96.6	34.4	53.1	87.5
	2014	21.8	61.2	57.5	118.6	40.4	56.4	96.8
	2016	28.4	59.7	71.2	131.0	47.7	54.9	102.6
	2018	5.3	65.5	58.2	123.7	54.2	64.2	118.4
	평균	16.1	57.7	59.7	117.5	44.2	57.1	101.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57>의 규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2018년 기간의 경우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5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수 감소가 나타난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도 이전 기간에 비해 축소되는 양상이지만, 5인 이상 사업체에서처럼 음(-)의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 앞선 분석에서처럼, 이와 같은 고용 감소는 비제조업의 진입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경산시의 순일자리창출은 2018년 기간까지 여전히 양의 값이지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순고용창출이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대규모 사업체에서 나타난 고용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8>에서 매출 수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1-2018년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의 경우 고매출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이 저매출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 규모를 상회한다. 다만 규모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2017-2018년 기간의 순고용창출 규모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의 2018년 이후 고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10 영천시, 군위군

<표 59>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15.9	44.0	45.7	89.7	30.3	43.6	73.9
2014	27.4	70.0	48.4	118.4	42.0	49.0	91.0
2016	10.9	54.5	54.3	108.8	46.5	51.4	97.9
2018	-0.6	44.0	44.7	88.7	43.3	46.0	89.3
평균	13.4	53.1	48.3	101.4	40.5	47.5	88.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0>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7.8	12.6	17.5	30.2	7.2	15.1	22.3
	2014	15.8	25.9	17.8	43.6	10.7	17.1	27.8
	2016	6.4	16.7	20.6	37.3	12.5	18.4	30.9
	2018	-1.4	13.1	16.8	29.9	13.7	17.6	31.4
	평균	7.2	17.1	18.2	35.3	11.0	17.1	28.1
비제조업	2012	8.0	31.4	28.2	59.6	23.1	28.5	51.5
	2014	11.6	44.2	30.6	74.8	31.3	31.8	63.2
	2016	4.6	37.8	33.7	71.5	33.9	33.0	66.9
	2018	0.8	30.9	27.8	58.7	29.5	28.4	57.9
	평균	6.2	36.0	30.1	66.1	29.5	30.4	59.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영천시와 군위군(이하 영천시)는 각각 구미시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행정구역이다. <표 59>의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2013-2014년에 가장 크게 추정되었고,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17-2018년에는 -0.6백명의 고용 순감소가 나타난다. 2013-2014년의 높은 순일자리창출은 다른 기간보다 높은 진입 사업체의 고용을 통해 달성되었으나, 이후 진입 사업체 고용의 점진적인 감소가 이어지며 2012년과 동일한 44.0백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체 퇴출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30.3백명에서 43.3백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진한 일자리 창출이 나타난다.

<표 60>에서와 같이 산업별 고용 창출 구조의 이질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광·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순고용 창출은 분석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유사하며, 2013-2014년 이후 전체적인 고용 동학의 역동성 감소가 일어나는 부분도 질적인 차이가 없다.

<표 61>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2.9	2.6	3.4	6.0	1.6	1.4	3.0
	2014	5.0	4.4	4.5	8.9	2.4	1.6	4.0
	2016	4.0	3.8	4.4	8.2	2.5	1.7	4.2
	2018	4.0	4.4	4.4	8.9	3.0	1.9	4.9
	평균	4.0	3.8	4.2	8.0	2.4	1.6	4.0
대규모 (5인이상)	2012	4.9	10.1	14.1	24.2	5.6	13.7	19.3
	2014	10.9	21.4	13.3	34.7	8.3	15.5	23.8
	2016	2.4	12.9	16.2	29.1	10.0	16.7	26.8
	2018	-5.4	8.7	12.4	21.1	10.7	15.7	26.5
	평균	3.2	13.3	14.0	27.3	8.7	15.4	24.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7.9	15.3	15.0	30.3	13.8	8.7	22.4
	2014	10.4	21.2	16.2	37.5	17.6	9.4	27.0
	2016	8.8	20.0	17.4	37.5	17.8	10.9	28.7
	2018	4.8	17.3	12.2	29.5	16.7	8.0	24.7
	평균	8.0	18.5	15.2	33.7	16.5	9.2	25.7
대규모 (5인이상)	2012	0.2	16.1	13.2	29.3	9.3	19.8	29.1
	2014	1.2	22.9	14.4	37.3	13.7	22.4	36.1
	2016	-4.2	17.8	16.3	34.0	16.1	22.1	38.2
	2018	-4.0	13.6	15.7	29.2	12.8	20.4	33.2
	평균	-1.7	17.6	14.9	32.5	13.0	21.2	34.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2> 영천시, 군위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8	1.2	0.9	2.0	0.7	0.5	1.2
	2014	1.3	2.0	1.0	3.0	0.9	0.8	1.7
	2016	0.6	1.5	0.8	2.3	0.9	0.8	1.7
	2018	0.3	1.6	0.5	2.1	1.2	0.6	1.8
	평균	0.8	1.6	0.8	2.4	0.9	0.7	1.6
고매출 (중위이상)	2012	7.0	11.5	16.5	28.0	6.6	14.5	21.0
	2014	14.4	23.7	16.6	40.3	9.7	16.3	25.9
	2016	5.9	15.0	19.7	34.7	11.5	17.4	28.9
	2018	-1.6	11.4	16.2	27.7	12.4	16.8	29.3
	평균	6.4	15.4	17.3	32.7	10.0	16.2	26.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4.3	12.4	6.4	18.8	9.4	5.2	14.5
	2014	3.6	15.1	7.2	22.4	12.0	6.7	18.7
	2016	0.7	13.0	5.7	18.7	11.7	6.3	18.0
	2018	0.0	10.2	3.4	13.6	9.5	4.1	13.6
	평균	2.2	12.7	5.7	18.4	10.6	5.6	16.2
고매출 (중위이상)	2012	3.7	19.0	21.7	40.7	13.8	23.3	37.1
	2014	8.0	29.1	23.3	52.4	19.3	25.1	44.4
	2016	3.6	24.5	27.8	52.3	22.1	26.6	48.7
	2018	0.7	20.7	24.2	44.9	20.0	24.2	44.2
	평균	4.0	23.3	24.2	47.6	18.8	24.8	43.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표 61>을 통해 산업 내부에서 고용 창출 구조의 규모별 이질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광·제조업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3-2014년 10.9백명의 진입 사업체의 고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으나 2017-2018년 기간에는 5.4백명의 일자리가 순감소하였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제조업의 경우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진입을 통

한 고용 규모가 2014년 이후 축소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그룹에서는 2015-2016년 이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62>의 매출 규모별 분석 결과, 영천시의 순일자리창출은 대부분 고매출 사업체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고매출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향후 안정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긍정적 고용 신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순일자리창출 규모 추이를 점검해보면, 산업 및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2013-2014년 기간 이후 그 규모가 빠르게 축소된다. 영천시와 같은 소도시의 경우 산업단지나 특정 대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농업 산업 기반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들이 지역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용 창출 능력 감소의 원인을 특정 부문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 사회 자체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11 의성군, 예천군

<표 63>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0.7	21.6	21.5	43.1	17.6	26.2	43.8
2014	7.0	28.3	24.4	52.6	18.0	27.7	45.6
2016	4.3	22.4	27.8	50.2	20.0	25.9	45.9
2018	9.9	23.9	27.8	51.7	19.0	22.7	41.7
평균	5.1	24.0	25.4	49.4	18.6	25.6	44.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4>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0.5	3.4	3.1	6.5	2.1	3.9	6.0
	2014	1.4	3.7	3.4	7.2	1.9	3.8	5.7
	2016	0.6	2.3	4.1	6.5	2.3	3.6	5.9
	2018	0.6	3.1	3.4	6.5	2.4	3.5	5.9
	평균	0.8	3.2	3.5	6.6	2.2	3.7	5.9
비제조업	2012	-1.2	18.2	18.4	36.6	15.5	22.3	37.8
	2014	5.6	24.5	20.9	45.5	16.0	23.9	39.9
	2016	3.7	20.1	23.7	43.8	17.7	22.3	40.0
	2018	9.4	20.7	24.4	45.2	16.6	19.2	35.8
	평균	4.4	20.9	21.9	42.8	16.5	21.9	38.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3>의 의성군과 예천군(이하 의성군)의 순일자리 창출은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분석 기간 중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연평균 5.1백명이며, 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2013-2014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나,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폭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양호한 순일자리창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4>에 정리된 산업별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제조업 사업체를 통해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제조업의 평균 순일자리창출은 약 0.8백명으로 4.4백명을 기록한 비제조업보다

작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연도별 일자리 창출이나 소멸이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예천군과 의성군은 모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고, 대구, 포항등 경북권 주요 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도 멀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 노동 시장 모두 주목할만한 역동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표 65>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2	0.8	1.0	1.8	0.9	1.0	1.9
	2014	1.4	1.3	1.8	3.1	0.7	1.0	1.7
	2016	1.4	1.2	2.2	3.4	1.4	0.6	2.0
	2018	1.4	1.7	1.4	3.1	0.9	0.8	1.7
	평균	1.0	1.2	1.6	2.8	1.0	0.8	1.8
대규모 (5인이상)	2012	0.6	2.6	2.1	4.7	1.2	2.9	4.1
	2014	0.1	2.4	1.7	4.1	1.3	2.8	4.1
	2016	-0.9	1.2	1.9	3.1	0.9	3.0	4.0
	2018	-0.8	1.4	2.0	3.4	1.5	2.7	4.2
	평균	-0.2	1.9	1.9	3.8	1.2	2.9	4.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2.5	9.5	9.2	18.7	9.5	6.7	16.2
	2014	5.4	11.8	11.7	23.5	9.6	8.6	18.2
	2016	9.1	11.8	14.1	25.9	10.1	6.7	16.8
	2018	5.5	11.8	9.9	21.7	10.0	6.2	16.3
	평균	5.6	11.2	11.2	22.5	9.8	7.1	16.9
대규모 (5인이상)	2012	-3.7	8.7	9.2	17.9	6.0	15.6	21.6
	2014	0.2	12.7	9.2	21.9	6.4	15.3	21.7
	2016	-5.3	8.2	9.6	17.9	7.5	15.7	23.2
	2018	3.9	8.9	14.5	23.4	6.6	13.0	19.5
	평균	-1.2	9.7	10.6	20.3	6.6	14.9	21.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6> 의성군, 예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5	0.6	0.6	1.2	0.9	0.8	1.7
	2014	0.6	0.9	0.8	1.7	0.4	0.7	1.1
	2016	0.1	0.7	0.8	1.4	0.8	0.5	1.4
	2018	0.2	0.9	0.4	1.3	0.6	0.5	1.1
	평균	0.1	0.8	0.6	1.4	0.7	0.6	1.3
고매출 (중위이상)	2012	0.9	2.6	2.4	5.1	1.1	3.1	4.2
	2014	0.8	2.8	2.5	5.3	1.5	3.0	4.5
	2016	0.4	1.6	3.4	5.0	1.3	3.2	4.5
	2018	0.3	2.2	2.9	5.1	1.8	3.0	4.8
	평균	0.6	2.3	2.8	5.1	1.4	3.1	4.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6	8.2	5.1	13.3	6.9	4.8	11.7
	2014	0.5	8.0	5.4	13.4	7.2	5.7	12.9
	2016	3.1	9.0	5.2	14.2	7.0	4.1	11.0
	2018	1.7	7.9	3.9	11.8	6.9	3.2	10.1
	평균	1.7	8.3	4.9	13.2	7.0	4.5	11.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9	10.0	13.2	23.2	8.5	17.6	26.1
	2014	5.0	16.5	15.4	31.9	8.8	18.2	27.0
	2016	0.6	11.1	18.6	29.6	10.7	18.3	29.0
	2018	7.7	12.8	20.4	33.2	9.5	16.0	25.5
	평균	2.6	12.6	16.9	29.5	9.4	17.5	26.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5>의 규모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5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동학은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이 의성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평균적으로 총 1.4백명의 순고용감소가 나타난다. 이처럼 의성군의 경우, 제한적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영세 지역 서비스업

및 농업 관련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6>에 정리한 매출 수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비제조업의 고매출 사업체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순일자리창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4년에는 16.5백명의 일자리가 진입 사업체를 통해 창출되면서 5.0백명의 순일자리창출을 달성하였고, 2017-2018년에는 7.7백명 규모의 순고용이 창출되었다. 대체로 광·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순고용창출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고매출 사업체 중 계속 사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6.12 성주군, 고령군

<표 67>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5.6	28.2	25.0	53.2	20.3	27.4	47.6
2014	32.9	55.8	35.8	91.6	25.6	33.1	58.8
2016	15.4	39.9	39.3	79.2	31.6	32.2	63.8
2018	7.3	33.2	31.7	64.9	26.0	31.7	57.6
평균	15.3	39.3	32.9	72.2	25.9	31.1	57.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8>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6.2	14.5	13.2	27.7	9.4	12.2	21.6
	2014	21.3	30.8	17.9	48.6	11.0	16.3	27.3
	2016	9.0	19.3	19.8	39.1	13.9	16.3	30.2
	2018	2.8	15.5	16.9	32.4	11.8	17.8	29.6
	평균	9.8	20.0	16.9	37.0	11.5	15.6	27.2
비제조업	2012	-0.6	13.6	11.8	25.5	10.9	15.2	26.1
	2014	11.5	25.1	17.9	43.0	14.6	16.9	31.5
	2016	6.4	20.6	19.5	40.1	17.7	16.0	33.7
	2018	4.5	17.7	14.8	32.5	14.2	13.9	28.0
	평균	5.5	19.3	16.0	35.3	14.3	15.5	29.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7>의 성주군 및 고령군의 순일자리 창출은 2013-2014년 기간 이후 매 기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제조업 고용 비중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이 전 기간 평균 39.3백명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광·제조업 고용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8>의 산업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이 비제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이 유난히 높았던 2013-2014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광·제조

업의 순일자리창출 비중이 더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비제조업과 광·제조업의 순일자리창출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높은 광·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광·제조업 경기의 영향이 비제조업에도 나타나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9>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3.4	3.2	3.2	6.4	1.7	1.3	3.0
	2014	7.6	7.0	6.2	13.1	3.2	2.3	5.5
	2016	7.9	6.0	7.4	13.4	3.8	1.8	5.5
	2018	6.3	5.4	6.6	12.0	3.6	2.1	5.8
	평균	6.3	5.4	5.9	11.2	3.1	1.9	4.9
대규모 (5인이상)	2012	2.8	11.4	10.0	21.3	7.7	10.9	18.6
	2014	13.7	23.8	11.7	35.5	7.8	14.0	21.8
	2016	1.1	13.4	12.4	25.8	10.1	14.5	24.6
	2018	-3.5	10.1	10.3	20.4	8.2	15.7	23.8
	평균	3.5	14.7	11.1	25.7	8.5	13.8	22.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1.7	8.8	5.8	14.5	8.4	4.4	12.8
	2014	9.0	14.0	10.6	24.6	9.5	6.1	15.6
	2016	6.4	12.2	10.0	22.2	10.1	5.7	15.8
	2018	6.2	12.5	8.1	20.6	9.8	4.6	14.4
	평균	5.8	11.9	8.6	20.5	9.5	5.2	14.7
대규모 (5인이상)	2012	-2.3	4.8	6.1	10.9	2.4	10.8	13.3
	2014	2.5	11.1	7.3	18.4	5.1	10.7	15.8
	2016	0.0	8.4	9.5	17.9	7.6	10.3	17.9
	2018	-1.6	5.3	6.7	11.9	4.3	9.3	13.6
	평균	-0.4	7.4	7.4	14.8	4.9	10.3	15.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0> 성주군,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9	1.2	0.5	1.8	0.5	0.4	0.9
	2014	0.9	1.8	0.9	2.7	1.0	0.8	1.8
	2016	1.0	1.8	0.7	2.5	1.0	0.5	1.5
	2018	0.8	1.8	0.7	2.5	1.1	0.6	1.6
	평균	0.9	1.7	0.7	2.4	0.9	0.6	1.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5.1	13.2	12.5	25.7	8.9	11.7	20.6
	2014	20.4	28.9	17.0	45.9	10.0	15.5	25.5
	2016	7.9	17.5	19.0	36.4	12.9	15.6	28.5
	2018	1.6	13.6	16.0	29.6	10.8	17.2	28.0
	평균	8.8	18.3	16.1	34.4	10.6	15.0	25.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2	5.8	2.6	8.4	5.9	2.7	8.6
	2014	1.9	7.8	3.9	11.7	6.2	3.6	9.8
	2016	1.0	7.7	2.7	10.3	6.1	3.2	9.3
	2018	2.5	6.7	2.7	9.4	5.1	1.8	6.9
	평균	1.3	7.0	3.0	10.0	5.8	2.8	8.6
고매출 (중위이상)	2012	-0.5	7.8	9.2	17.0	5.0	12.5	17.5
	2014	9.5	17.2	13.8	31.1	8.4	13.1	21.5
	2016	5.4	13.0	16.8	29.8	11.7	12.7	24.4
	2018	2.0	11.0	12.0	23.0	9.1	11.8	21.0
	평균	4.1	12.2	13.0	25.2	8.6	12.6	21.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69>의 사업체 규모별 분석에서는 대규모 비제조업 사업체의 부진한 일자리 창출이 발견된다. 성주군과 고령군 모두 농업 인구가 높고,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체들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약 6.3백명 정도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2014년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출 수준에 따른 이질성을 검토해보면, <표 70>에서와 같이 광·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고매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증가 추이에 있어서는 광·제조업 고매출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이 2012년 이전 수준인 1.6백명까지 떨어짐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고매출 비제조업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 감소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6.13 칠곡군

<표 71>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8.7	61.2	51.0	112.3	48.3	55.3	103.6
2014	23.4	73.6	55.4	129.0	50.0	55.6	105.6
2016	20.6	69.5	57.6	127.1	57.6	48.9	106.4
2018	13.8	67.5	50.5	118.0	52.9	51.3	104.2
평균	16.6	68.0	53.6	121.6	52.2	52.8	105.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2>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9.4	25.7	26.8	52.5	20.3	22.8	43.1
	2014	6.9	30.7	27.3	58.0	21.7	29.4	51.1
	2016	2.0	23.1	25.6	48.8	22.6	24.2	46.7
	2018	0.4	21.2	23.3	44.4	19.1	25.0	44.0
	평균	4.7	25.2	25.7	50.9	20.9	25.3	46.2
비제조업	2012	-0.7	35.5	24.3	59.8	28.0	32.5	60.4
	2014	16.5	42.9	28.1	71.1	28.3	26.2	54.5
	2016	18.6	46.3	32.0	78.3	35.0	24.7	59.7
	2018	13.4	46.3	27.3	73.5	33.8	26.4	60.2
	평균	12.0	42.8	27.9	70.7	31.3	27.4	58.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칠곡군의 순일자리창출은 <표 71>에서와 같이 2011-2012년 8.7백명에서 2013-2014년 23.4백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2018년 13.8백명까지 하락하였다. 퇴출 사업체 및 계속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의 총합은 분석 기간 동안 1만명 수준으로 매우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자리창출은 상대적으로 규모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표 72>의 산업별 분석에서는 지속적으로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광·제조업과 2011-2012년을 제외하면 양호한 고용 순증가가 나타나는 비제조업의 양상이 대조적이다. 광·제조

업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 모두 추세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기간에서는 진입 및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일자리 소멸이 대체로 전기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입 사업체를 중심으로 창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시에 인접한 위성 도시의 성격이 강하며, 산업 구성의 측면에서도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순증가 자체는 주로 비제조업 분야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업 단지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3>에서 산업별 분석 결과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면, 대부분의 순고용증가는 소규모 사업체를 통해 발생한다. 특히 광·제조업의 경우 2011-2012년을 제외하면 고용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자리 감소폭이 2015-2016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및 계속 사업체의 고용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와 같은 부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인근의 구미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매출 사업체와 저매출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표 74>에서와 같이 저매출 광·제조업의 경우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연평균 1.4백명으로 안정적이지만 다소 미미한 수준의 고용이 창출된다. 광·제조업의 고매출 사업체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2018년 -3.8백명을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5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부진한 일자리 순증가 추이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에서는 고매출 사업체의 일자리 순창출 규모가 저매출 사업체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지만 2017-2018년 기간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규모 차이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매출 사업체들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규모가 2012년 이후 추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표 73>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3.8	4.7	3.8	8.5	2.9	1.8	4.7
	2014	8.4	7.4	7.1	14.4	3.6	2.5	6.1
	2016	7.3	6.9	7.2	14.1	4.7	2.1	6.8
	2018	10.0	6.3	9.3	15.6	4.2	1.4	5.6
	평균	7.4	6.3	6.9	13.2	3.8	2.0	5.8
대규모 (5인이상)	2012	5.5	21.0	23.0	44.0	17.5	21.0	38.5
	2014	-1.4	23.3	20.2	43.6	18.1	26.9	45.0
	2016	-5.3	16.2	18.4	34.6	17.9	22.0	39.9
	2018	-9.6	14.9	13.9	28.8	14.9	23.5	38.4
	평균	-2.7	18.9	18.9	37.7	17.1	23.4	40.4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6.5	22.7	12.9	35.6	18.1	11.1	29.2
	2014	12.7	24.8	15.4	40.3	17.9	9.6	27.5
	2016	12.8	23.3	17.2	40.5	19.4	8.3	27.7
	2018	11.7	24.1	13.5	37.6	18.9	7.0	26.0
	평균	10.9	23.7	14.8	38.5	18.6	9.0	27.6
대규모 (5인이상)	2012	-7.1	12.8	11.4	24.2	9.9	21.4	31.3
	2014	3.8	18.1	12.7	30.8	10.4	16.6	27.0
	2016	5.9	23.1	14.8	37.8	15.6	16.4	32.0
	2018	1.7	22.2	13.7	35.9	14.9	19.4	34.2
	평균	1.1	19.0	13.1	32.2	12.7	18.4	31.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4> 칠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8	1.4	1.4	2.8	0.7	0.4	1.0
	2014	1.2	2.0	0.8	2.8	1.0	0.6	1.6
	2016	1.1	1.8	0.7	2.5	1.1	0.4	1.5
	2018	1.4	1.9	0.8	2.8	1.0	0.3	1.3
	평균	1.4	1.8	0.9	2.7	1.0	0.4	1.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7.4	24.2	25.2	49.4	19.7	22.3	42.0
	2014	5.6	28.7	26.4	55.0	20.5	28.9	49.4
	2016	0.8	21.1	24.9	46.0	21.4	23.8	45.2
	2018	-3.8	19.1	20.4	39.5	18.0	25.2	43.2
	평균	2.5	23.3	24.2	47.5	19.9	25.1	45.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2.9	12.0	3.7	15.7	8.5	4.2	12.7
	2014	4.6	14.4	5.3	19.7	10.4	4.7	15.1
	2016	3.6	13.7	4.0	17.7	10.5	3.6	14.0
	2018	5.0	12.8	3.8	16.6	8.9	2.7	11.6
	평균	4.0	13.2	4.2	17.4	9.6	3.8	13.4
고매출 (중위이상)	2012	-4.8	19.0	18.1	37.1	15.9	26.0	41.9
	2014	12.0	28.5	22.7	51.2	18.0	21.2	39.2
	2016	15.1	32.9	28.2	61.1	24.8	21.2	46.0
	2018	8.6	33.4	23.5	56.9	24.8	23.5	48.3
	평균	7.7	28.5	23.1	51.6	20.9	23.0	43.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6.14 봉화군, 청송군

<표 75>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4.9	17.0	25.9	42.8	12.8	25.2	38.0
2014	-0.9	21.2	25.8	46.9	17.2	30.6	47.8
2016	7.9	19.3	27.8	47.1	17.3	21.9	39.2
2018	10.6	17.5	19.6	37.1	15.5	10.9	26.4
평균	5.6	18.7	24.8	43.5	15.7	22.2	37.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6>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0.8	2.1	2.6	4.7	1.7	2.1	3.9
	2014	1.2	3.0	4.1	7.1	1.4	4.5	5.9
	2016	1.1	2.1	2.7	4.7	1.8	1.9	3.7
	2018	0.8	2.6	1.8	4.3	1.2	2.4	3.6
	평균	1.0	2.4	2.8	5.2	1.5	2.7	4.2
비제조업	2012	4.1	14.9	23.3	38.2	11.1	23.0	34.1
	2014	-2.1	18.2	21.7	39.8	15.8	26.1	41.9
	2016	6.8	17.2	25.1	42.3	15.5	20.0	35.5
	2018	9.9	14.9	17.8	32.7	14.3	8.5	22.9
	평균	4.7	16.3	22.0	38.3	14.2	19.4	33.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5>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봉화군과 청송군의 순일자리창출은 연평균 5.6백명이다. 2013-2014년 기간 0.9백명의 고용이 순감소하였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의 순증가는 대체로 진입/퇴출 사업체보다는 계속 사업체의 고용 조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7-2018년 기간에는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창출 및 소멸 규모가 이전 기간보다 각각 8.2백명, 11.0백명 감소하며 고용 동학의 역동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76>을 통해 산업별로 고용 창출 구조를 분해하면, 비제조업의 순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활

발하다. 봉화군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청송군도 광·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6.2% 수준에 그쳐 경상북도 행정 구역 중 낮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부실한 광·제조업 기반 및 높은 고령 인구 비중으로 영세 지역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표 77>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6	0.6	1.0	1.6	0.6	0.5	1.1
	2014	0.7	0.8	1.2	2.0	0.6	0.7	1.3
	2016	1.0	0.9	1.3	2.2	0.8	0.5	1.3
	2018	0.7	1.1	0.8	1.9	0.7	0.5	1.2
	평균	0.7	0.8	1.1	1.9	0.7	0.5	1.2
대규모 (5인이상)	2012	0.2	1.4	1.6	3.0	1.2	1.7	2.8
	2014	0.5	2.2	2.9	5.1	0.7	3.8	4.6
	2016	0.1	1.2	1.3	2.5	1.0	1.4	2.4
	2018	0.1	1.5	0.9	2.4	0.5	1.9	2.4
	평균	0.2	1.6	1.7	3.3	0.8	2.2	3.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4.5	7.5	9.6	17.1	7.4	5.2	12.6
	2014	5.3	10.5	9.3	19.8	8.5	5.9	14.5
	2016	4.9	10.3	9.7	20.0	8.7	6.4	15.0
	2018	10.0	9.0	6.5	15.5	8.4	-2.9	5.5
	평균	6.2	9.3	8.8	18.1	8.2	3.6	11.9
대규모 (5인이상)	2012	-0.5	7.4	13.7	21.1	3.7	17.9	21.5
	2014	-7.4	7.7	12.4	20.1	7.3	20.2	27.5
	2016	1.9	6.9	15.4	22.3	6.8	13.6	20.5
	2018	-0.1	6.0	11.3	17.3	6.0	11.4	17.4
	평균	-1.5	7.0	13.2	20.2	5.9	15.8	21.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8>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1	0.4	0.6	1.0	0.5	0.4	0.9
	2014	0.2	0.7	0.5	1.2	0.4	0.5	1.0
	2016	0.1	0.5	0.4	1.0	0.5	0.4	0.9
	2018	0.3	0.8	0.2	1.0	0.4	0.3	0.7
	평균	0.2	0.6	0.4	1.0	0.4	0.4	0.9
고매출 (중위이상)	2012	0.7	1.6	2.0	3.7	1.3	1.7	3.0
	2014	0.9	2.2	3.4	5.7	0.9	3.9	4.7
	2016	0.9	1.4	2.2	3.6	1.3	1.4	2.7
	2018	0.5	1.8	1.5	3.3	0.8	2.1	2.9
	평균	0.8	1.8	2.3	4.1	1.1	2.3	3.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9	6.5	4.9	11.4	5.9	3.7	9.5
	2014	1.2	7.4	4.8	12.3	6.4	4.7	11.1
	2016	2.1	7.8	4.0	11.9	6.0	3.8	9.8
	2018	0.1	6.5	2.3	8.8	6.0	2.7	8.8
	평균	1.3	7.1	4.0	11.1	6.1	3.7	9.8
고매출 (중위이상)	2012	2.4	8.4	18.3	26.7	5.1	19.2	24.3
	2014	-3.1	10.7	16.8	27.5	9.3	21.3	30.6
	2016	4.6	9.2	20.9	30.0	9.5	16.0	25.5
	2018	2.3	8.4	15.4	23.8	8.2	13.2	21.4
	평균	1.6	9.2	17.9	27.0	8.0	17.4	25.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77>의 결과를 통해 산업의 고용 동학을 고용 규모별로 분해하면, 예측한 바와 같이 소규모 비제조업 사업체가 지역 노동 시장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광·제조업의 경우 규모에 따른 이질성이 나타나지 않고, 고용 창출 규모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비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개별 항목의 총 고용 변화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와 동일하거나 더 크지만 순일자리창출규모는

2015-2016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하다.

<표 78>의 매출 기준 분해에서도 특별히 주목할만한 고용 동학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봉화 및 청송군의 지역 사회 자체의 역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역 고용의 동학적 변화도 계속 사업체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5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표 79>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2012	1.9	24.2	21.3	45.5	18.9	24.7	43.7
2014	7.1	36.3	25.0	61.3	26.5	27.6	54.2
2016	8.5	26.2	33.8	60.0	23.4	28.2	51.6
2018	7.6	30.2	27.9	58.1	26.2	24.3	50.5
평균	6.3	29.2	27.0	56.2	23.8	26.2	50.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80>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광·제조업 (BCDE)	2012	1.4	1.8	3.6	5.4	1.3	2.6	4.0
	2014	1.0	2.9	3.4	6.2	2.1	3.1	5.2
	2016	2.8	1.9	5.1	7.0	1.8	2.5	4.3
	2018	-0.7	3.1	2.1	5.2	2.3	3.6	5.9
	평균	1.1	2.4	3.5	6.0	1.9	3.0	4.8
비제조업	2012	0.4	22.4	17.8	40.1	17.6	22.1	39.7
	2014	6.2	33.4	21.7	55.1	24.4	24.5	48.9
	2016	5.7	24.3	28.7	53.0	21.6	25.7	47.3
	2018	8.3	27.1	25.8	52.9	23.9	20.7	44.6
	평균	5.2	26.8	23.5	50.3	21.9	23.3	45.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울진, 영덕, 영양군은 고용 및 인구 규모,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대체로 평균보다 작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높은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세 지역 중에서는 울진군이 인구 및 고용 규모가 크며, 광·제조업 및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표 79>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순일자리창출은 평균 6.3 백명이며 2011-2012년 기간 이후 추세적 증가를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진입이, 일자리 소멸 측면에서는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조정 비중이 크다.

<표 80>의 산업별 분해 측면에서는 비제조업의 순고용증가가 연평균 5.2백명으로 광·제조업의 1.1

백명보다 5배 가량 높다. 개별 항목의 고용 흐름 규모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은 평균적으로 약 50.3백명인데, 이는 광·제조업 일자리 창출에서 확인된 6.0백명의 8배보다도 크다. 비제조업의 경우 고용 동학의 전반적인 크기가 2013-2014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다.

<표 81>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0.7	0.6	1.1	1.8	0.5	0.6	1.1
	2014	0.5	0.9	0.8	1.7	0.6	0.6	1.2
	2016	1.3	1.0	1.6	2.6	0.9	0.4	1.3
	2018	1.1	1.3	1.2	2.5	0.8	0.5	1.3
	평균	0.9	1.0	1.2	2.1	0.7	0.5	1.2
대규모 (5인이상)	2012	0.8	1.2	2.5	3.6	0.8	2.1	2.9
	2014	0.5	2.0	2.6	4.5	1.5	2.5	4.0
	2016	1.5	0.9	3.5	4.5	0.9	2.1	2.9
	2018	-1.8	1.8	0.9	2.7	1.4	3.1	4.6
	평균	0.2	1.5	2.4	3.8	1.2	2.4	3.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소규모 (5인미만)	2012	4.0	14.1	10.0	24.1	12.6	7.5	20.1
	2014	6.3	18.2	12.2	30.4	15.0	9.1	24.1
	2016	6.0	16.2	14.9	31.1	14.5	10.6	25.1
	2018	6.9	17.4	11.8	29.2	14.8	7.5	22.3
	평균	5.8	16.5	12.2	28.7	14.2	8.7	22.9
대규모 (5인이상)	2012	-3.5	8.3	7.8	16.1	5.0	14.6	19.6
	2014	-0.1	15.3	9.5	24.7	9.5	15.4	24.9
	2016	-0.4	8.1	13.8	21.9	7.1	15.1	22.3
	2018	1.5	9.6	14.1	23.7	9.1	13.1	22.2
	평균	-0.6	10.3	11.3	21.6	7.7	14.6	22.2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81>의 고용 규모 측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서 대부분의 고용이 창출된다. 비제조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고용 창출 및 소멸을 통해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규모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

<표 82> 봉화군,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별 매출 규모별)

<광·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0.1	0.3	0.5	0.8	0.3	0.4	0.7
	2014	-0.2	0.5	0.3	0.9	0.4	0.6	1.0
	2016	0.1	0.6	0.4	1.0	0.6	0.3	0.9
	2018	0.2	0.7	0.4	1.0	0.5	0.3	0.8
	평균	0.1	0.5	0.4	0.9	0.5	0.4	0.8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2	1.4	3.0	4.4	1.0	2.2	3.2
	2014	1.2	2.3	3.1	5.4	1.7	2.6	4.2
	2016	2.7	1.4	4.7	6.1	1.2	2.2	3.4
	2018	-1.0	2.3	1.7	4.0	1.7	3.3	5.0
	평균	1.0	1.9	3.1	5.0	1.4	2.6	4.0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비제조업>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백명)			일자리 소멸(백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저매출 (중위미만)	2012	1.9	10.3	4.7	15.1	9.0	4.2	13.2
	2014	1.6	12.1	5.5	17.6	10.6	5.3	15.9
	2016	0.2	10.5	4.5	15.0	9.0	5.8	14.8
	2018	2.9	11.1	3.7	14.7	8.7	3.2	11.9
	평균	1.7	11.0	4.6	15.6	9.3	4.6	13.9
고매출 (중위이상)	2012	-1.5	11.9	12.9	24.8	8.6	17.8	26.3
	2014	4.4	21.3	16.1	37.3	13.5	19.4	32.9
	2016	5.5	13.9	24.1	38.0	12.7	19.8	32.5
	2018	5.3	16.0	22.0	38.0	15.2	17.5	32.7
	평균	3.4	15.8	18.8	34.5	12.5	18.6	31.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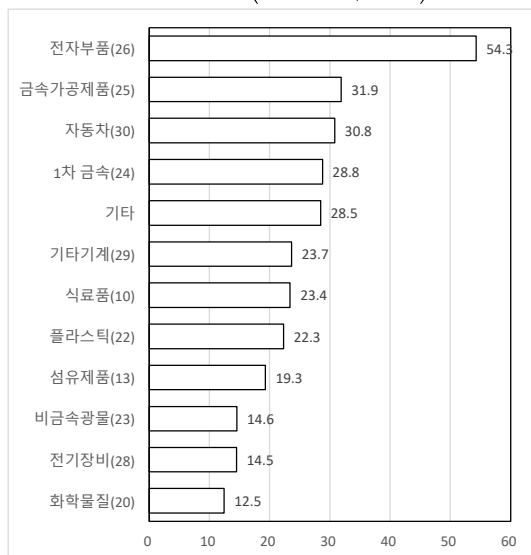
<표 82>는 산업 내 매출 규모별 분석 결과를 요약이다. 비제조업은 매출 규모 기준 분해 결과 고매출 사업체의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고매출 사업체의 경우 계속 사업체를 통한 고용 조정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사업체의 진입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퇴출을 통한 지역 산업 성장은 나타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7. 제조업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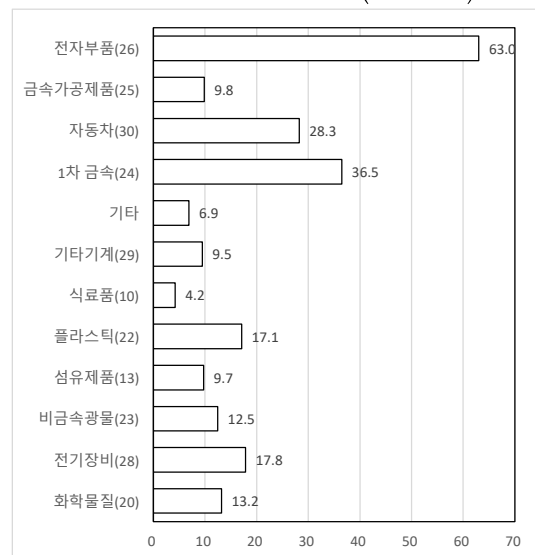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광·제조업 고용 비중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내 광·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대분류 단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산업별 고용 동향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5>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

<산업별 고용(2010-2017, 천명)>



<사업체 1개소당 평균 고용(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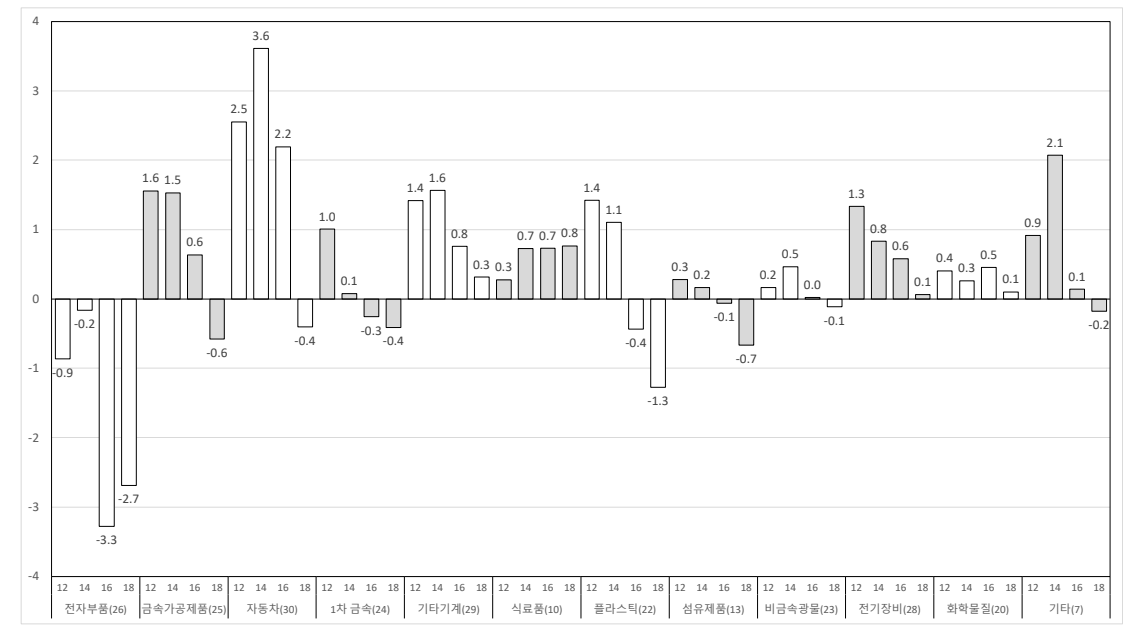


<그림 15>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계산한 산업별 고용이다.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광·제조업(C)의 하위 중분류 산업은 총 24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평균 고용 기중 상위 10개 산업에 대해서는 개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용 비중이 낮은 나머지 산업은 기타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평균 54.3천명이 종사하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전자부품 산업은 사업체의 평균적인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규모를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광·제조업과 자동차 광·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자동차 광·제조업의 평균 사업체 규모가 경북 내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반면 금속가공제품 광·제조업의 경우 평균 사업체 규모가 10명 미만으로 매우 작

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1차 금속 광·제조업과 기타 광·제조업의 고용 수준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는데, 마찬가지로 1차 금속 광·제조업이 대체로 대형화된 반면, 기타 광·제조업의 경우 영세 및 소형 사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산업에서도 대체로 평균 사업체 규모가 20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전자부품, 자동차, 1차 금속과 같은 대형 사업체 위주의 광·제조업과 소형 사업체 위주의 산업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극화된 광·제조업 산업 구성은 경북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규모 및 영세 사업체의 혼재 자체는 고용 창출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으며, 어떤 산업에서 순고용의 증가와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7.1 산업별 고용 동향 분석

<그림 16>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 동향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그림 16>은 순일자리증가 추이를 산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산업은 분석 기간 중 평균규모 순으로 좌측부터 정렬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부품(26)을 제외한 산업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순일자리증가의 규모 자체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식료품(10)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2013-2014년 기간 이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서 감소폭이 크지와 감소폭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산업은 가장 고용 규모가 큰 전자부품 광·제조업이다. 전자제품 광·제조업은 2014년 이후에 큰 폭의 순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15-2016년 -3.3천명, 2017-2018년 -2.7천명으로 순고용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다른 산업의 순고용증가를 상쇄할만큼 감소폭이 크다.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광·제조업(25)의 경우 높은 고용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일자리 창출 규모와 변화폭은 작게 나타나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2017-2018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일자리 순증가 부진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자동차 산업(30)은 2016년까지 매우 높은 순일자리증가를 나타냈으나, 2017-2018년 0.4천명의 고용이 순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83>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일자리 창출 구조

산업분류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전자부품(26)	2012	-0.9	4.6	5.2	9.8	6.8	3.8	10.7
	2014	-0.2	4.7	3.3	8.1	3.3	4.9	8.2
	2016	-3.3	2.4	2.5	4.9	2.8	5.4	8.2
	2018	-2.7	1.7	2.2	3.8	1.6	4.9	6.5
	평균	-1.7	3.3	3.3	6.6	3.6	4.8	8.4
금속가공제품(25)	2012	1.6	3.1	3.1	6.2	2.0	2.6	4.6
	2014	1.5	4.8	3.2	8.0	3.4	3.0	6.4
	2016	0.6	3.3	3.1	6.3	2.5	3.2	5.7
	2018	-0.6	2.7	2.8	5.5	2.9	3.2	6.1
	평균	0.8	3.5	3.0	6.5	2.7	3.0	5.7
자동차(30)	2012	2.5	2.6	2.7	5.3	1.1	1.6	2.7
	2014	3.6	4.4	2.9	7.3	1.6	2.0	3.7
	2016	2.2	2.9	3.6	6.5	1.7	2.7	4.3
	2018	-0.4	2.5	2.7	5.1	2.4	3.1	5.5
	평균	2.0	3.1	3.0	6.0	1.7	2.4	4.1
1차 금속(24)	2012	1.0	2.0	2.0	4.0	1.3	1.7	3.0
	2014	0.1	1.7	1.5	3.2	1.5	1.6	3.1
	2016	-0.3	1.5	1.7	3.2	1.5	2.0	3.5
	2018	-0.4	0.9	1.3	2.2	0.8	1.9	2.6
	평균	0.1	1.5	1.6	3.2	1.3	1.8	3.0
기타 기계(29)	2012	1.4	2.6	2.5	5.0	1.5	2.2	3.6
	2014	1.6	4.0	2.2	6.2	2.2	2.5	4.6
	2016	0.8	2.6	2.6	5.1	1.9	2.5	4.4
	2018	0.3	2.1	2.5	4.6	1.8	2.5	4.3
	평균	1.0	2.8	2.5	5.2	1.8	2.4	4.2
식료품(10)	2012	0.3	1.5	2.1	3.6	1.5	1.8	3.3
	2014	0.7	2.9	2.3	5.2	2.0	2.5	4.5
	2016	0.7	2.3	2.4	4.7	1.9	2.0	4.0
	2018	0.8	2.2	2.1	4.3	1.6	1.9	3.6
	평균	0.6	2.2	2.2	4.5	1.8	2.1	3.8
플라스틱(22)	2012	1.4	2.2	2.2	4.4	1.0	2.0	3.0
	2014	1.1	2.6	2.1	4.7	1.7	1.9	3.6
	2016	-0.4	1.4	1.7	3.1	1.2	2.3	3.5
	2018	-1.3	1.5	1.5	3.0	1.8	2.5	4.3
	평균	0.2	1.9	1.9	3.8	1.4	2.2	3.6
섬유제품(13)	2012	0.3	1.4	1.7	3.1	1.0	1.8	2.9
	2014	0.2	2.0	2.0	3.9	1.2	2.6	3.8
	2016	-0.1	1.1	1.5	2.7	1.0	1.7	2.7

	2018	-0.7	0.8	1.3	2.2	1.0	1.8	2.8
	평균	-0.1	1.3	1.6	3.0	1.1	2.0	3.0
비금속광물(23)	2012	0.2	0.8	1.3	2.1	0.6	1.4	1.9
	2014	0.5	1.3	1.6	2.8	1.2	1.2	2.4
	2016	0.0	0.9	1.2	2.1	0.8	1.3	2.1
	2018	-0.1	0.8	1.1	1.9	0.8	1.2	2.0
	평균	0.1	0.9	1.3	2.2	0.8	1.3	2.1
전기장비(28)	2012	1.3	1.5	1.5	3.0	0.7	1.0	1.6
	2014	0.8	1.2	1.3	2.5	0.6	1.1	1.7
	2016	0.6	1.2	1.7	2.9	1.1	1.2	2.3
	2018	0.1	1.2	1.5	2.7	1.1	1.6	2.7
	평균	0.7	1.3	1.5	2.8	0.9	1.2	2.1
화학물질(20)	2012	0.4	0.8	1.2	2.0	0.7	0.8	1.6
	2014	0.3	1.2	0.9	2.1	0.5	1.3	1.8
	2016	0.5	1.0	1.1	2.1	0.8	0.8	1.6
	2018	0.1	1.0	0.9	1.9	0.8	1.0	1.8
	평균	0.3	1.0	1.0	2.0	0.7	1.0	1.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다음으로 <표 83>은 산업별 순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에 따른 세부 고용 변화를 정리한 자료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관찰된 전자부품 광·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크기가 분석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1-2012년 9.8천명에서 2017-2018년 3.8천명 수준으로 나타나 분석 기간 동안 5.0천명의 일자리 창출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전자부품 산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폭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상당히 빨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순증가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2011-2012년 기간 동안 나타난 높은 퇴출 사업체 고용 감소가 이후의 부족한 신규 진입으로 인해 매워지지 못하고 있을 경우, 잠재적인 고용 순일자리창출 여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금속가공제품 광·제조업(25)과 자동차 산업(30) 경우, 전자부품 광·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 창출 구조를 보여준다. 이들 산업은 분석기간 동안 일자리 소멸 규모가 확대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 감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소멸 측면에서 사업체 퇴출에 의한 소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사업체의 퇴출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결국 충분한 사업체 진입을 통해 만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잠재적 고용 창출 여력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료품(10) 광·제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식료품 광·제조

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0.6천명의 순고용이 매년 창출되었다. 식료품 광·제조업은 개별 항목의 고용 창출과 소멸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총 일자리 창출과 소멸 규모도 2013-2014년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7-2018년의 창출 및 소멸 규모가 2011-2012년보다 높다. 나머지 산업은 2013-2014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고용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공통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일자리 소멸의 경우 그 규모가 확대되는 산업과 축소되는 사업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일자리 소멸 규모가 줄어드는 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자리 순증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산업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광·제조업 부문의 고용 성장률 둔화는 대체로 모든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2017-2018년 기간 동안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전자부품 광·제조업의 경우 2015-2016년 이후 고용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1-2012년 이후 퇴출에 의한 고용 감소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동일기간 동안 진입 사업체의 고용 창출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지속적 점점을 요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금속가공제품 제조, 자동차 제조 등 전자부품 광·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고용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순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 순감소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모든 광·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퇴출을 통한 고용 축소 비중이 큰 산업은 사업체의 퇴출이나 진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출이 가속화되면, 사업체의 개수 및 고용 측면 모두에서 산업이 수축할 수 있다.

8. 사업체의 해외 진출과 복귀

본 장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지역 고용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2018년 기준으로 본사를 경상북도에 둔 기업 중 약 29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광·제조업 기업에 해당한다 (대구·경북 해외진출기업디렉토리). 광·제조업 부문에서 2010년 빠르게 진행된 생산 공정의 다국적화는 최종재 중심의 무역 패턴을 중간재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내 광·제조업 기업들의 경우 한·중·일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교역량이 전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광·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들은 생산법인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기업이 활발한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 따라서 고생산성 및 대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다만 고용 효과의 방향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 소재 사업체의 생산에 보완적(complementary)인지 대체적(substitutable)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상 및 고용 동향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자료를 기업등록부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연계하였다. 기업활동조사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체 보유 여부 및 해외 자회사(또는 관계회사) 보유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자회사(또는 관계회사) 보유 여부는 광·제조업의 생산 공정 다국적화와 무관한 단순 지분 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해외 사업체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기업활동조사는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 변화를 매년 추적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기업의 진출 전 및 진출 기간 중 고용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에 생산거점을 이전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고용 및 매출 변화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상북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진출 사업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사업체를 모두 철수하고 완전히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8.1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및 매출 현황

<표 84>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고용 및 매출

<경북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및 매출>					
기업 구분	연도	사업체수(개)	기업수(개)	고용(천명)	매출(조)
진출	2012	235	22	38.8	35.6
	2014	165	21	30.1	19.3
	2016	213	23	45.4	34.9
	2018	208	23	39.8	35.0
	평균	205	22	38.5	31.2
내수 (50인 이상) + (자본금 3억 ↑)	2012	1,833	481	152.6	71.8
	2014	2,073	475	177.7	111.9
	2016	2,077	466	171.2	94.2
	2018	2,194	448	186.6	100.5
	평균	2,044	467	172.0	94.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북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및 매출>					
기업구분	연도	사업체 1개당		기업체 1개당	
		고용(명)	매출(십억)	고용(명)	매출(십억)
진출	2012	165.1	151.5	1,763.6	1,618.2
	2014	182.4	117.0	1,433.3	919.0
	2016	213.1	163.8	1,973.9	1,517.4
	2018	191.3	168.3	1,730.4	1,521.7
	평균	187.8	152.2	1,750.0	1,418.2
내수 (50인 이상) + (자본금 3억 ↑)	2012	83.3	39.2	317.3	149.3
	2014	85.7	54.0	374.1	235.6
	2016	82.4	45.4	367.4	202.1
	2018	85.1	45.8	416.5	224.3
	평균	84.1	46.3	368.3	202.6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84>는 경상북도 및 나머지 지역의 기업을 해외 진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특성별로 고용 및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해외진출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를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업활동조사의 설문 대상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고용 및 자본금 3억원 이상 보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체 보유 여부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경북지역에서 해외에 1개소 이상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 수는 평균 약 22개이며, 분석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 진출 기업이 보유한 사업체수는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205개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2013-2014년 기간 동안 165개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기간에는 다시 200개 이상의 값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내수 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기업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내수 기업이 보유한 총 사업체수는 진출기업보다 약 10배가량 높으며, 기업 수는 20배 가량 많다. 따라서 진출 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많은 수의 사업체를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은 상대적으로 내수 기업에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며, 매출의 경우 진출 기업에서 평균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내수 기업의 경우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표 84>의 하단 표에서와 같이, 사업체 1개당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진출 기업이 2011-2012년 165.1명에서 2018년 191.3명을 사업체 1개당 고용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내수 기업에서는 사업체 1개당 고용 규모의 변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내수 기업의 고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진출 기업의 고용 성장은 2015-2016년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다. 어떤 방식의 정규화가 적합한지는 기업의 성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동질적인 규모와 영업 및 생산 방식을 가진 사업체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 기업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고용 성장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상이한 규모나 특성을 가진 사업체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생산 방식을 효율화하는 경우, 사업체 수를 분모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85> 해외 진출 기업의 비중

지역	기준(%)			
	사업체수	기업수	고용	매출
경상북도	9.1	4.5	18.3	24.6
경상북도 이외	20.4	6.1	27.6	45.1

한편, <표 85>에서 살펴볼 수 있듯, 사업체수, 기업수, 고용 및 매출 측면 모두에서 경상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사업체가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따라서 국내에 생산 및 영업 기반이 존재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반면, 해외에 사업체를 둔 기업이 경상북도 소재 사업체의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면 지역 노동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국내 잔류 유인을 제공하거나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8.2 해외 진출 상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동향

<표 86> 해외 진출 상태별 고용 동향

기업 구분	연도	순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천명)	일자리소멸(천명)	사업체수(개)
진출	2012	10	44	34	235
	2014	22	39	17	165
	2016	32	75	43	213
	2018	-1	32	33	208
	평균	16	48	32	205
진출 후 복귀	2012	11	18	7	121
	2014	-2	29	31	218
	2016	11	46	35	209
	2018	7	27	20	292
	평균	7	30	23	210
내수 (50인 이상) + (자본금 3억 ↑)	2012	63	211	148	1,712
	2014	34	183	149	1,855
	2016	25	174	149	1,868
	2018	-13	141	154	1,922
	평균	27	177	150	1,839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본 장에서는 <표 86>에서와 같이 기업활동조사상의 기업을 해외 진출 상태인 기업,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 및 나머지 내수 기업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체들의 동향적 특성에 따른 고용 창출 구조를 살펴본다. 진출 후 복귀한 기업은 복귀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에서도 ‘내수’ 기업이 아닌 ‘진출 후 복귀’ 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한 소속 사업체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먼저 진출 상태인 기업의 순일자리창출을 살펴보면, 2015-2016년까지는 지속적인 고용 순증가가 나타났으나 2017-2018년에 급격한 순일자리창출 규모 축소가 나타난다. 반면 한번 해외에 진출했다 복귀한 기업들의 경우, 2013-2014년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순일자리창출 양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내수 기업에서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순일자리창출 규모 축소가 나타난다. 해외 진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2017-2018년에는 일자리의 순감소가 나타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평균 수준에서 해외 진출의 순일자리 창출은 기업활동조사 관측 대상 기업의 전체 순일자리창출의 약 47%(=16/34)를 차지한다. 고용 규모 측면에서 진출 기업 비중이 약 18.6%였던 점을 고려

하면, 순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해외 진출 사업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내수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데 비해, 해외 진출 기업 및 복귀 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소멸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과 복귀 기업이 평균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내수 기업의 일자리 소멸 규모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완전한 해외 이전을 제외한 일부 사업체의 해외 진출이 경상북도 내 고용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외 사업체 진출이 생산 과정을 보다 효율화하고 내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오히려 긍정적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해외 진출 후 복귀한 기업의 경우, 순일자리창출의 절대적 크기가 다른 유형의 기업보다 작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2017-2018년에도 평균 수준의 순일자리창출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지역 고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외 진출 기업에 의한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경상북도 전체의 평균 순일자리창출 규모의 약 7%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의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9. 사업주 연령별 분석

본 장에서는 사업주 연령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구조를 확인한다. 사업주의 연령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대용하는 중요한 인적자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지역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 영업방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젊은 사업주의 창업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연령별 사업체 동학에 대한 분석 역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등록부에서는 2012년 이후 개인사업체에 대해 사업주의 생년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 이전에 퇴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 보강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결측치가 초래하는 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13-2014년부터 고용 동학 분석을 진행하며, 사업체는 50세 미만 사업체, 50세 이상 사업체 및 법인 등 기타 사업체의 3가지로 분류한다.

<표 87>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학

지역 구분	50세 미만	50세 이상	법인 등
경상북도	31.0	61.9	7.1
경상북도 이외	33.1	59.3	7.6

<표 87>은 경상북도와 나머지 지역의 사업주 연령 분포를 비교한 자료이다. 경상북도의 근로자 연령 분포는 경상북도 이외 지역과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즉 50세 이상 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세 미만 사업체는 30% 수준이다. 다만 세부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50세 미만 사업주에 의한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50세 이상 사업체 및 법인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비중 차이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의 크기를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경제의 전반적 역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8>은 사업주 연령에 따른 사업체 진입률 및 퇴출률을 나타낸다. 평균적인 순진입률을 보면, 50세 미만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체의 순진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동학의 크기 역시 50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고,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진입률과 퇴출률이 10% 초반 수준으로 낮다. 법인 등 나머지 부문은 50세 2013-2014년 기간 동안 퇴출률이 22.2%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기간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 2017-2018년에 14.3%까지 하락하였다.

<표 88>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연령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50세 미만	2014	25.6	16.5	9.2
	2016	23.2	16.0	7.2
	2018	22.4	16.4	6.0
	평균	23.7	16.3	7.5
50세 이상	2014	13.7	12.0	1.7
	2016	11.7	12.4	-0.7
	2018	10.6	11.4	-0.8
	평균	11.9	11.9	0.0
법인 등	2014	15.1	22.2	-7.1
	2016	13.0	20.0	-7.0
	2018	14.7	14.3	0.4
	평균	14.3	19.1	-4.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89> 사업주 연령별 고용 동향

연령	연도	순일자리	일자리 창출(천명)			일자리 소멸(천명)		
		창출	진입	계속	합계	퇴출	계속	합계
50세 미만	2014	28.0	70.1	39.2	109.2	41.3	40.0	81.3
	2016	22.2	57.7	38.3	96.0	40.2	33.6	73.8
	2018	16.1	51.2	30.2	81.4	37.0	28.2	65.3
	평균	22.1	59.6	35.9	95.5	39.5	33.9	73.5
50세 이상	2014	8.9	56.2	50.5	106.7	42.3	55.5	97.8
	2016	6.1	48.3	60.2	108.5	44.8	57.6	102.4
	2018	-5.2	45.9	54.8	100.7	48.6	57.4	106.0
	평균	3.2	50.1	55.2	105.3	45.2	56.8	102.1
법인 등	2014	-4.6	9.0	6.4	15.4	12.7	7.3	20.0
	2016	1.3	9.2	7.2	16.4	9.0	6.1	15.0
	2018	3.4	10.9	6.5	17.4	7.3	6.7	14.0
	평균	0.1	9.7	6.7	16.4	9.7	6.7	16.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향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표 89>는 사업주 연령별 일자리 창출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50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평균 22.1천명의 고용이 순증가하여 일자리 순증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6천명씩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진입류와 퇴출류가 대체로 일관되게 관측되었던 <표 88>에서와 달리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진입 사업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 따라서 진입 사업체의 평균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50세 이상 사업체는 순일자리창출 측면에서 2016년까지 6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나, 2017-2018년 기간에는 5.2천명의 고용이 순감소하였다. 높은 60% 이상의 높은 고용 비중에 비해 순일자리창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50세 미만 사업체와 달리 진입 및 퇴출 사업체보다는 계속 사업체에 의한 고용 조정 규모가 더 크게 관측된다. 진입 사업체 고용 규모 축소와 더불어 전반적인 일자리 소멸 규모 확대가 2017-2018년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법인 등 기타 사업체의 경우, 2013-2014년 이후 기간에서는 양호한 순일자리창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도 퇴출에 의한 고용 소멸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진입 사업체의 고용 규모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사업주 연령 측면에서 고용 순증가는 주로 50세 미만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나타난다. 새로운 일자리가 이들 사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50세 미만 사업체에 의한 순일자리창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사업주 연령만으로 사업체의 장기적인 생존이나 높은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10. 사업체의 지역간 이전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사업체식별코드는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재지가 달라지는 관측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측치는 동일 사업주가 사업체 이전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체의 지역간 이전 추이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점검한다.⁴⁾

<표 90> 지역별 사업체 전입 및 전출

시도	전출 사업체수	전입 사업체수	순전입 사업체수
서울	7,769	3,062	-4,707
부산	1,051	775	-276
대구	1,078	544	-534
인천	1,923	1,872	-51
광주	476	325	-151
대전	597	346	-251
울산	322	245	-77
세종	164	1,107	943
경기	4,958	8,851	3,893
강원	262	423	161
충북	877	597	-280
충남	894	956	62
전북	226	295	69
전남	340	535	195
경북	736	1,269	533
경남	877	1,122	245
제주	55	129	74

<표 90>은 시도별 사업체 전출 및 전입 양상을 보여준다. 경상북도에서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736개 사업체가 기타 시도로 이전하였으며, 1,269개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입하여 533개의 사업체가 순전입하였다. 세종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사업체의 전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이외의 지자체에서 순전입이 양(+)의 값을 갖는 점과 일관된 양상이다. 다만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체의 전입이 나타나고 있다.

<표 91>은 경상북도의 사업체 전입 및 전출을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4) 이와 같은 방식은 업체 이전 과정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다사업체 기업의 사업체 재분배 과정과 같은 일부 사업체의 전입 및 전출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성적인 분석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어렵다.

<표 91> 경상북도의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 진출 및 전입

<광제조업>						
지역	전출			전입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서울	4	26	16.4	4	37	2.0
부산	4	17	5.0	7	396	300.8
대구	86	1,611	328.9	432	4,074	1,166.6
인천	-	-	-	5	89	23.9
광주	-	-	-	0	0	0
대전	0	0	0	3	44	13.7
울산	20	462	159.1	74	1,006	253.6
세종	-	-	-	0	0	0
경기	20	152	40.6	28	654	147.7
강원	3	12	1.5	0	0	0
충북	4	32	13.2	7	65	16.3
충남	11	208	36.9	3	119	38.6
전북	-	-	-	-	-	-
경남	12	96	28.3	20	217	47.4

<비광제조업>						
지역	전출			전입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서울	37	401	86.4	36	1,977	452.2
부산	25	160	12.9	24	92	35.4
대구	280	1,916	373.1	437	2,848	637.3
인천	3	43	1.3	8	132	18.4
광주	5	46	3.6	-	-	-
대전	10	81	14.1	5	35	4.8
울산	17	77	9.8	40	189	36.4
세종	5	20	2.2	-	-	-
경기	55	362	56.9	46	1,138	954.5
강원	19	101	4.3	11	41	2.1
충북	22	145	26.5	13	53	2.7
충남	17	183	10.7	11	77	7.4
전북	15	116	42.2	4	23	2.5
전남	17	118	12.2	7	62	2.7
경남	34	273	50.5	36	232	35.8
제주	7	553	3.9	-	-	-

주1) ‘-’는 관측치 수가 3개 미만인 경우를 나타내며, 전입 또는 전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시하였음.

주2) 전출과 전입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표에 나타나지 않았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산업과 무관하게 대구광역시로의 전입 및 전출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특히 광제조업의 경우 전입 사업체 수가 전출 사업체보다 약 5배 높은 432개를 기록하였다. 광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체 전입과 전출은 대구광역시와의 왕래를 통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동의 상당 부분은 경산시, 구미시와 같은 대구광역시 인접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광제조업의 경우 울산 및 경기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전출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특히 울산으로부터의 전입은 서비스업보다 광제조업 부문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

<표 92> 경상북도의 광제조업 세부 산업별 사업체 전출 및 전입

산업명(9차)	전출			전입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사업체수(개)	고용(명)	매출(십억)
비금속광물(7)	-	-	-	-	-	-
식료품(10)	3	31	2.6	18	174	27.1
섬유제품(13)	12	119	21.9	50	428	120.9
의복(14)	-	-	-	8	19	1.9
가죽(15)	0	0	0	-	-	-
목재(16)	4	18	1.5	9	43	5.8
종이(17)	-	-	-	12	95	22.1
인쇄(18)	-	-	-	-	-	-
화학물질(20)	9	42	14.3	12	130	40.5
의약품(21)	0	0	0	-	-	-
플라스틱(22)	14	123	31.2	44	596	99.8
비금속광물(23)	4	32	7.9	11	59	8.6
1차금속(24)	7	60	33.1	16	167	171.5
금속가공제품(25)	30	193	38.3	165	1,666	389.1
전자부품(26)	6	385	51.7	16	261	86.4
의료정밀(27)	8	342	96.0	14	66	10.5
전기장비(28)	9	263	67.8	30	388	89.8
기타기계(29)	28	425	117.0	104	866	176.7
자동차(30)	17	437	128.8	41	1,133	628.1
기타운송장비(31)	-	-	-	6	164	22.7
가구(32)	4	88	38.7	15	111	18.2
기타제조(33)	3	16	0.9	5	30	5.5
하수처리(37)	-	-	-	0	0	0
폐기물(38)	0	0	0	-	-	-

주1) ‘-’는 관측치 수가 3개 미만인 경우를 나타내며, 전입 또는 전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시하였음.

주2) 괄호안은 표준산업분류(9차) 기준 중분류 산업코드를 의미함.

<표 92>는 광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전입 및 전출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전자부품(26), 의료정밀(27)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사업체 전입을 통한 고용 증가가 사업체 전출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 감소를 상회하고 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및 기타기계제조업(29)에서 전출과 전입이 가장 활발하며, 고용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및 자동차제조업(30)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경상북도의 제조업 고용 구성 형태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고용 비중이 낮은(높은) 산업에서 예외적으로 높은(낮은) 전입이나 전출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제로 사업체 이전을 통해 나타나는 고용 및 매출 변화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를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11. 결론

경상북도의 일자리증가율은 연평균 2.3%로 2.9%를 기록한 경상북도 이외 지역보다 0.6%p 낮은 수준이며, 일자리 증가율의 변동 추이는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와 유사하다. 또한, 경상북도의 일자리 증가율은 2013-2014년 연평균 3.3%로 가장 높았으나, 2017-2018년 1.3%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순일자리창출률 감소는 특히 50인 이상 사업체, 매출 4분위 사업체,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광·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순창출 규모 축소는 주로 낮은 진입 사업체의 고용 창출 규모와 계속 사업체의 대규모 일자리 소멸을 통해 유발되고 있으며, 고용 동학의 역동성은 경상북도 이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둔화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및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해 고용 창출 구조의 지역간 이질성이 관찰된다. 제조업 기반으로 많은 인구와 고용을 창출했던 대도시는 제조업 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일부 고령화된 소규모 지역 노동 시장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제조업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고용 비중이 높았던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자리 순감소가 선행적으로 관측되었으며, 2017-2018년 기간에 이와 같은 양상이 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체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고용 창출 구조를 조사한 결과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수 기업들과 비교시, 일자리순증가 추이 측면에서는 주목할만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내수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데 비해, 해외 진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진입 장려 정책은 순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존 산업과 보완성이 강한 중소규모 사업체의 신규 유치, 기존 사업체의 현대화 및 클러스터화를 통한 중규모 사업체로의 성장 등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광·제조업의 고용 침체는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완전히 혁신적인 유형의 제조업 사업체가 아니면 고용 창출 효과의 장기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제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속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 규모 확대와 더불어 퇴출을 통한 고용 소

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고용 축소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관련이 깊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행정 구역의 지역 서비스업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 및 인접 위성 도시의 경우, 높은 제조업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 고용을 구축하지 않으며,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서비스업 양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중소규모 행정 구역에서는 높은 고령화 수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순증가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 중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사업주와 수요자의 고령화 정도가 동시에 심해짐에 따라 민간 지역 서비스 시장이 축소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 간 연결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젊은 인구를 군(君)부 근처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Cho, Janghee, Hyunbae Chun, Yoonsoo Lee, and Insil Yi, “Job Creation, Destruction, and Regional Employment Growth: Evidence from Korean Establishment-level Dat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4), 2015, 55-74.
- Cho, Janghee, Hyunbae Chun, Hongjun Kim, and Yoonsoo Le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New Evidence on the Role of Small versus Young Firms in Korea,” Japanese Economic Review, 68(2), 2017, 173-187.
- Davis, S. J., Haltiwanger, J. C., & Schuh, S. (1998).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MIT Press Books, 1.
- Foster, L., Haltiwanger, J., & Krizan, C. J. (2006). Market selection, reallocation, and restructuring in the US retail trade sector in the 1990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748-758.
- Haltiwanger, J., R. S. Jarmin and J. Miranda,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2013, 347-361.

〈부록〉

1. 기업등록부를 사용한 사업체 진입 퇴출률

지역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경북	2012	17.0	18.0	-1.0
	2014	18.1	14.8	3.2
	2016	17.0	13.4	3.6
	2018	15.5	13.0	2.5
	평균	16.90	14.80	2.08
경북이외	2012	19.0	19.8	-0.9
	2014	20.5	16.1	4.4
	2016	18.7	14.2	4.4
	2018	17.7	14.3	3.5
	평균	18.98	16.10	2.8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상북도-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광·제조업 (BCDE)	2012	19.7	19.4	0.4
	2014	22.6	18.2	4.5
	2016	19.1	15.6	3.5
	2018	18.5	13.1	5.5
	평균	20.0	16.6	3.5
건설업 (F)	2012	19.8	20.6	-0.8
	2014	21.2	16.9	4.3
	2016	19.1	14.4	4.7
	2018	16.7	14.4	2.3
	평균	19.2	16.6	2.6
유통서비스 (GHI)	2012	18.6	22.4	-3.8
	2014	19.9	17.8	2.1
	2016	18.1	16.7	1.4
	2018	16.6	14.8	1.7
	평균	18.3	17.9	0.4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14.3	13.5	0.8
	2014	14.9	10.5	4.5
	2016	15.7	10.7	5.0
	2018	14.4	9.5	4.9
	평균	14.8	11.1	3.8
사회서비스 (OO)	2012	11.9	8.5	3.5
	2014	10.4	7.3	3.1
	2016	11.4	6.5	4.9
	2018	8.1	8.1	0.0
	평균	10.5	7.6	2.9
개인서비스 (PIRS)	2012	17.6	23.5	-5.9
	2014	19.3	18.3	1.1
	2016	18.5	16.2	2.3
	2018	18.7	18.1	0.6
	평균	18.5	19.0	-0.5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상북도 이외 지역- 산업별>

산업분류	연도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광·제조업 (BCDE)	2012	19.8	20.3	-0.5
	2014	22.3	18.0	4.4
	2016	18.9	16.0	2.9
	2018	19.9	14.3	5.6
	평균	20.2	17.2	3.1
건설업 (F)	2012	22.2	23.9	-1.7
	2014	24.6	19.2	5.4
	2016	22.0	17.1	4.9
	2018	20.3	16.5	3.8
	평균	22.3	19.2	3.1
유통서비스 (GHI)	2012	21.3	24.6	-3.3
	2014	23.2	20.9	2.3
	2016	20.1	17.8	2.3
	2018	19.0	16.8	2.2
	평균	20.9	20.0	0.9
생산자서비스 (KLMN)	2012	16.5	14.0	2.5
	2014	17.7	10.0	7.7
	2016	17.1	10.1	7.0
	2018	14.9	9.5	5.4
	평균	16.6	10.9	5.7
사회서비스 (OO)	2012	13.9	10.6	3.3
	2014	12.9	8.3	4.6
	2016	12.3	7.0	5.4
	2018	10.6	9.0	1.6
	평균	12.4	8.7	3.7
개인서비스 (PIRS)	2012	20.1	25.7	-5.7
	2014	22.3	20.0	2.3
	2016	21.7	17.5	4.2
	2018	21.7	19.5	2.2
	평균	21.5	20.7	0.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2 사업체의 동학적 특성별 고용 구성

<경상북도>

구분	연도	고용(a)	고용 구성					사업체(b)	a/b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기타		
계속	2012	832	540	90	130	41	31	157	5.3
	2014	861	570	87	133	40	30	164	5.2
	2016	945	627	98	145	40	35	179	5.3
	2018	976	642	107	149	41	37	186	5.3
	평균	904	595	96	139	41	33	172	5.3
진입	2012	103	52	15	25	6	5	29	3.5
	2014	135	71	20	32	8	5	38	3.6
	2016	115	54	18	30	8	6	35	3.3
	2018	108	51	16	29	7	5	34	3.2
	평균	115	57	17	29	7	5	34	3.4
퇴출	2012	83	38	12	22	6	5	25	3.4
	2014	96	44	14	26	7	5	30	3.3
	2016	94	43	13	26	7	4	31	3.1
	2018	93	43	14	26	7	4	29	3.2
	평균	92	42	13	25	7	5	29	3.3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구분	연도	구성비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기타
계속	2012	65.0	10.8	15.6	4.9	3.7
	2014	66.2	10.1	15.5	4.7	3.5
	2016	66.4	10.4	15.3	4.2	3.7
	2018	65.8	10.9	15.3	4.2	3.8
	평균	65.9	10.6	15.4	4.5	3.7
진입	2012	50.1	14.6	24.4	5.9	5.1
	2014	52.3	14.6	23.4	5.9	3.9
	2016	46.7	15.4	26.1	6.8	5.1
	2018	47.4	14.9	26.5	6.7	4.4
	평균	49.1	14.9	25.1	6.3	4.6
퇴출	2012	46.1	14.6	26.9	6.9	5.5
	2014	45.8	14.8	27.1	7.0	5.4
	2016	46.2	14.2	27.9	7.2	4.5
	2018	45.8	14.8	27.6	7.0	4.8
	평균	46.0	14.6	27.4	7.0	5.1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경상북도 이외>

구분	연도	고용(a)	고용구성					사업체(b)	a/b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기타		
계속	2012	832	540	90	130	41	31	157	5.8
	2014	861	570	87	133	40	30	164	5.8
	2016	945	627	98	145	40	35	179	5.9
	2018	976	642	107	149	41	37	186	6.0
	평균	904	595	96	139	41	33	172	5.9
진입	2012	103	52	15	25	6	5	29	4.1
	2014	135	71	20	32	8	5	38	3.9
	2016	115	54	18	30	8	6	35	3.8
	2018	108	51	16	29	7	5	34	3.8
	평균	115	57	17	29	7	5	34	3.9
퇴출	2012	83	38	12	22	6	5	25	4.0
	2014	96	44	14	26	7	5	30	3.7
	2016	94	43	13	26	7	4	31	3.7
	2018	93	43	14	26	7	4	29	3.7
	평균	92	42	13	25	7	5	29	3.8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구분	연도	구성비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기타
계속	2012	64.8	12.6	14.1	3.9	4.5
	2014	66.5	11.6	13.9	3.6	4.5
	2016	66.6	12.2	13.4	3.2	4.5
	2018	66.7	12.6	13.2	3.2	4.4
	평균	66.2	12.3	13.7	3.5	4.5
진입	2012	54.0	15.8	20.1	4.4	5.7
	2014	54.5	15.9	20.6	4.2	4.9
	2016	51.9	16.5	21.3	4.8	5.5
	2018	53.6	16.0	20.9	4.3	5.2
	평균	53.5	16.1	20.7	4.4	5.3
퇴출	2012	51.5	16.0	21.4	5.1	6.0
	2014	50.3	16.0	22.9	5.1	5.6
	2016	51.8	15.4	22.1	5.0	5.7
	2018	50.6	16.5	22.4	4.9	5.6
	평균	51.1	16.0	22.2	5.0	5.7

주) 이전연도 값과의 평균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동학 변수 값은 2011년과 2012년 추정치의 평균임.

3.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동학적 특성별 고용 및 사업체 수

<광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73	1101
		2014	62	1050
		2016	72	1133
		2018	64	1024
	진입 사업체	2012	8	88
		2014	13	118
		2016	5	41
		2018	9	103
	퇴출 사업체	2012	8	100
		2014	9	110
		2016	6	52
		2018	7	60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32	79
		2014	36	78
		2016	54	118
		2018	59	128
	진입 사업체	2012	9	17
		2014	22	44
		2016	14	30
		2018	12	25
	퇴출 사업체	2012	8	16
		2014	14	24
		2016	14	26
		2018	14	28

<제조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6,875	242,245
		2014	7,627	256,384
		2016	9,207	270,523
		2018	9,686	265,887
	진입 사업체	2012	1,141	21,950
		2014	1,802	29,513
		2016	1,116	17,651
		2018	1,089	17,902
	퇴출 사업체	2012	640	17,579
		2014	918	18,396
		2016	952	16,019
		2018	951	15,418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10,479	20,704
		2014	11,327	22,278
		2016	13,242	27,409
		2018	14,620	29,907
	진입 사업체	2012	1,802	3,602
		2014	2,847	5,973
		2016	2,903	5,636
		2018	2,935	5,477
	퇴출 사업체	2012	1,306	2,492
		2014	1,811	3,426
		2016	2,097	4,035
		2018	1,996	4,00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94	6,668
		2014	95	6,814
		2016	106	7,575
		2018	68	8,027
	진입 사업체	2012	7	177
		2014	9	195
		2016	8	826
		2018	7	86
	퇴출 사업체	2012	6	181
		2014	4	126
		2016	5	45
		2018	28	763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76	199
		2014	81	191
		2016	83	208
		2018	82	161
	진입 사업체	2012	12	20
		2014	12	25
		2016	29	52
		2018	60	119
	퇴출 사업체	2012	7	13
		2014	6	8
		2016	16	28
		2018	35	8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255	4,365
		2014	281	4,866
		2016	342	5,911
		2018	384	6,706
	진입 사업체	2012	41	572
		2014	75	1,081
		2016	40	489
		2018	57	1,022
	퇴출 사업체	2012	25	323
		2014	31	460
		2016	30	312
		2018	28	412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205	527
		2014	256	613
		2016	317	798
		2018	345	845
	진입 사업체	2012	72	151
		2014	92	221
		2016	78	162
		2018	105	242
	퇴출 사업체	2012	29	68
		2014	68	142
		2016	72	152
		2018	55	127

<건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2,275	40,287
		2014	2,367	35,108
		2016	3,448	50,082
		2018	3,738	55,704
	진입 사업체	2012	534	6,385
		2014	777	8,893
		2016	464	6,336
		2018	404	4,502
	퇴출 사업체	2012	369	6,455
		2014	417	5,514
		2016	418	5,330
		2018	437	5,070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3,120	6,521
		2014	3,689	7,751
		2016	4,042	8,748
		2018	4,253	9,631
	진입 사업체	2012	873	1,805
		2014	1,414	3,078
		2016	1,311	2,562
		2018	1,167	2,494
	퇴출 사업체	2012	591	1,195
		2014	942	1,895
		2016	1,052	2,109
		2018	878	1,821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2,657	30,905
		2014	3,057	33,082
		2016	3,699	38,999
		2018	3,832	39,499
	진입 사업체	2012	472	5,221
		2014	693	6,620
		2016	570	5,239
		2018	551	5,000
	퇴출 사업체	2012	327	3,564
		2014	396	4,134
		2016	464	4,347
		2018	435	4,133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37,871	65,584
		2014	38,292	65,481
		2016	41,286	70,217
		2018	42,592	72,187
	진입 사업체	2012	6,759	11,228
		2014	8,645	14,549
		2016	8,528	14,145
		2018	6,949	11,979
	퇴출 사업체	2012	6,050	9,799
		2014	7,215	11,638
		2016	7,626	12,190
		2018	6,704	10,972

<운수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666	19,849
		2014	691	19,546
		2016	825	23,140
		2018	920	25,210
	진입 사업체	2012	108	2,262
		2014	151	3,224
		2016	124	2,518
		2018	97	2,008
	퇴출 사업체	2012	69	1,606
		2014	91	2,415
		2016	115	2,256
		2018	88	1,564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8,779	10,089
		2014	10,551	11,822
		2016	11,508	13,004
		2018	11,613	13,006
	진입 사업체	2012	1,682	1,920
		2014	2,462	2,840
		2016	1,571	1,904
		2018	1,775	2,042
	퇴출 사업체	2012	1,103	1,317
		2014	1,219	1,480
		2016	1,530	1,799
		2018	1,273	1,500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1,727	16,079
		2014	2,100	18,934
		2016	2,549	22,205
		2018	2,726	23,272
	진입 사업체	2012	494	3,751
		2014	704	5,315
		2016	651	5,198
		2018	671	4,999
	퇴출 사업체	2012	222	1,902
		2014	390	2,944
		2016	399	3,165
		2018	461	3,334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32,681	62,842
		2014	32,238	61,822
		2016	34,396	64,762
		2018	34,953	67,001
	진입 사업체	2012	7,674	14,368
		2014	9,326	18,040
		2016	8,737	16,768
		2018	9,079	17,951
	퇴출 사업체	2012	7,544	13,821
		2014	8,675	15,916
		2016	8,345	15,100
		2018	8,246	15,3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289	6,351
		2014	280	5,968
		2016	296	6,053
		2018	326	6,557
	진입 사업체	2012	40	647
		2014	39	580
		2016	42	618
		2018	35	421
	퇴출 사업체	2012	39	667
		2014	45	733
		2016	24	338
		2018	23	337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474	1,187
		2014	523	1,234
		2016	576	1,304
		2018	643	1,421
	진입 사업체	2012	124	230
		2014	162	267
		2016	162	275
		2018	139	246
	퇴출 사업체	2012	84	154
		2014	119	207
		2016	146	241
		2018	121	211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1,370	22,248
		2014	1,406	22,091
		2016	1,397	22,289
		2018	1,443	22,899
	진입 사업체	2012	124	1,916
		2014	79	1,414
		2016	111	1,795
		2018	61	1,044
	퇴출 사업체	2012	106	1,667
		2014	87	1,337
		2016	88	1,423
		2018	63	1,106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691	1,649
		2014	717	1,682
		2016	684	1,610
		2018	732	1,704
	진입 사업체	2012	116	230
		2014	84	162
		2016	99	194
		2018	67	133
	퇴출 사업체	2012	99	203
		2014	101	197
		2016	98	179
		2018	71	1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631	6,443
		2014	675	6,986
		2016	709	7,540
		2018	678	7,270
	진입 사업체	2012	76	973
		2014	87	839
		2016	143	1,520
		2018	106	1,175
	퇴출 사업체	2012	36	696
		2014	59	605
		2016	106	1,018
		2018	128	1,415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2,585	4,396
		2014	2,905	4,831
		2016	3,520	5,657
		2018	3,642	5,585
	진입 사업체	2012	720	1,171
		2014	971	1,580
		2016	1,133	1,815
		2018	932	1,517
	퇴출 사업체	2012	545	861
		2014	625	994
		2016	739	1,169
		2018	1,063	1,7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618	10,057
		2014	696	11,208
		2016	883	15,787
		2018	942	18,396
	진입 사업체	2012	97	1,983
		2014	128	2,548
		2016	122	2,550
		2018	114	1,348
	퇴출 사업체	2012	68	1,190
		2014	61	1,460
		2016	99	1,113
		2018	71	890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1,530	3,158
		2014	1,762	3,568
		2016	1,946	3,990
		2018	2,179	4,468
	진입 사업체	2012	355	673
		2014	478	841
		2016	470	836
		2018	438	823
	퇴출 사업체	2012	242	465
		2014	305	540
		2016	338	577
		2018	311	56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487	19,827
		2014	569	20,468
		2016	729	22,529
		2018	699	20,378
	진입 사업체	2012	179	4,502
		2014	211	5,222
		2016	192	4,040
		2018	195	3,924
	퇴출 사업체	2012	112	3,558
		2014	147	4,323
		2016	174	4,761
		2018	186	3,673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715	1,416
		2014	861	1,637
		2016	1,045	1,984
		2018	1,560	2,801
	진입 사업체	2012	302	582
		2014	445	805
		2016	477	814
		2018	806	1,421
	퇴출 사업체	2012	184	343
		2014	287	531
		2016	348	628
		2018	402	7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963	41,806
		2014	968	39,420
		2016	994	41,961
		2018	1,030	45,512
	진입 사업체	2012	17	227
		2014	20	957
		2016	31	1,938
		2018	13	890
	퇴출 사업체	2012	11	194
		2014	17	943
		2016	17	448
		2018	7	169
	계속 사업체	2012	262	470
		2014	259	440
		2016	248	425
		2018	257	450
	진입 사업체	2012	11	19
		2014	5	11
		2016	23	41
		2018	3	8
	퇴출 사업체	2012	8	15
		2014	14	20
		2016	10	18
		2018	8	13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1,965	63,653
		2014	1,932	64,446
		2016	2,010	66,170
		2018	2,086	65,858
	진입 사업체	2012	123	1,311
		2014	134	1,613
		2016	97	1,065
		2018	112	1,391
	퇴출 사업체	2012	130	1,473
		2014	116	1,312
		2016	88	816
		2018	102	1,074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6,027	10,624
		2014	5,925	10,146
		2016	5,989	10,008
		2018	6,048	10,427
	진입 사업체	2012	1,159	1,836
		2014	1,239	1,986
		2016	1,170	1,794
		2018	1,159	1,895
	퇴출 사업체	2012	1,177	1,897
		2014	1,255	1,990
		2016	1,173	1,804
		2018	1,019	1,6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2,591	46,460
		2014	2,968	54,207
		2016	3,453	63,274
		2018	4,008	78,787
	진입 사업체	2012	350	3,924
		2014	396	5,661
		2016	432	6,335
		2018	462	7,710
	퇴출 사업체	2012	159	2,182
		2014	238	3,285
		2016	225	3,727
		2018	247	3,623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2,719	7,977
		2014	2,917	8,344
		2016	2,865	8,204
		2018	2,921	8,220
	진입 사업체	2012	413	1,201
		2014	359	1,001
		2016	342	924
		2018	251	671
	퇴출 사업체	2012	234	664
		2014	294	808
		2016	316	814
		2018	231	6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314	7,048
		2014	371	7,678
		2016	442	9,210
		2018	516	10,329
	진입 사업체	2012	54	824
		2014	82	1,314
		2016	74	857
		2018	85	884
	퇴출 사업체	2012	20	327
		2014	40	849
		2016	49	514
		2018	51	678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3,950	6,380
		2014	3,758	6,109
		2016	3,872	6,413
		2018	4,260	6,917
	진입 사업체	2012	926	1,544
		2014	1,099	1,864
		2016	1,096	1,837
		2018	1,193	2,034
	퇴출 사업체	2012	1,023	1,644
		2014	1,096	1,741
		2016	941	1,528
		2018	1,008	1,6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동학적 특성	연도	사업체 수(개)	고용(명)
5인이상	계속 사업체	2012	1,028	14,179
		2014	1,171	15,553
		2016	1,264	17,169
		2018	1,103	11,942
	진입 사업체	2012	179	2,718
		2014	210	3,529
		2016	187	2,630
		2018	122	1,187
	퇴출 사업체	2012	116	1,573
		2014	160	2,699
		2016	167	2,663
		2018	241	4,577
5인미만	계속 사업체	2012	20,280	28,412
		2014	20,613	28,837
		2016	20,776	28,744
		2018	20,736	28,287
	진입 사업체	2012	2,391	3,396
		2014	2,415	3,385
		2016	2,635	3,721
		2018	2,386	3,355
	퇴출 사업체	2012	2,116	2,917
		2014	2,306	3,136
		2016	2,381	3,308
		2018	2,452	3,501